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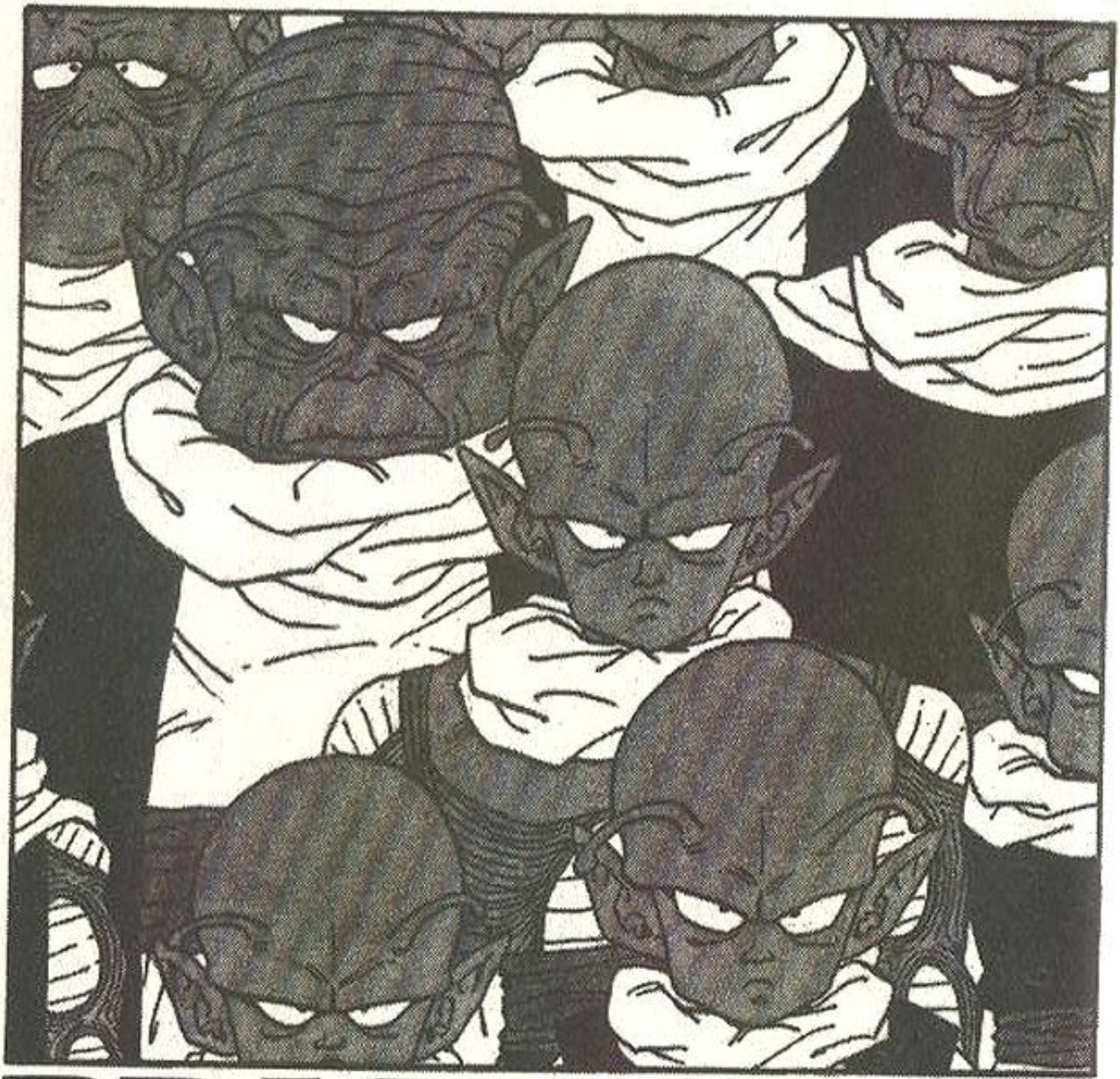
21 나메크성을 향하여!

canned by raprnb



우아아아…!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또 일어나 버렸다. 치과에 가는 것이 싫어서 그냥 놔두었던 충치가, 마침내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은 원고 마감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생겼다.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치과의사한테 달려갔더니, 이미 늦었다며 이빨을 빼버렸다. 이번에는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일을 하게 되는 지경에…. 나 자신 때문이긴 하지만, 지옥 같은 최악의 날이었다….

nned by raprnb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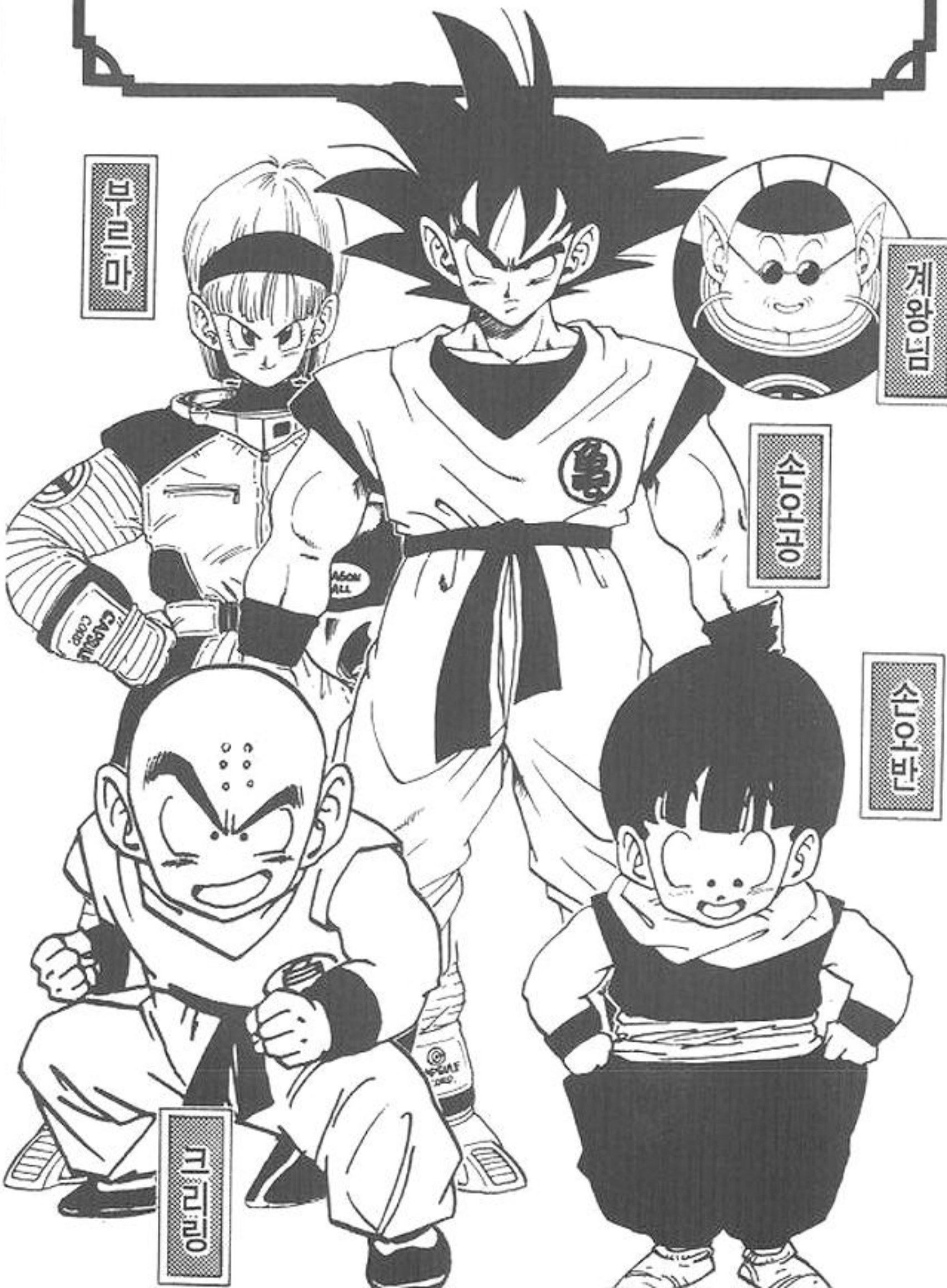
드래곤 볼

제21편 나메크성을 향하여!

AKIRA TORIYAMA

scan

등장인물소개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더욱 수련을 쌓은 오공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다. 하지만, 세계 정복을 꿈꾸는 피콜로 대마왕이 나타나 오공과 대결. 대격투 끝에 오공이 승리한다. 3년 후의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는 손오공이 마침내 우승한다. 그후 지구는 사이어인의 습격을 당한다. 베지터의 저력에 오공은 대위기에 빠지는데! 하지만, 오반의 대변신으로 마침내 베지터는 쓰러지고 만다…!!

DRAGON BALL 21

나메크성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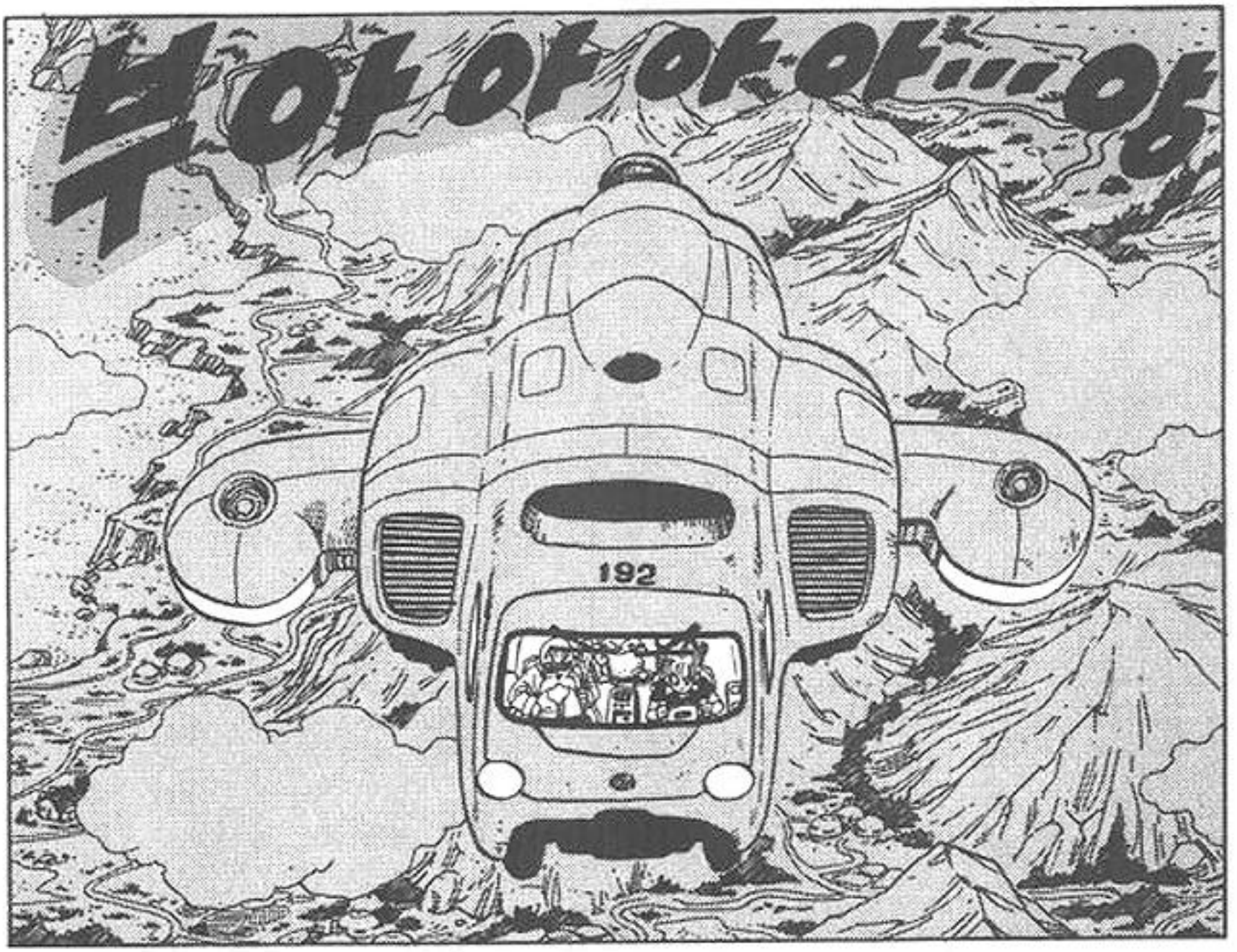


제241화 손오공의 부탁… ····· 7
제242화 우울한 결말… ····· 22
제243화 나메크성을 향하여! ····· 36
제244화 우주선 발견!! ····· 50
제245화 나메크성을 향해 발진!! ····· 64
제246화 베지터 부활!! ····· 78
제247화 암운이 감도는 나메크성 ····· 92
제248화 수수께끼의 이방인 ····· 108
제249화 베지터의 슈퍼파워 ····· 122
제250화 손오공 부활!! ····· 136
제251화 손오공의 우주선 ····· 150
제252화 공포에 떠는 나메크성인 ····· 164
표지 페이지 대특집 XX ····· 179

DRAGON BALL

제241화
손오공의 부탁…




Hof of of-of...of
192


왼쪽
알이지.


보인다.
저 빛이야,
저 빛 아래
오공들이
있어.


어느
쪽이지?
좀 더…,
좀 더
왼쪽으로…!

그래서 안 데려오는 게 좋을 거라 했잖아….

정말!? 정말 오반이 살아있지!? 살아있는 거지!?

아, 아마 그럴 거야!

모든 기가 이미 희미하게 느껴져…. 대체 어떻게 된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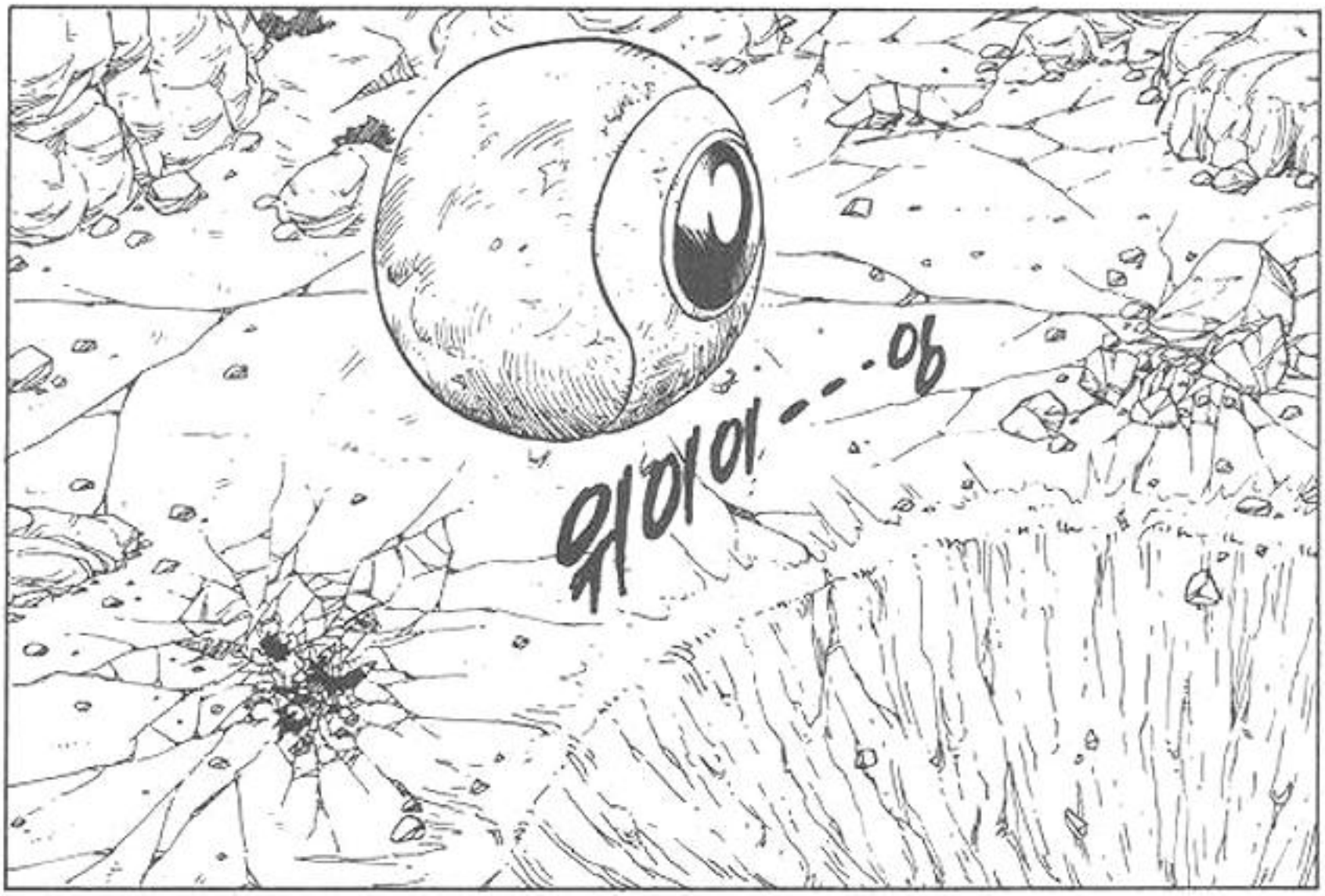
그런데, 기가 느껴지는 건 네 명…. 아니 다섯 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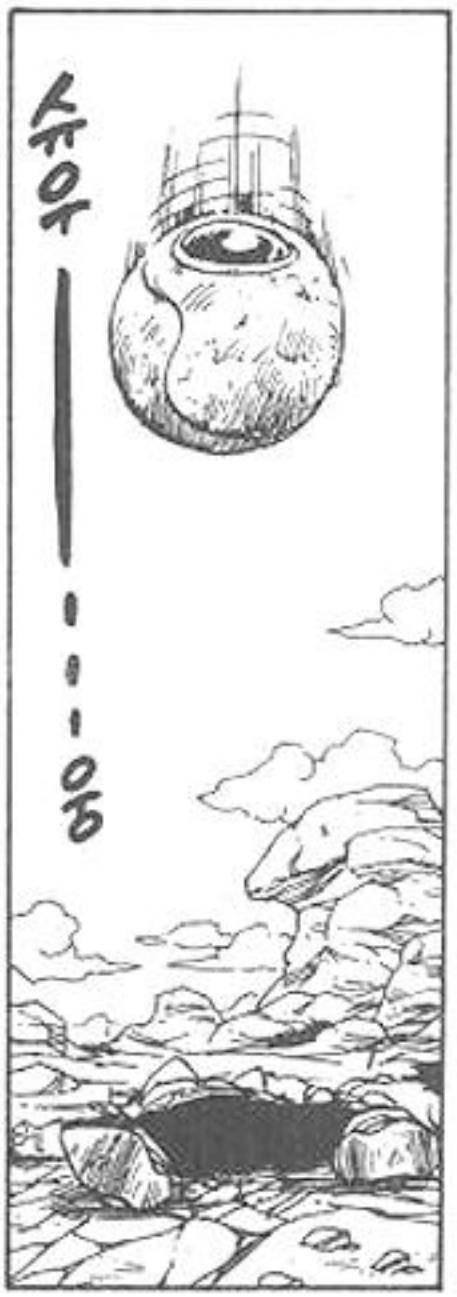
그치만 그 사이어인도 지금은 죽어가고 있는 게 분명해….

나… 나도 잘 몰러…. 나도 중간까지밖에 못봤거든….

'아마'가 뭐야! 확실히 말해!

그, 그치만 내가 어떻게…!


워이이---ob


슈아---응


저… 저건
뭐야…?


워이이---ob
와…,
왔구나…!


……
크으…
으으윽…!
저…
저건….
놈의
우주선
이었군…!
헉억
헉억
엉금…
엉금…
홍….
절대
안 놓친다
…!
제…
제길….
비… 비참하게
내가
이 수모를
당하다니….

겨… 겨우
널 쓰러
뜨렸다….

끄…, 끝장을
내주마….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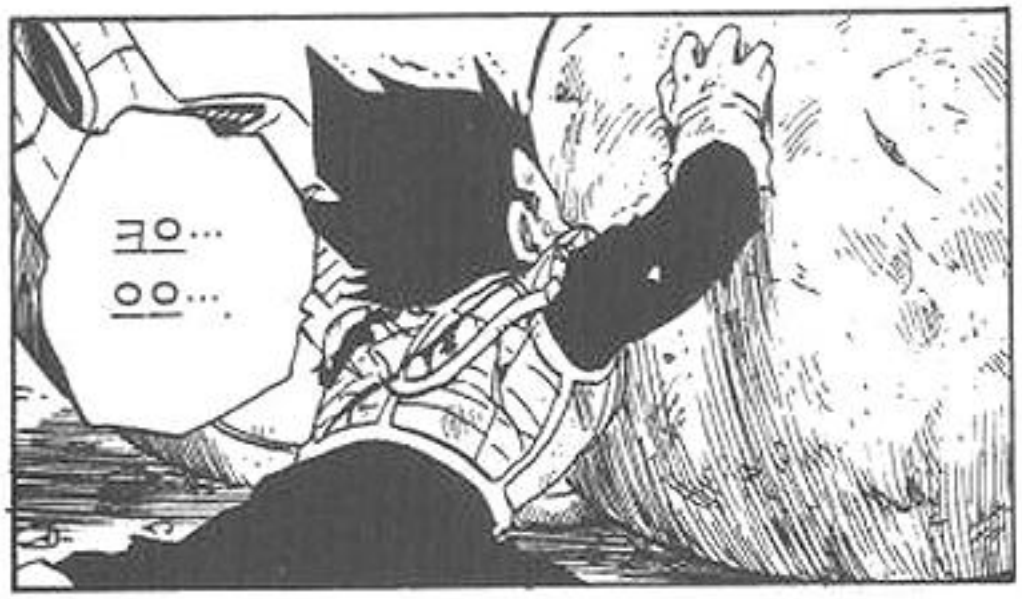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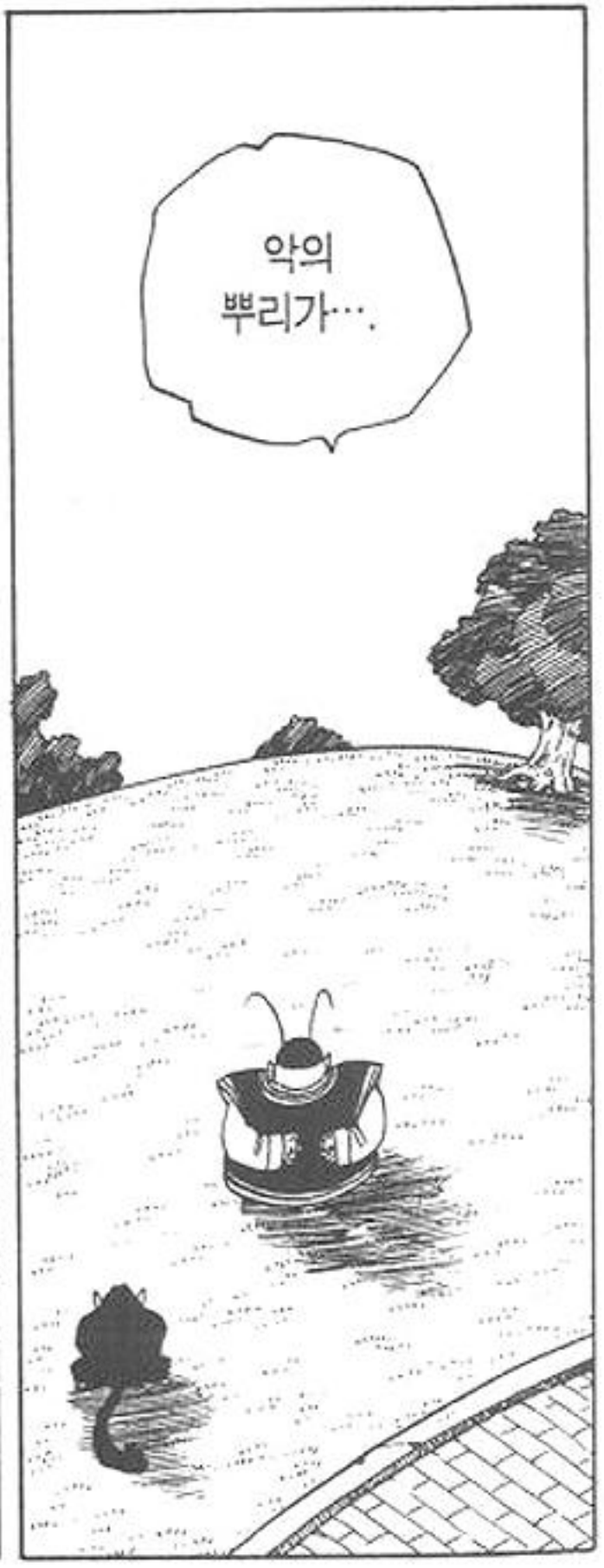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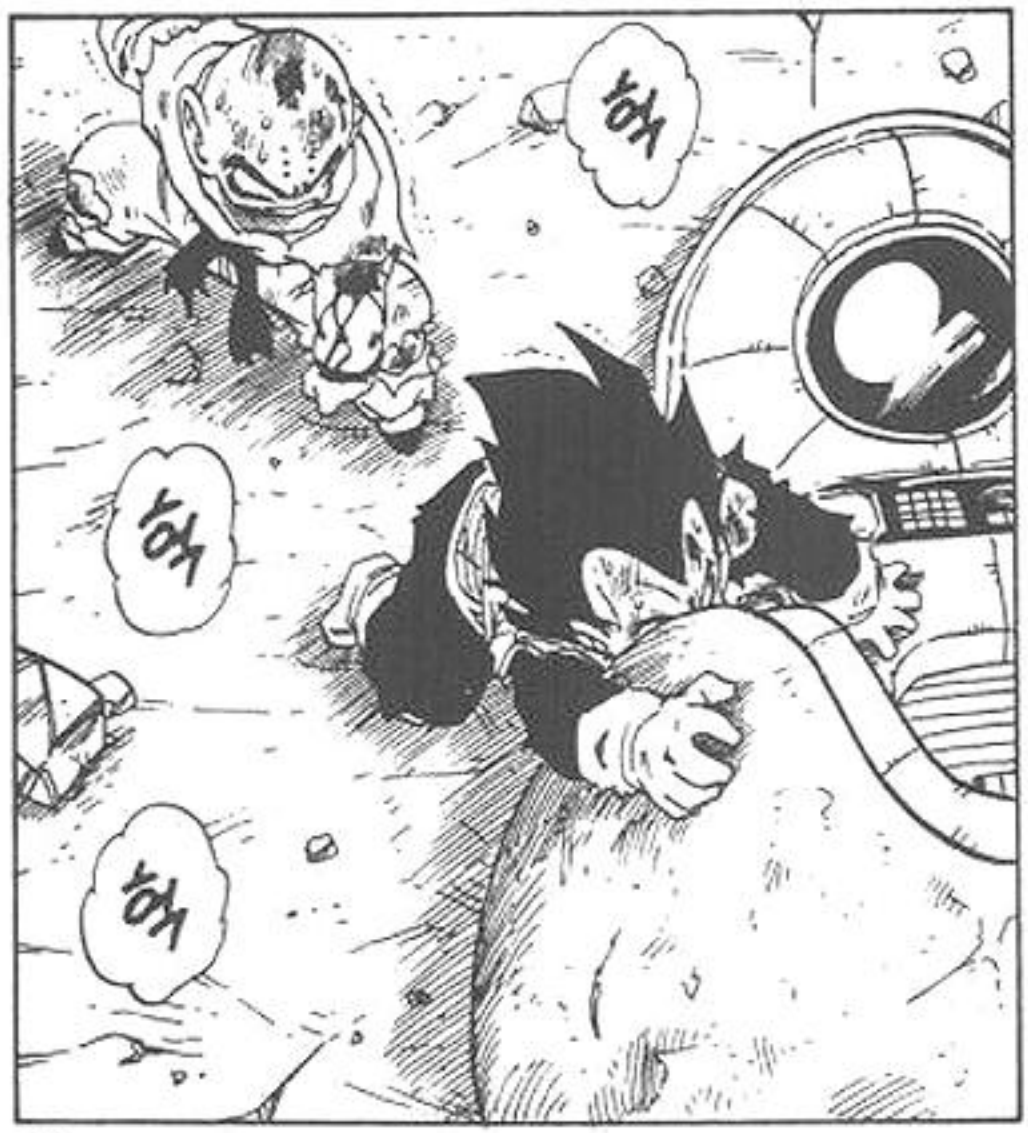
휴우…,
겨우겨우 이 정도로
끝내는구나….
정말 조마조마했네….

난 누구 편을 들면
안 되지만, 저 사이어인은
전 우주를 공포로
몰아넣은 악당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걸로 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건
아니지만….


크으…
으으….


악의
뿌리가….


헉
헉
헉

제…
제길…!

모, 몸이
말을
안 들어…!

!!

너… 너한테
죽은 모두의
복수다…!

죽어라
~!!

잠깐만—!!

큭!


오공!?
오….
!?
그… 그래, 맞아…. 큰소리를 낼 수 없어서….
크… 크리링…. 미안하지만, 그 녀석을 그냥 보내줘….
부… 부탁이야…. 다…, 단 한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다오….
지… 지금 내 마음속에 말을 걸어온 게….
오공…, 너니…?

그…
그렇겠지….

지… 지금
보내주면
분명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올
거라구…!

너… 너 미쳤니…, 오공…?
이… 이놈들은 우리 친구들을 죽이고…,
우… 우리…, 아니 전 세계 모두를
멸망시키려했던 놈들이야…!

이, 이놈은
그럴 놈이 아니야…!
그런 감정 따윈 가질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그 정도는 너도
잘 알잖아….

너… 너…. 혹시 이놈도
피콜로처럼 착한 마음으로
고쳐먹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면,
이번엔 진짜 엄청난 착각이야…!

아까워….

아…, 알고
있어. 그…
그 베지터란 놈
엄청나게
강한 것도….

그… 그치만
나…, 잘 표현
할 수는 없지만…,
지… 지금
그 녀석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뭐…?
아…
아깝다고…!?

그… 그러나…,
그 베지터는 나보다
훨씬 강해…,
두려웠지…,
솔직히 말해서
겁나더라구…,

나…, 난 계왕님 밑에서
수련을 받고,
내가 최고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어…,

털썩…

으응…!

그…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쁘고 흥분이 됐어…,
피콜로 때처럼…,

여…, 역시
나도 사이어인
이니까…,
아… 아주 못된
버릇이지…,

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베지터를
능가하는
실력을 키워
쓰러뜨려
버리겠어…!

잘못인지는
알지만,
부탁한다…,
내… 내가
혼자 해치우게
해줘…!


ㅋ…
ㅋ…!
……
쨍그랑‥
우우
알았어….
넌 그런 고집부릴
자격이 있지.
지금의 지구가
살아있는 것도
다 오공 덕분이니까….
하지만
명심해,
오공…!
다음에는
철저하게
풀파워로
해치워버려!
씨익…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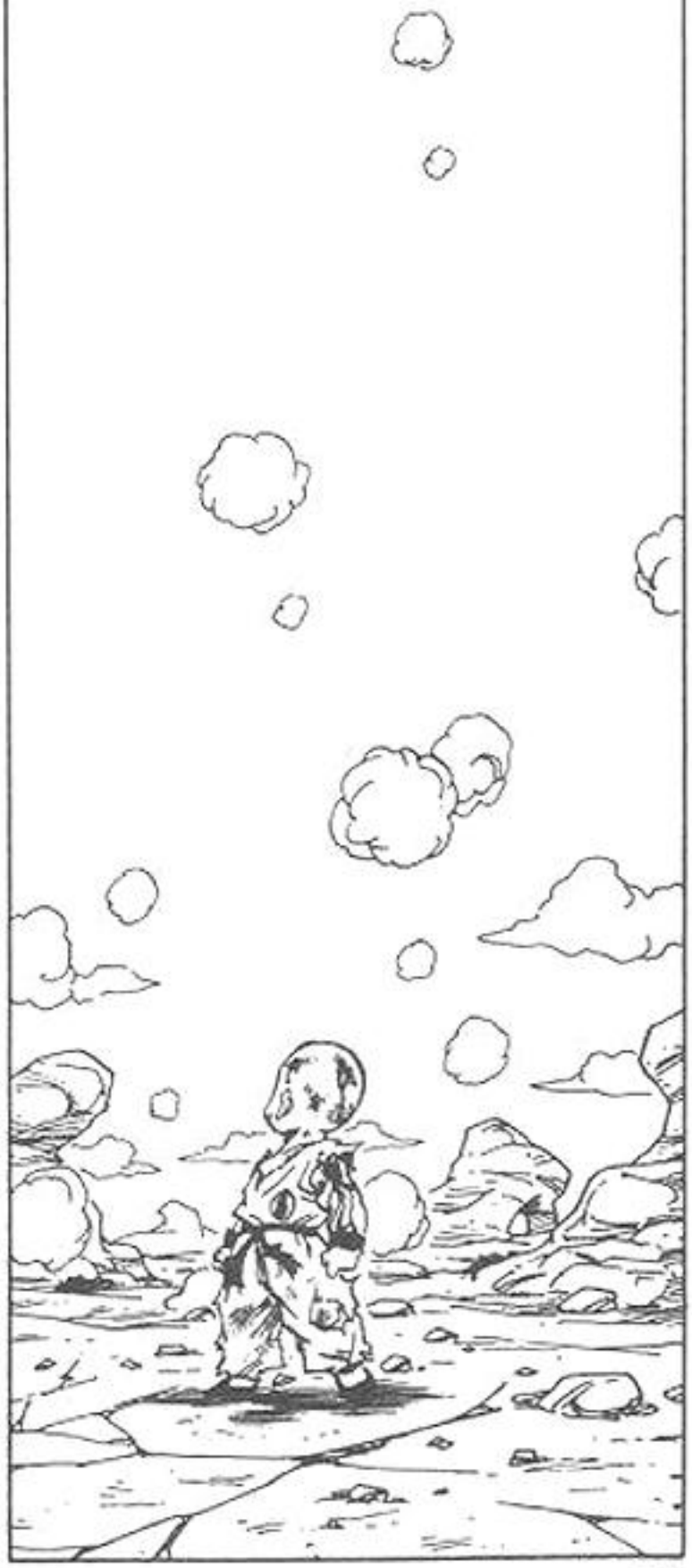

위이이···앙
두··· 두고 보자···, 쓰레기들아···.
다··· 다음에는 니들한테 기적은 절대 없다···. 크큭큭···.
기다리고 있거라···. 그··· 그동안 열심히 즐겁게 사셔···.
저··· 저놈을···!
쿠··웅
ㅂㅂㅎㅎ


비틱
비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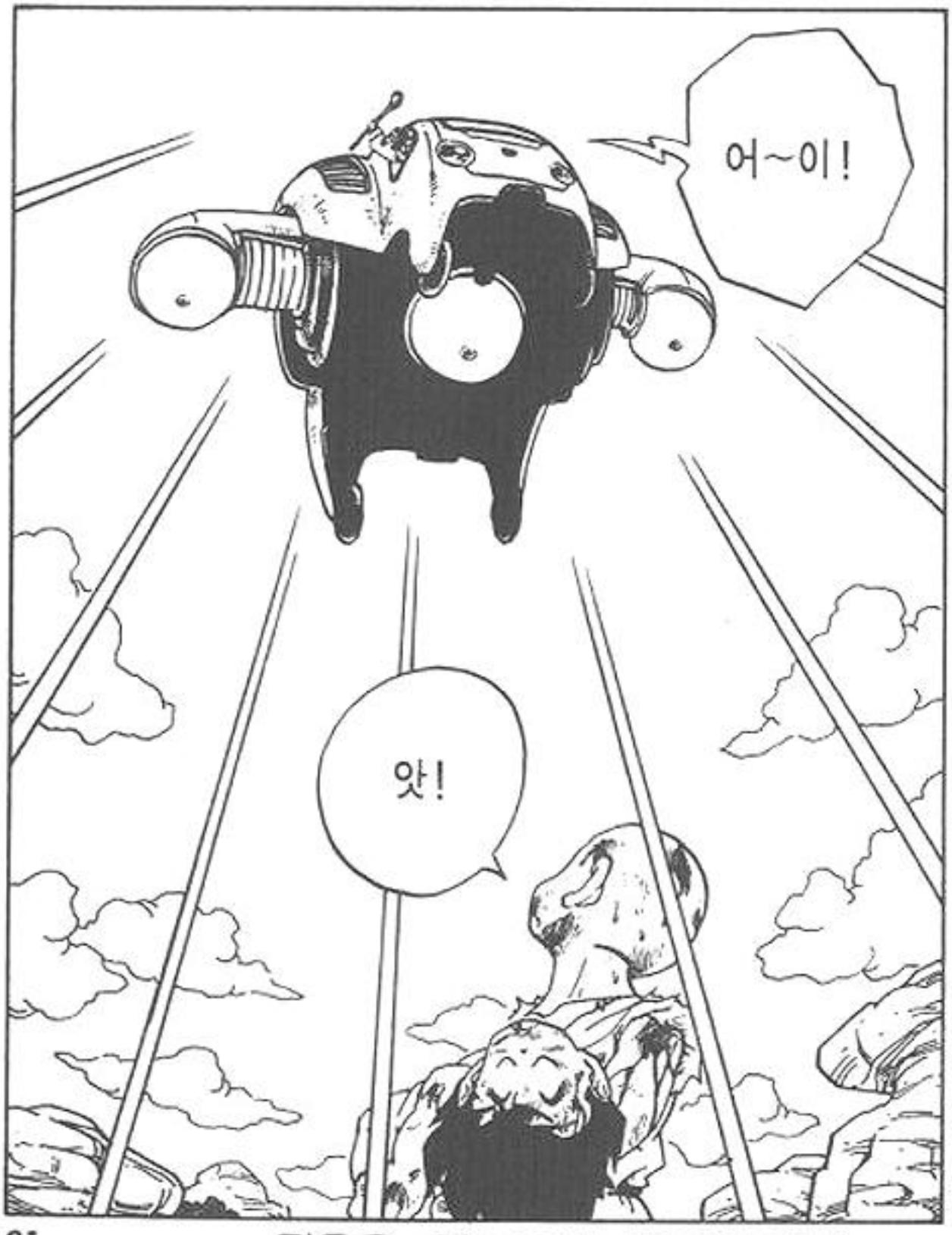

괜찮니… ?
이제
안심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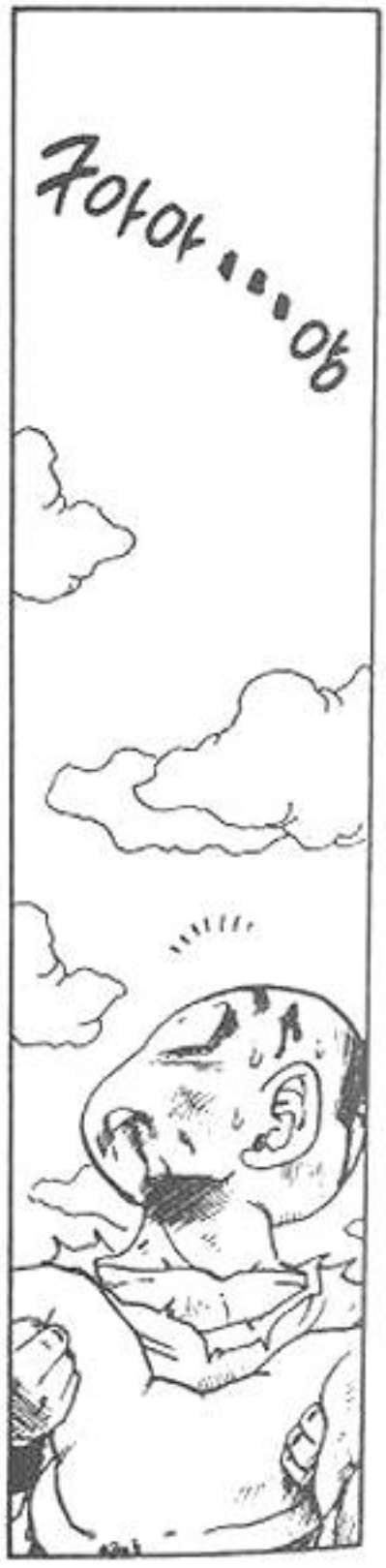

갔구나….
휴우….


왜 끝장을
안 낸
거야
…!
저
멍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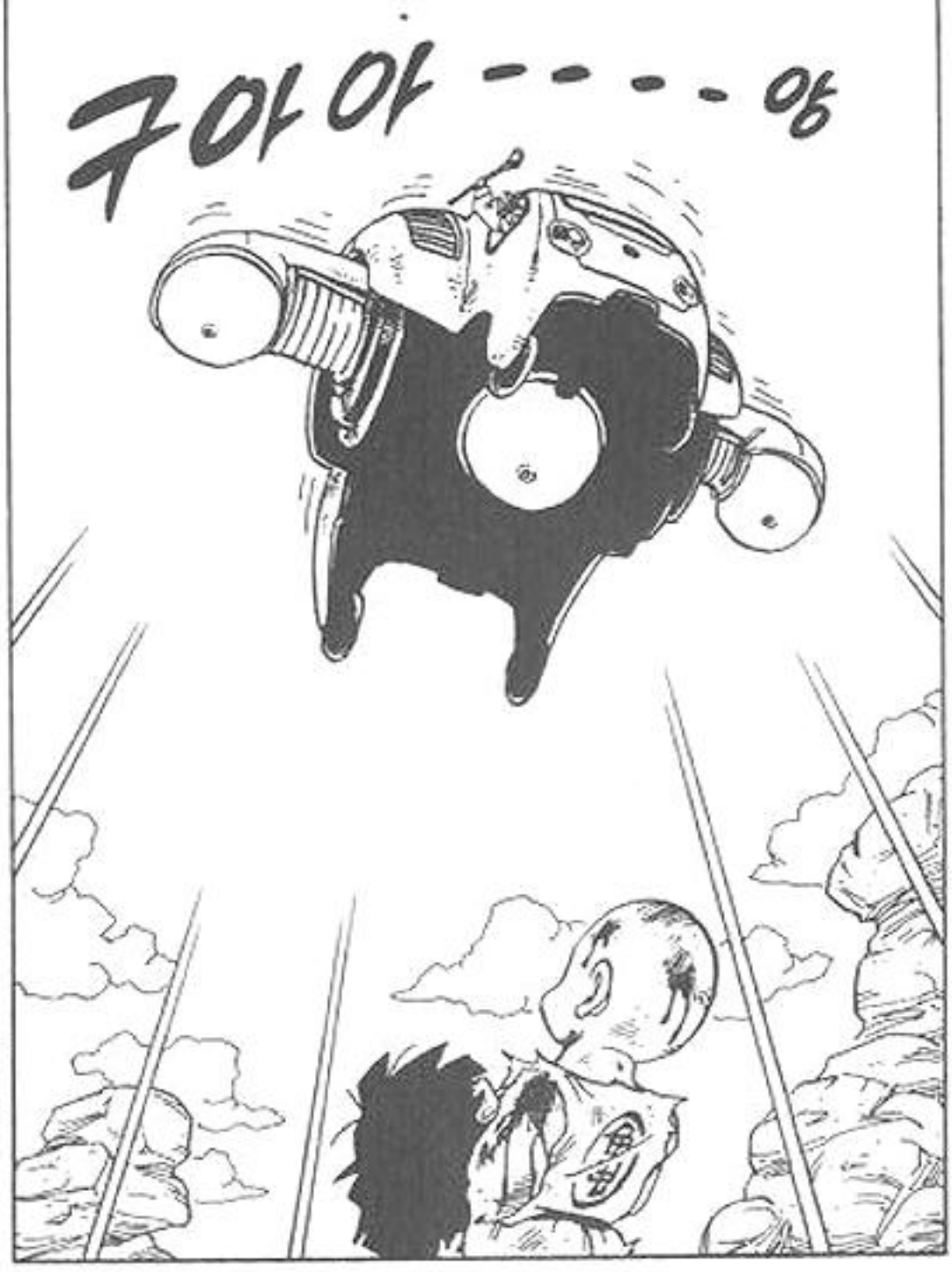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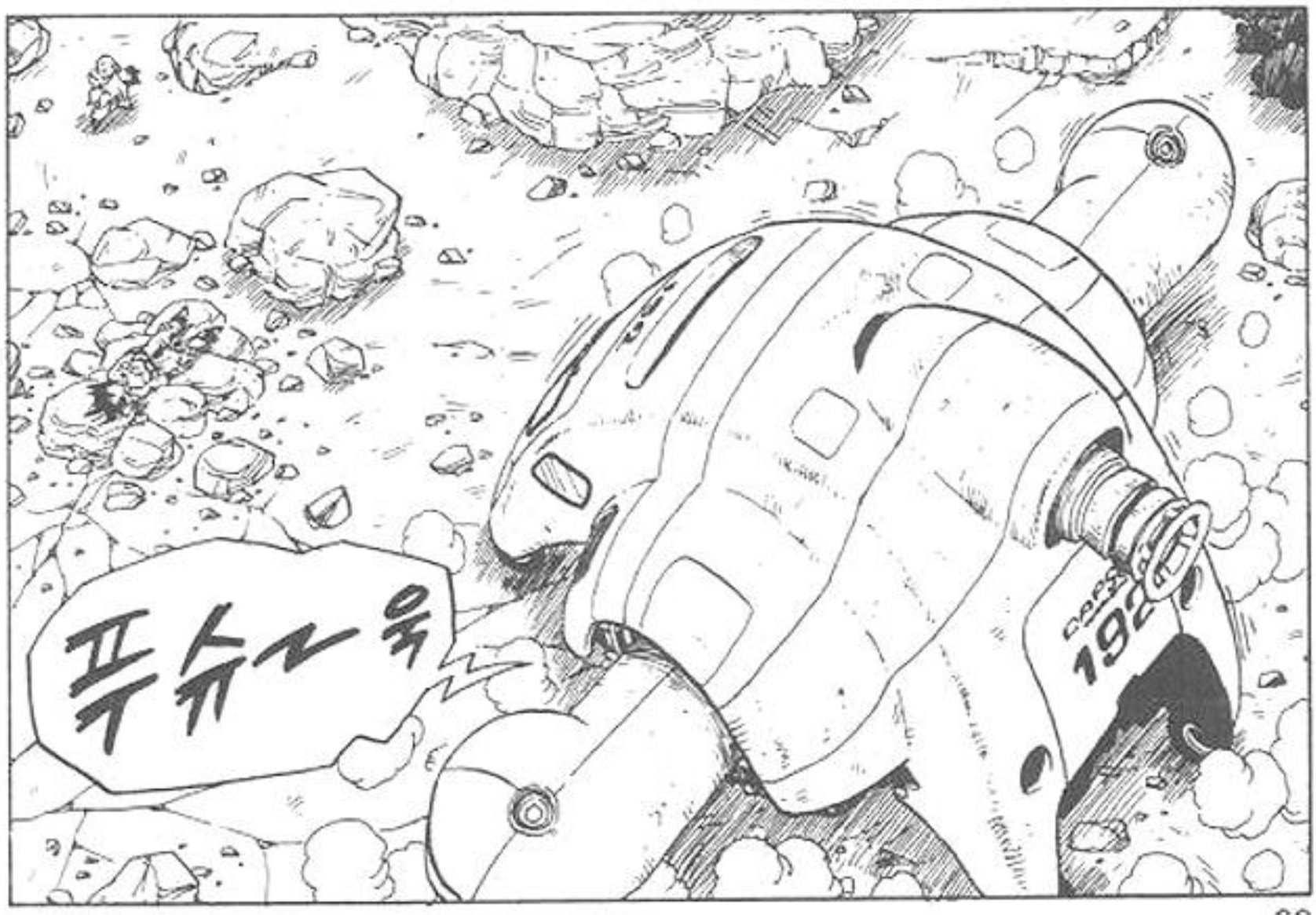


다음은, 제242화 우울한 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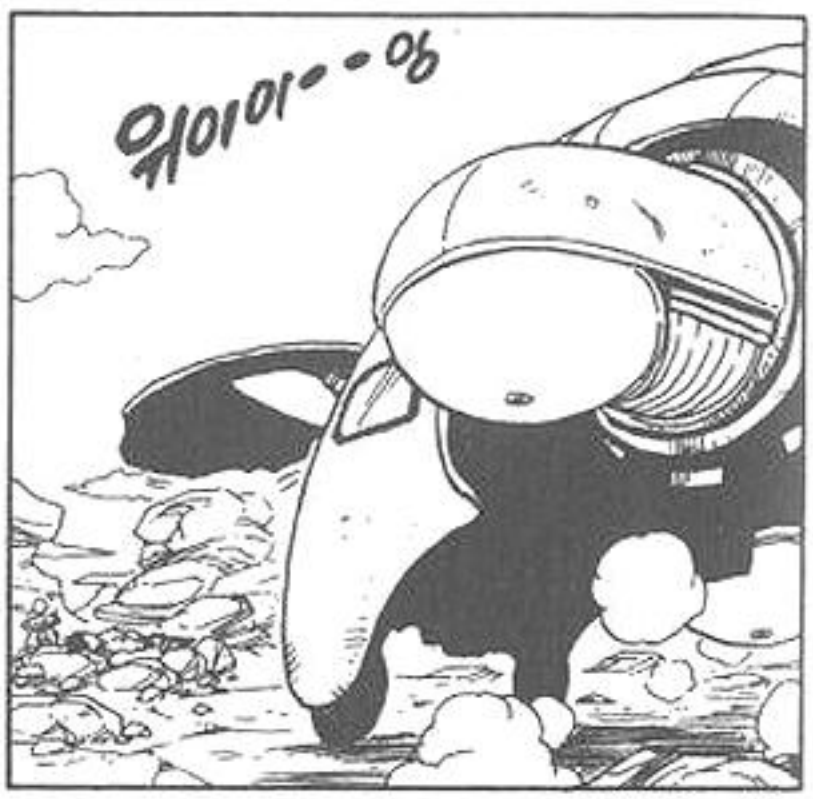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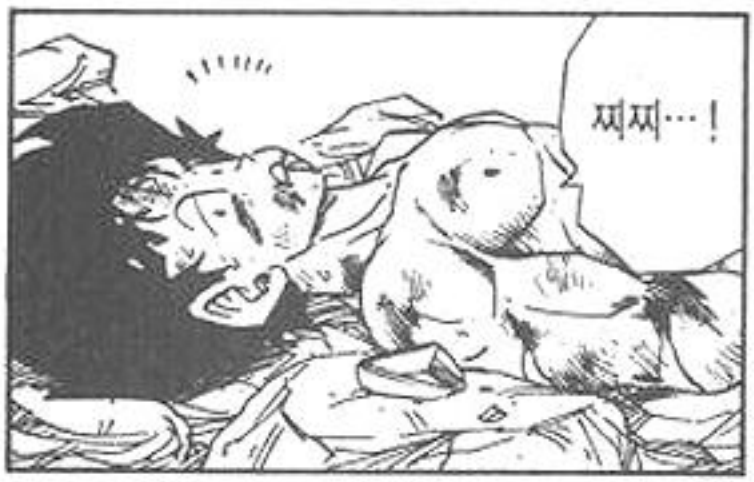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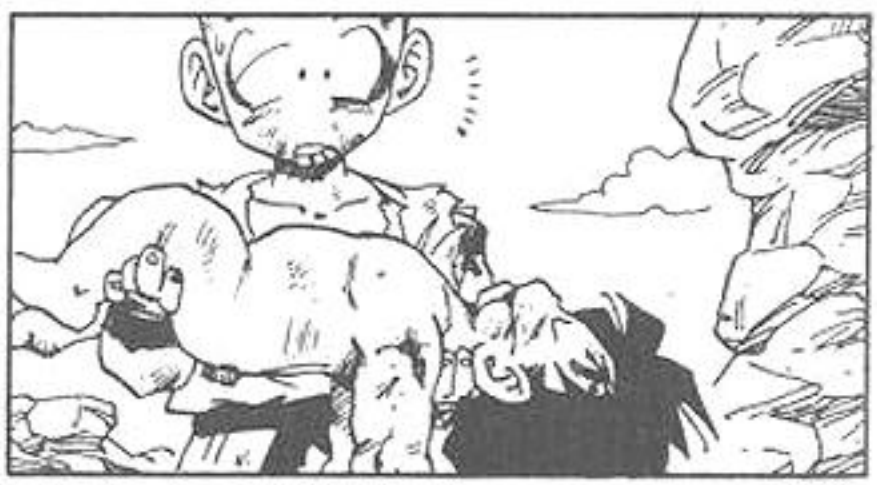

꺄아아 - - - - 앙


푸슈~웃


오반아!!
우당탕


웨이아--아


찌찌…!




퍼


퍼퍼퍼

얼라리여…?

오반!

에구, 내 새끼!

괜찮니? 정신차려, 엄마 왔다!

……

정말 심하게 다쳤구나~!

오… 오반은 괜찮아. 그보다 오공이 훨씬 더 심하게 다쳤어….

지둥 허둥

불쌍하게 어린애를 이런 꼴로 만들다니!

이제 다신 엄마 옆에서 안 놓칠 거야!

그렇지 않아….

오공도 고생 했는걸….


이… 이거 넘 심했다….
괘…, 괜찮니? 오공…!
미… 미안해…. 사이어인을 놓쳤어….
절뚝 절뚝


부… 부르마…. 아무치도, 우… 우리 4명 말고는 모두 당했어….
그… 그놈은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아냐. 쫓아낸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아…, 카린 님…!


아니, 왜?
……
뭐, 뭐가 잘못됐어 …!?


뭐?


대충 알고 있어. 그치만 괜찮아. 걱정 마!
1년만 지나면 다시 드래곤 볼로….
되살릴 수 있잖아!

어… 어머…! 농담도 일품이셔….

그… 그치만 네 사람 살아 남았다면서…? 나, 나머지 한 명은 피콜로 아냐!?

피콜로도 죽었어. 그러니까 신님도….

드래곤 볼은 이제…, 없어진 거야….

그… 그럼 야무치는…!? 이… 이제 두번 다신….

아니…, 이런…!

……

벌렁

나라서 미안하다.

으아앙~!!

아…, 알고 있었죠…?

아…, 그래.

어…, 엄마….

나… 나도 피콜로는 살아남았을 줄로만 알았는데….

이… 이런!

그보다 어서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야지!

아, 그래! 알았어!

이제 선두는 없다.

내, 내가 없었다면 이 애들도 죽었을 거라구!

뭐, 뭐야!? 젠장, 그럼 내가 피콜로 대신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야!?

정말 열받네~!

영차, 영차!

큭…!


쿠아아 ····앙
192


이… 이건 가능성이 거의 낮은 거고….
부르마…, 울지 마….
좀 터무니 없는 얘길지도 모르지만….
저기…, 조, 조금 더 저쪽으로….
모… 모두의 시체가 이 근처에 있다고…?
훌쩍 훌쩍

살려낼 수
있을 지도
몰라….

기대는
하지 말고
들어….
어…
어쩌면…,
사이어인이 죽인
친구들…
모두를….

뭐!?

뜨…,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아…!

좀 기다려,
나중에
얘기할게.

무천도사 님,
여기서 내려요!
모두의 시체를
실어야죠….

크…
크리링…
나한테도 그런
소릴 하더니…
무슨 얘기니…?


이런…, 너무 끔찍해.
남은 건 차오즈의 시체뿐인데…, 안 보이네…!?
없어요…. 차… 차오즈는 자폭해 버려 가루가 되었거든….
정말 모두를 되살아 나게 해주고 싶어…. 이대로는 애들의 희생이 너무나도 크거든….
키린 님…, 저는 내 무기력함에 분노조차 느껴질 정도예요….
이제 됐어. 내가 조종할게. 좀 진정 됐으니까….
휘이잉…


앗!!


정신이 드니!?
오반!!


으음…
으…


앙~!
불쌍한 내 새끼~!
네가 이렇게
다치다니…!
이젠 걱정마라!
어…,
엄마…!


안심해!
엄마야,
엄마!!
!?
아…,
어…!?


그…
그놈은
도망쳤어…!
사이어인은
어떻게
됐어…!?


이제
다신
안 나타날
거야!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놈을 혼내
줬잖아…!


진짜 활약
쨩이었어!
잘했어,
정말
대단했다!

너희들 덕분에 겨우 살았어….

뒤에 있다, 오반….

아, 아빠는…!?

일부러 자꾸 불안하게 만들지 마!

……

그럴 것 같지는 않던데….

너, 손오공 부인이지? 너무 애밖에 모르면 섭하지~!

어이, 아무래도 좋은데….

남편도 좀 돌봐 주라고.

헤헤….

하하…!

크리링….

얘기해 줄래? 좀전의 그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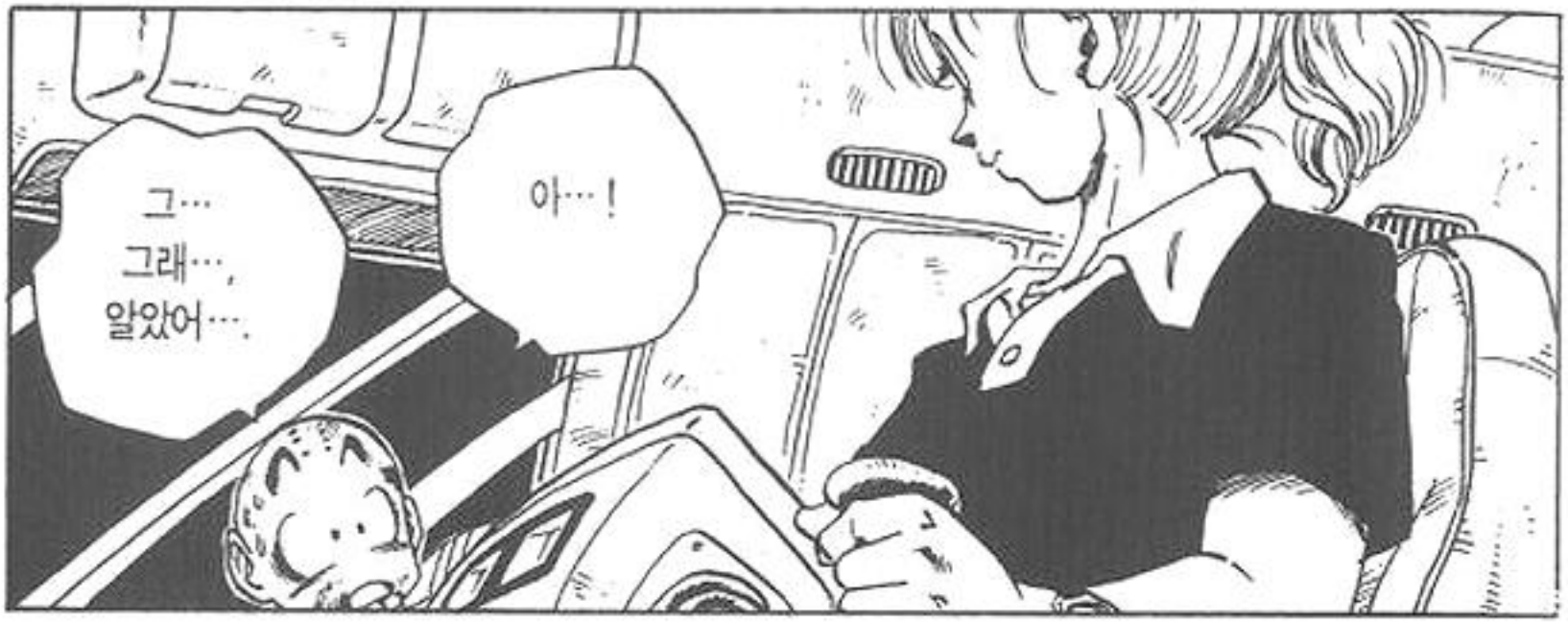
오공, 이 계집애 때려도 돼?

내겐 지구보다 이 아이의 장래가 더 걱정이야!

아, 아니야! 엄마…, 아빠는….

정말 무례하네…! 일 없어! 오공 때문에 오반이 이런 꼴을 당했잖아!

이 애까지 말려들게 할 필요 없다구….





사이어인들은…,
아마 오공의 형한테
무선 같은 걸로 이 지구에
드래곤 볼이 있다는 걸
안 것 같아….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도….









그래서…,
온 김에 드래곤 볼도
손에 넣으려
한 거야….

「그럼 만약 여기서 손에 넣지 못해도 나메크성으로 가면 돼」….

놈들은 분명 이렇게 말했어….
「나메크성에는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는 이상한 구슬이 있단 얘기는… 사실이었구나…」….

그딴 거였어? 말도 안 돼.

쳇!

드래곤 볼을 손에 넣을 수 있을 지도 몰라….

만약에…, 진짜 만약의 일이지만, 그 나메크성이란 곳에 갈 수 있다면….

과… 과연…. 그러면 죽은 모두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지…!

그, 그래…! 나도 들었어…!

분명 들었다구! 나메크성인에겐 이상한 구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야….

그렇게 되면 지구의 드래곤 볼도 부활할 수 있어!

맞다…! 피콜로가 살아나면 신님도…!

피콜로 아저씨도 살릴 수 있어!?

오, 오반아! 무슨 헛소릴!

그런 꿈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니? 정말 실망이다.

휴우…, 정말 늬들은 단세포라니까….

부, 부르마 조차 무리란 거야…?

그, 그거 캡이다!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우하하하!

아….

크리링…, 생각해봐. 그 나 거시기 별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계왕님이라면 분명 알고 있을 거야….

그… 그건 걱정 마…. 내가 마음으로 계왕님에게 장소를 물어볼 테니….

다음은, 제243화 나메크성을 향하여!


이야야야……앙


뭐니뭐니 해도
난 위대한
계왕이니까.
나메크성이라….
물론 알지.


계왕님…,
듣고 있겠지?
알고 있어…?
그 나메크성인지
뭔지 하는 별이
있는 곳….


이, 이거
진짜 죽이네…!
우리한테도
들려.
이, 이분이
계왕님…!?
!!

손오공이 당했을 때는 솔직히 모든 게 끝장이라 생각했다. 진짜 대단했어.

으음…. 그 전에 내가 한마디 하마. 너희들 모두 정말 캡잘했다!

모두 다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왕님….

그렇게까지 강할 줄이야….

으음…. 그 베지터란 사이어인이 그렇게 강할 줄은 나도 진짜 몰랐다….

그… 그놈에겐 계왕권도 통하지 않았고….

그… 그치만 나 충격이 너무 컸는걸….

너희들 지구에서 계산하는 대로 하면…. 그러니까…, SU83방위의…, 9045YX인가….

어디…, 나메크성의 위치라….

이… 이봐, 그게 무슨 소리니? 설마 오공이 일부러….

나…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여…, 역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놈을 뇌준 거 말야….

그럴지도 모르지….

거…
거북영감
….

자, 잠깐!
거북영감.
대신 좀 조종해!
계산 좀 하게….

부, 부르마!
지… 지금
무슨 소린지
이해가 돼…?

으악…!
9045…
YX…!

어… 어쩐지
예감이
안 좋아….

삐삐삐삐
….

그런데…, 나메크성이란
곳은 아주 아름다운 별이었지.
그렇지만…, 오래 전에
심각한 이상기후로 그때
나메크인들은 전멸했다고
생각했는데…. 으음….

지금 별 자체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중이지만….

과연 아직
사람이 살아
남았는지는….

그…
그런….

그럼
말짱 꽝이네.
드래곤 볼이
있을리
없어.

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나메크성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어디…,
어느
쪽이더라…?

신 본인도 그걸 잊고 있던 것은 기억상실증이었거나, 아님 아기였을 때 와서 그런 거겠지….

그… 그렇구나…. 그래서 신은…, 아니 마침내 신이 된 한명의 나메크성인은 지구로 피해 온 거였어….

어디 보자….

이쪽인가?

……

드래곤 볼을 만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소원은 이루어줄 수 없다고…. 그런 자연의 엄청난 힘은 막을 수가 없단 거지….

그건 무리겠지…. 용신은 말했어.

그래서 용신도 사이어인만은 어쩌질 못한 거야….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메크성인이라면 이상기후를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면 됐잖아!

근데 말야! 드래곤 볼이란 건 어떤 소원이나 들어주지?

겨우 백 명이 채 안 되지만 살아남아 다시 번성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 있다, 있어! 나메크성인이 있어!

시시해~! 그 드래곤 볼이란 것도 별거 아니잖아!

쳇!

우엑…! 그… 그런 놈이 백 명씩이나 있다고….

만세!!

!!

걱정하지 않아도 돼….
원래 나메크성인들은 아주 온순한 종족이야.
너희들 지구의 신이었던 그 너석처럼….
피콜로 대마왕이란 건 아마 그 너석이
신이 되기 전에 만난
지구인들의 사악함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버린 걸 거야….

하지만 이제 잘되면 신은 물론이고 아무치나 천진반들도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

맞아! 있지! 세상엔 그런 나쁜 놈들이 꽤 많아!

너, 잘도 아는 척 많이 하는구나….

정말 그게 쉬운 줄 아나봐!

말은 쉽지…!


어…
어떻게라니….
그… 그야
물론 우주선
으로….
분명 나메크성이란
곳은 어딘지
알았다. 그치만
어떻게 가지?


뭐!?
192


시험삼아 아빠가 만든
세계 최고의 엔진을
단 우주선으로 나메크성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봤어…. 대체
얼마나 걸릴 것 같니?
그러니
현실을 제대
알아야 한다
거야…


계…
계왕님….
어…
어쩜
좋지?


세…
세상에나….
4339년…?


4339년
하고도
3개월…!
엄청
장수해야
겠지!
너
멋진 숫
나왔

나… 나도 방법에 대해서 전혀….

글쎄….

그런 거라면 분명 걱정 안 해도 될걸!

헤헤헤~!

조심용

하지만…, 사이어인이 타고 도망 갔잖아?

사이어인의…?

사이어인이 타고 왔던 우주선을 이용하면 되잖아!

?

베지터란 놈의 우주선을 봤는데, 작은 게 아무리 봐도 1인승이야….

그렇다면 죽은 또 한 명의 우주선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걸 찾아서 분석하면 무슨 수가 생길 거야!

그치만 어쨌든 하나는 있는 거잖아!

아…! 그건 그러니까…. 박살내 버렸지….

오반이….

그… 그래! 내 형이란 놈이 타고 온 것도….

이거야! 분명 베지터란 녀석이 이걸로 뻑뻑 눌러서 우주선을 불렀던 것 같아. 아마 리모콘이겠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좋은 걸 주워뒀지!

남은 건 빨리 찾으러 가는 것….

…아마 동쪽 도시에 있을 거야…. 사이어인한테 최초로 파괴당한 곳에….

희망이 보인다구!!

으하하하~!! 만세, 만세다!

지…, 진짜 갈 수 있어….

후후후… 후후후….

다음날…,
서쪽
도시의
병원….



헤헤헤…,
큰일났네….
부상을
치료하는데
4개월이나
걸린다니….

그것도
완치될지
어떨지도
모른다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선두가 열릴
테니까.

뭐 너무
걱정 마.

근데
너, 꼭
미이라 같다.

나하고 오반은
3일만 입원하면
끝난대. 진짜
운좋았지?

미안합니다~! 저, 저는 당신을 존경해요! 부하로 써주지 않을래요~?

야지로베, 너 사이어인에게 당할 뻔했을 때 말야….

…라고 그랬지!

네 목적은 병원의 밥이잖아?

나는 그렇게 심하게 당했는데도 입원 한번 안 시켜주고.

쳇….

모두들 정말 잘해줬어. 이런 기쁜 일이 어딨냐!? 죽은 친구들도 모두 살려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무슨 짓을 했건….

나, 난 놈을 방심하게 만들려고 …!

너, 너! 죽고 잡냐!?

으하하 하하!

잠깐 주목! 텔레비전 봐, 텔레비전!

여러분!

CAPSULE

찰칵

시끄러워!
TV나 봐!

엽기스러운
간호원인 줄
알았더니….

뭐,
뭐야!
부르마
잖아…!

저,
저거다!
사이어인의
…!!

앗!

단정할 순
없지만, 아마
우주에서 온
비행선 같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폐허가 된
동쪽 도시에서
발견된 이 둥근
물체는….

FAN

이미 나라의
학자들이
발견했으니….

이거
큰일
이군….

자, 잘
안 보여….

그치!?

이 물체가
발견되었을 때는
두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갑자기
날아올라….

크리링이
갖고 온
이 리모콘으로
저걸 날게 해서
사람들 좀
놀라게 해주자!

재밌는 거
보여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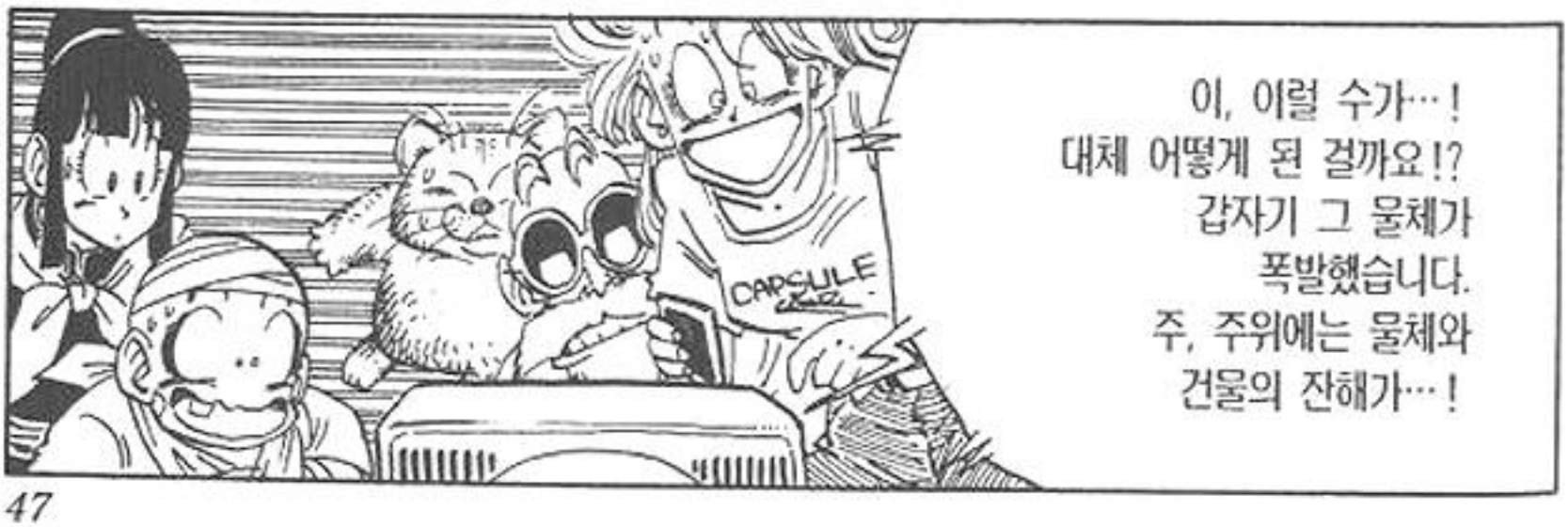

여길
이렇게
누르고….
자, 봐봐!
텔레비전으로
움직이는 걸 바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좋겠다!


무쓴 소리!
난
천재라구!
어젯밤에
완벽히 뜯어서
분석해 봤거든!
자…,
잘 될까…?


나, 나도
보고파!
꿀꺽..
됐어!
이제 곧
움직일
거야….


앗!?


콰앙


이, 이럴 수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갑자기 그 물체가
폭발했습니다.
주, 주위에는 물체와
건물의 잔해가…!

완전히 사라졌군.

마… 마지막 희망이….

뭐야!? 지, 지금 누른 게 자폭 스위치였나~ !!

으아악~ ! 이, 이럴 수가~ !!

이젠 글렀어….

아….

크…, 큰일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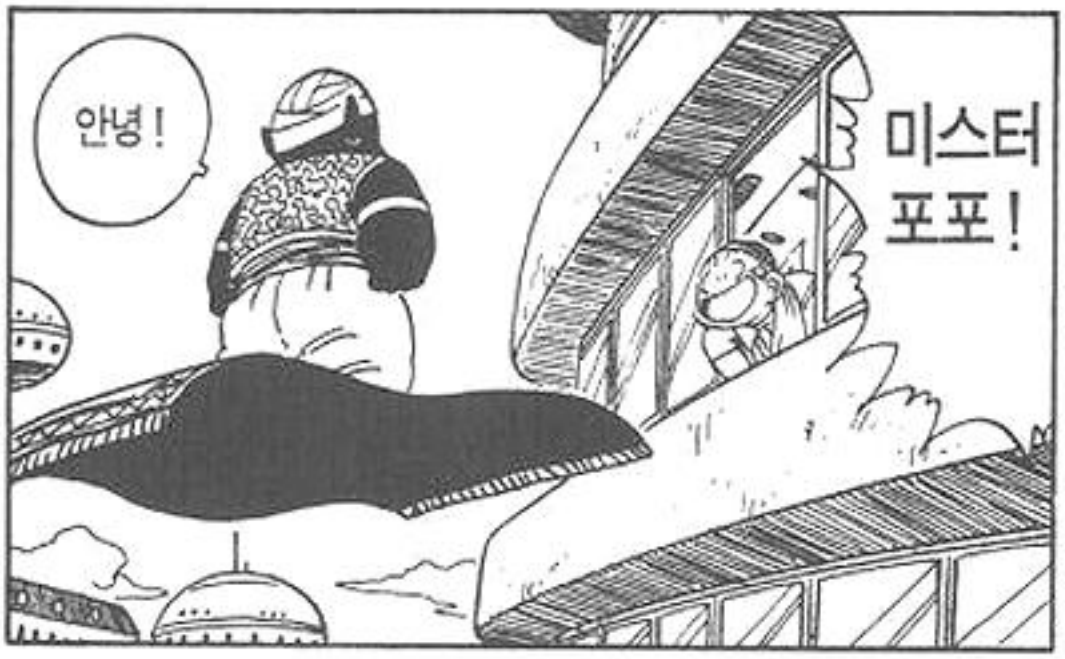
근두운으로도 갈 수 없겠지…?

니, 니가 이상한 리모콘을 주워온 게 잘못이잖아….

부르마가 함부로 스위치를 눌렀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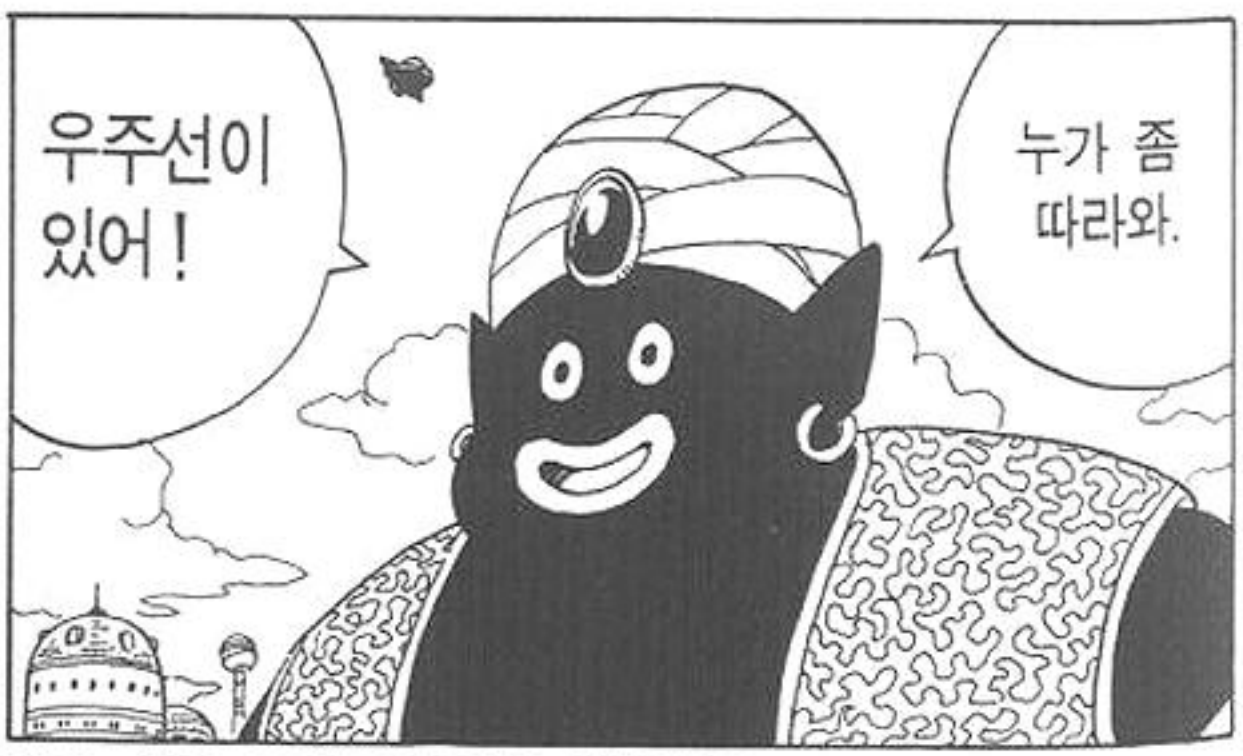
KONG HOSPITAL











다음은, 제244화 우주선 발견!!

우…
우주선이라니!
정말 있는 거야,
포포!?

아마!

저…
저건…?

미스터
포포씨야.

신님과
함께 살고
있지.

그치만, 지금의
신님이나 그 전의
신님보다도 훨씬
옛날부터 그 신의
성에 살았대.

저…
저기….

그 「아마」란
얘기는…?

그건 아마
우주선이겠지.
그치만 미스터 포포는
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가서 조사해줘.
미스터 포포가
안내할게.


저… 저 사람 눈빛이 어쩐지 위험해 보이지 않니…?
괙…, 괜찮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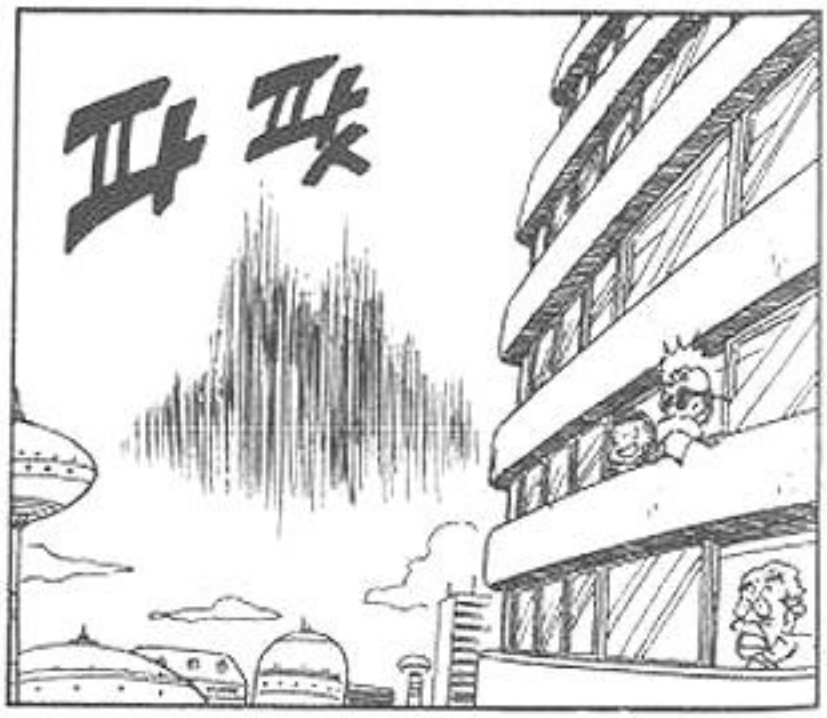

그치만 부르마가 아니면 아무도 우주선에 대해 모르잖아….


부르마!
나~!?


살살! 제발 살살-!
그럼 간다.


조심해서 가! 난 저 사람들하곤 달라서 예민하다구!
부탁해, 부르마!
HOSPITAL


그런데…, 정말 우주선이란 게 있을까…?
뭐… 뭐야…? 지금 저거….


파팟


파팟
!!
휘이이---잉
다 왔어, 내려.
엥!? 버, 벌써!?
여… 여긴 어디지…!?
무, 무쟈게 추워 미치겠다!


수, 순식간에 여기까지 왔단 말야…!?
그, 그럼 지구의 끝이잖아!
어디 있더라…?


유, 융더 비트…!?


처음부터 날 으슥한 곳에 끌고와서 요상한 짓 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겠지…!?
다…, 당신 설마…


자, 잠깐 기다려!
이런 곳에 무슨 우주선이 있단 거야!?


뭐!?

앗!

우주선 맞아?

조… 조사 해봐야 알지….

CAPSULE CORPORATION

타탁


이봐!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대체 뭔지 설명해 보라구!
이… 이게 뭐지? 금속도 아니고….
이… 이런 건….
톡톡


신기한 얘기였지. 신님은 어렸을 때 이 융더비트 고원에서 살았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융더비트는 변경의 땅이라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 있었냐고.


또 신님은 말했어. 부모는 없었다고…. 그냥 「나중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는 편지만 있었다고….
또 내가 물어봤다. 부모는 없었냐고.
신님은 모른다고 했어….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 머리를 다친 것처럼 기억이 사라졌다고 했지….

그… 그게 무슨 소리야…?

잘 이해가 안 돼….

어렸을 때의 신님은 계속 자기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었어….

융더비트에는 분명 집이 있었으니까…. 부모님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도 오지 않았어…. 괴로웠지…. 거긴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얼마나 기다렸을까…. 20년…, 아니 30년인가…?

드디어 난 포기하고 집을 버린 채 융더비터를 떠났어….

가끔 상황을 살피러 돌아가 봤지만, 변한 건 없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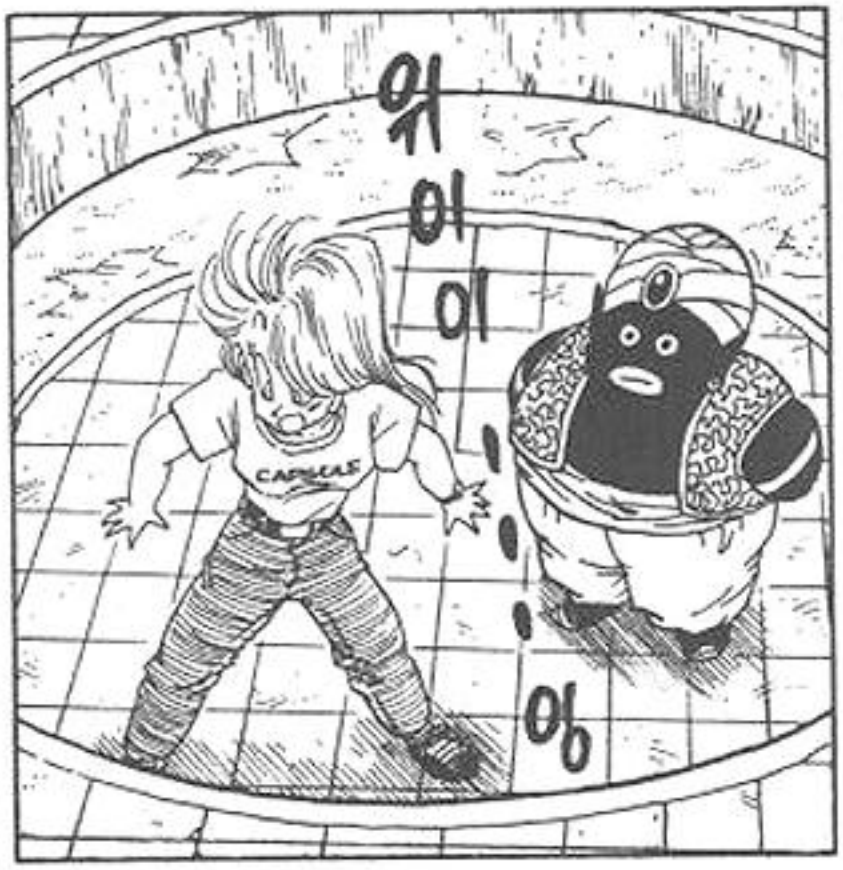
저… 저기. 그 얘기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부터야….

후후…. 그런데 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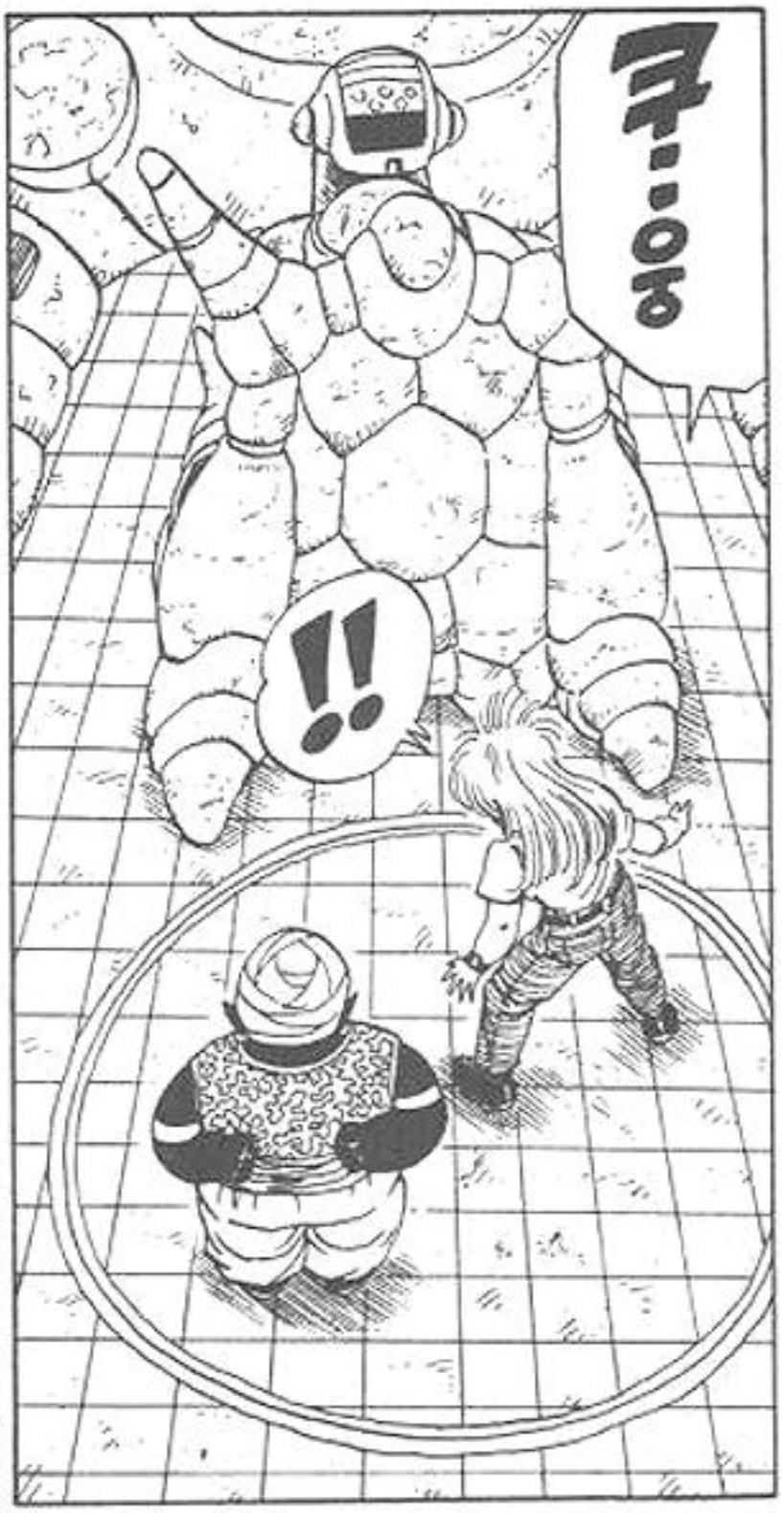
지금 생각해 보면 묘한 집이었다….


여러 세계를 알게 되면서 발견한 거지만, 그 집은 참 이상한 집이었어….
둥그렇고, 네 발이 달려 있었지…. 그래, 마치 곤충 같았어…. 문에는 손잡이도 열쇠도 없었지만, 말을 걸면 문이 열렸지….
神
「피콜로」라고….
피…!
CAPSULE
위이
이, 입구가!
이 위에 타봐.


위
이
이
잉


이, 이게 그 신님의 집…!
한번 더 「피콜로」 하면 닫혀.


잘 살펴봐. 이게 집이 아니라 우주선 맞니?
CAPSULE


쿠: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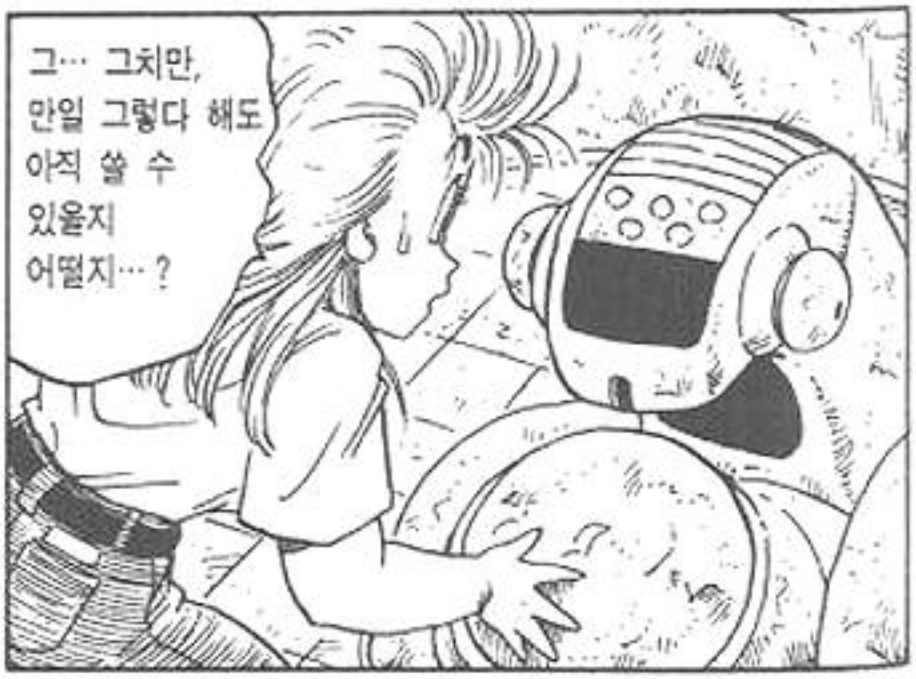

계왕이란 사람이 그랬어! 예…, 옛날에 나메크성은 이상기후 같은 걸로 멸망해서….
그래, 맞아! 신님은 나메크성인…!
CAPSULE


이… 이게 확실히 우주선이라면 아까 이야기랑 앞뒤가 맞아…!
혹시나 해서 이곳에 와 찾아봤더니, 이 집이 있더군….
나도 모두랑 계왕님이 하는 얘기 들었어. 그래서 이 집 얘기가 생각 난 거야.


아무리 봐도 이, 이건 집이란 생각이 안 들어…!
그… 그래. 분명 그럴 거야…!
CAPSULE
우… 우주선이야…!


나메크성이 큰일을 당했을 때 신님의 부모는 어린 신님을 태워 지구로 보낸 거야….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부모도 탈출할 생각이었지만, 무슨 사고가 생겨 그만 죽고….


이게…, 메인 스위치? 아니야….
입구는 움직였으니 동력은 있을 테고….
그럼…, 이건….


그… 그치만, 만일 그렇다 해도 아직 쓸 수 있을지 어떨지…?

끄응~! 이것도 아니야….
이상하네…, 무슨 코드 넘버라도 있나…?
맞다…. 그렇게 간단히 움직였으니 어찌 됐든 신님도 어렸을 때 만져봤을 테고….

이건…, 스위치 같지는 않고….
모… 모르겠네…. 무슨 센서인가…?
!!
목소리야 !?
그래! 저 입구를 열 때처럼 말이지!

뭐라 해야 하지? 「피콜로」라고?
아니! 그건 출입할 때만 쓰는 암호겠지.
움직여라! 들리니!? 날아라!
날아봐!
쎨~~~렁


안 되네…. 언어가 다르겠지. 나메크어로 해야 해….
그러고 보니 천하제일 무술대회 때 신님과 피콜로가 이상한 말로 싸웠어….
그게 나메크어겠지…. 아마….
그게 나메크어라면….
내가 그 말 알아!
정말!?
그럼!
원래 「피콜로」라는 말은 "다른 세계"란 의미. 그러니까 출입구에 쓰는 암호지.
그럼 빨리 말해봐~!
그렇구나! 피콜로 대마왕이란 "다른 세계의 대마왕"이란 소리였어…!
자, 나메크어로 말해봐. 날아보라고!
어디로 날아?
어디든 좋아! 그래…. 우선 목성 근처!


파앗
!!
「알았음」이라고 나왔다!
CAPSULE
꺄아아아~!!











다음은, 제245화 나메크성을 향해 발진!!

그걸 타면 단 1개월만에 나메크성까지 갈 수 있어! 남은 건 내부를 조금 개조하고….

이제…, 우주선은 해결된 거야!

그래!

5일 후에는 출발할 수 있어!

CAPSULE CORPORATION

KONG HOSPITAL

뭐?

그럼 포포 씨, 나메크성까지 잘 부탁해!

미스터 포포는 안 가.

작은 희망의 빛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아!

신님의 우주선으로 나메크성으로 가다니! 신난다!

걱정 마.
나메크어는
가르쳐줄게.

미스터 포포는 갈 수 없어.
나메크성까지 2개월이
걸리는데, 신님의 성을
두 달이나 비우면
안 되거든.

나메크어를 아는 건
당신 뿐이잖아!
힘도 셀 것 같고!
포포 씨 아니면
누가 가냐구!?

엥!?
마, 말도
안 돼!

샤워실도
만들어야지….
쿠션 좋은
침대도 놓고,
오디오랑….

CAPSULE

조…, 좋아….
별로
위험한 것
같진 않고….

무슨 이상이
생기면
메카를
잘 아는 건
부르마
뿐이고.

그럼 부르마가
갈 수밖에
없네.

아무도
너한테는
기대
안 해!

미리 말해
두지만
난 절대
안 가!

그치만 난
혼자 가기
싫어! 누가
같이 가줘!

크리링,
나랑 같이
가줘!

오공은
저 모양
이고….

필요없는
위험만
더 늘
뿐이야!

왕복 2개월….
좋아!
할 수 없으니
내가 갈게!

나메크성에선
어떤 용신이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

좋겠다,
나도 가고
싶은데….

벼…, 별 상관은
없지만….
2개월이라…,
수련하고
싶었는데….

뭐?
나…
나 말야?

사이어인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데려가
주세요…!
제발….

나…
나도….

그래….
부탁해,
두 사람 다.

뭐, 오공은
천천히 쉬면서
사이어인
대책이나
궁리해줘.

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그하니…!

오…
오반아…!

나,
난 진짜
가고 싶어!

개그
아냐.

죄송해요….
하지만 난 꼭
가고 싶어….
피콜로 아저씨를….
내 손으로
살려내고
싶다구….

괘…, 괜히 어리광
부리지 마….
더… 더구나
2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떠…,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위험한
일을 오반이
어떻게 해!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구!

둘 다
미쳤나봐!
무슨
헛소리야!

말 한번
잘했다.
오공….

…그래….

으…!

넌 어린애야!
어린애답게
굴어!

피콜로가
무슨
대수야!?

2개월씩이나!
지금까지
1년이나 애를
태웠는데!

학원은!?
과외는!?
벌써 다른
애들보다
엄청
뒤떨어
졌는걸!

그런 짓은
절대 용서
못한다구!

듣기
싫어—!!

저렇게 불량스러워 지다니….

아니! 오반이….

어…, 엄마…, 지금은…, 지금은 정말 그런 한가한 소리할 때가 아니야….

모두들…, 모두들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다…, 죽은 모두를 살려내서…, 다시 사이어인과 싸워야만 하는 거야….

네가 졌다, 찌찌야….

기분 좋게 오반을 우주로 보내 주거라.

히히힛! 저 꼬마도 가끔은 개기는걸.

나도…, 나도 싸울 수 있어…! 뭐든…, 무슨 일이든 해야 해…!

이해해줘, 엄마…. 미안해.

그럼 저기…, 나메크어를 배우고, 10일 후에 거북하우스에서 만나자!

아무 걱정 말고 우리한테 맡겨! 위험한 일은 전혀 없을 테니까!

훌륭하다. 정말 강해졌어….

오반….

CAPSULE CORP.

감탄만 하지 말고 빨리 도와, 아빠!

야~! 이건 정말 물건인데! 역시 우주는 넓어. 나보다 똑똑한 천재가 있다니!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

KAME HOUSE

혹시 우주가 뭐
어린애 놀이터인 줄
착각하는 거 아냐…?
난 우주복에 거추장
스러워서 머리까지
잘랐는데….

크…
크리링.
너 아주
패션
끝내준다….

궁시렁
궁시렁

뭐?

부, 부르마!
정말 그런 꼴로
우주에
갈 수 있어?

으힉~!


저기, 부르마.
우산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나메크성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쩌려구?
니 맘대로
하셔!


그런데…,
오반은
아직?
아, 오반 녀석은
오공에게
인사하고 바로
온다는 연락이
왔어.


휘이이이---잉


아, 저기
온다!


하아~! 이게
우주선이야?
이거 정말
굉장하게
생겼네!
그럼 오반!
진짜
조심해야
해!


미안해!
좀 늦어졌어!

쾅!!

밥 먹은
다음 꼭
이빨 닦아라!

으, 응….







부탁이다! 반드시 드래곤 볼을 찾아와라.

예!

할아버지, 엄마, 무천도사 님, 거북아! 다녀올게! 잘 지내고 있어!

매일 편지해라!

……

위이잉!!

부르마, 가방은 어디에 놓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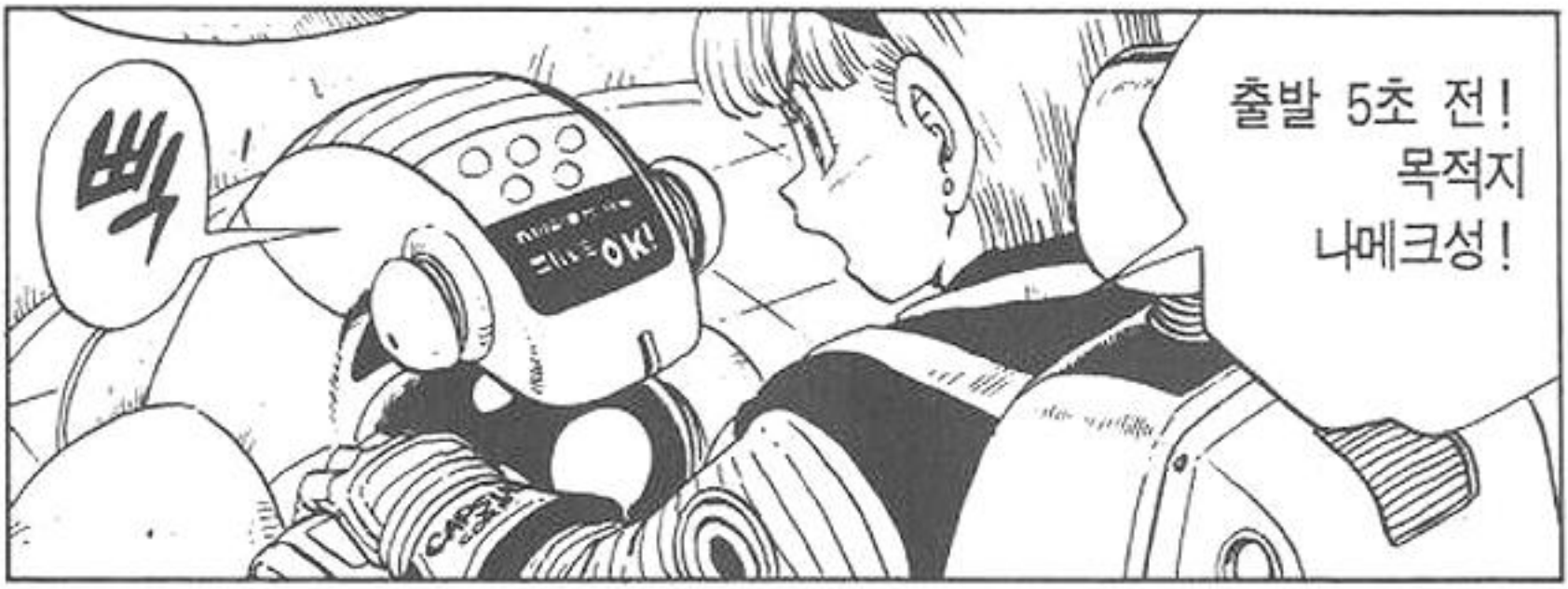
적당히 아무데나 놔! 그리고 빨리 앉아!

진짜 흥분된다~!

우와~!

……?

뭔가 분위기 험악하네…?




ZORORORO

오반-!
샴푸하고
꼭 린스해라-!

스… 스피드
한번 짱이다!
버, 벌써
안 보이네!

부, 부르마!
아, 아직
안전벨트도
안 맸다구!

KULI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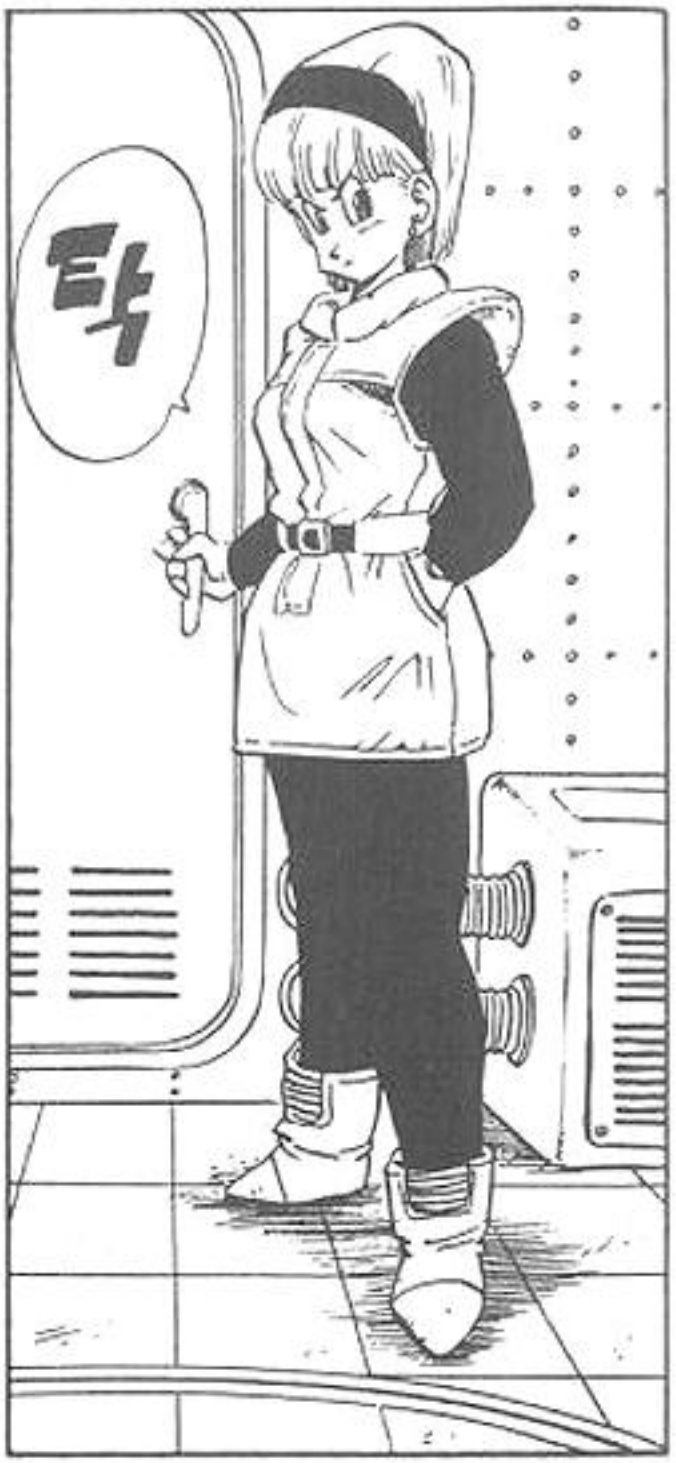
대기권을
빠져 나왔더니
이젠
조용하군.

홍!
이젠
자유롭게
다녀도
괜찮아!

엑!
버, 벌써!?


지구도 못봤는걸.
어라? 부르마, 뭐 하는 거야?
시끄러. 옷 갈아 입을 거야!
뭐? 옷을 갈아 입어…? 잠옷으로? 벌써 자게?
쾅
그런데 너, 앞으로 계속….
그런 삐에로 같은 양복 입고 있을 거니?
헤헤헤….
이거야….
큰일났다…. 그러고 보니 잠옷이 없네…. 너는?
난 확실히 가져 왔지.
아니, 사실은 엄마 몰래 만든 옷이 있어….
너, 진짜 피콜로를 존경하는 구나….
응! 아빠랑 비슷하게.
KAME











다음은, 제246화 베지터 부활!!

분명 있을 거야!
새로운 드래곤 볼을
찾으러 부르마, 크리링,
그리고 손오반 3명은
신과 피콜로의 고향인
나메크성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따분해
죽갔네….

휴우….

후아하암….


너희들 또 이미지 트레이닝 하니…?
시간 때우기에 좋겠다….


진짜 질린다…. 겨우 7일째데…. 앞으로 20일이나….
장기 수면장치라도 만들어 봤으면 좋았는데~.


큭…!




그래도 크리링 아저씨의 다양한 기술엔 정말 놀랐어!
오공의 피를 이었고, 피콜로한테 특별 수련까지 받았으니….
대단하다! 역시 넌 세구나.


헉! 헉…!
허헉!

그… 그치만 거길 어지럽힌 건 부르마 너잖아….

우린 우리 것만 치웠거든….

저기, 머릿속으로 수련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만 지저분한 것들 좀 치워 주겠니?

나 같은 레이디가 있잖아!

너흰 그냥 공짜로 타고 있기만 하면 되지만.

난 바쁘잖아!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되고!

아~! 바쁘다, 바빠~!

레이디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어딨어….

…….

아깐 분명 따분하다고 그러더니….

여민한 레이디를 잘 보살필 줄 알아야지…!

그런데….

계속 궁금한 게 있었는데, 도망친 베지터란 사이어인 말이야.

어디로 도망쳤지?

뭐? 어디라니….

그치만 사이어인의 별은 이미 없어졌다며?


그 다른 별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있을까…?
으~음…. 전에 손오공의 형이란 자가 말했었지…. "우리들은 환경이 좋은 별에 사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다른 별 사람에게 판다"라고 말야.


어딘가 문명이 있는 별로 갔겠지….
그래…? 어쨌든 그 녀석도 심한 부상을 당했으니까….


정말 엄청 지독한 놈한테 걸렸다니까, 지구가….


그렇다면 그 별이 어느 별이냐에 따라, 대체 언제 또 지구에 오는지를 알겠군….
몇수록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부르마의 상상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앵
앵

혹성 프리더
No.79….
베지터가
지구를 떠난지
18일 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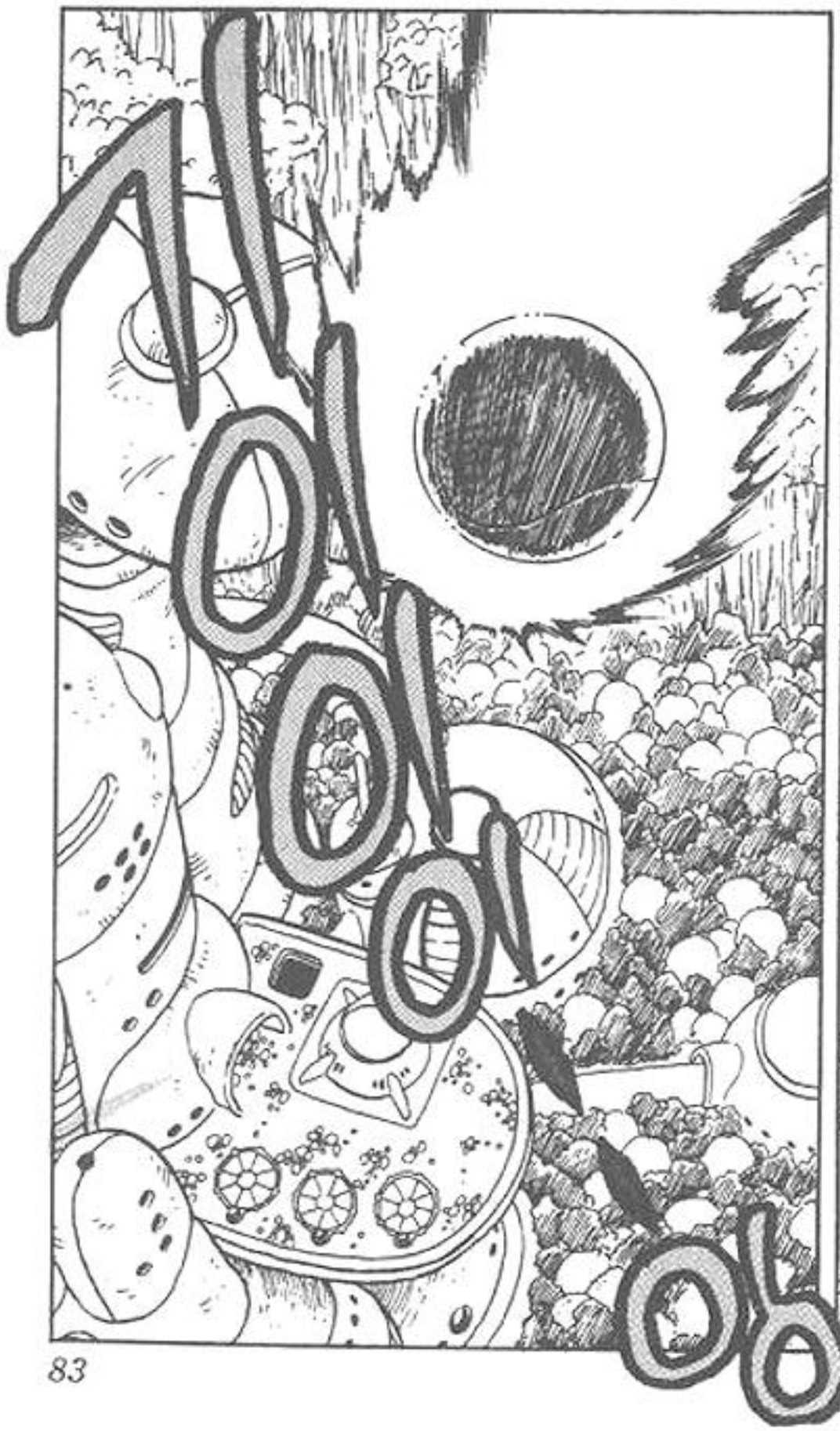
삐삐삐삐야

엉?

뭔가
오고
있다!


이 신호는…,
베지터
님이다!
둥근 원형!
전투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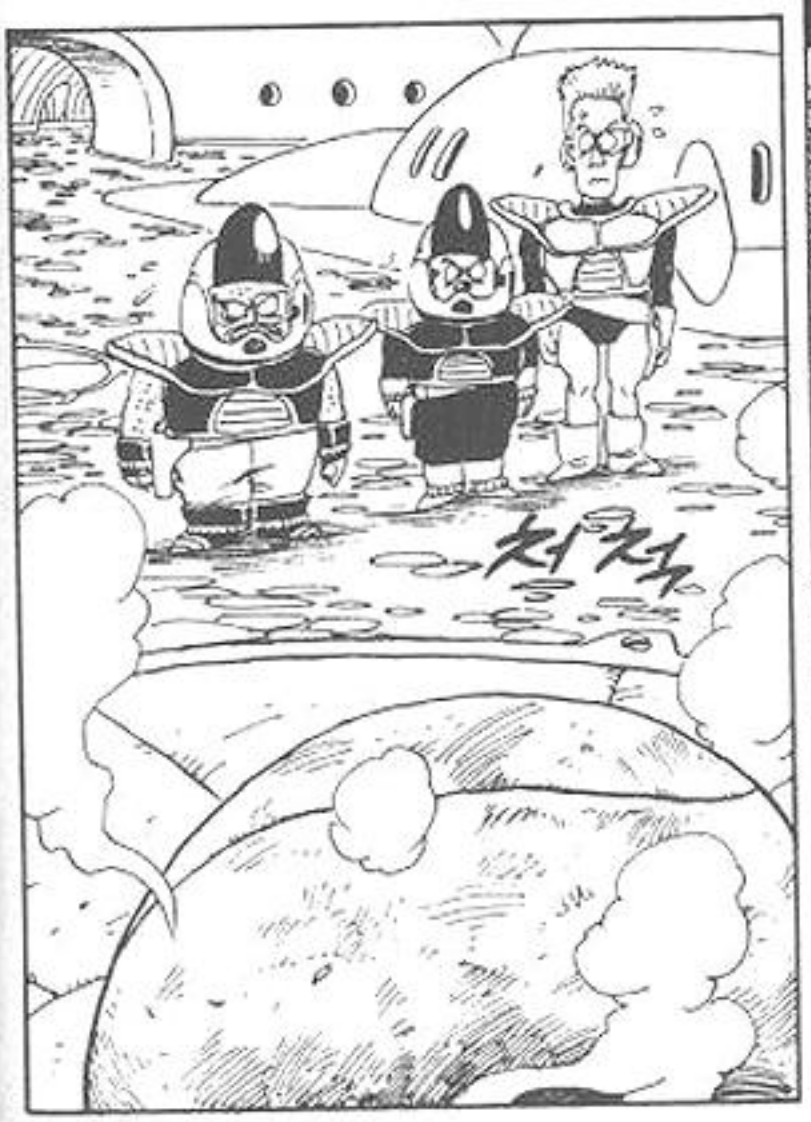

프리더
님인가!?
설마!
금방
외출하셨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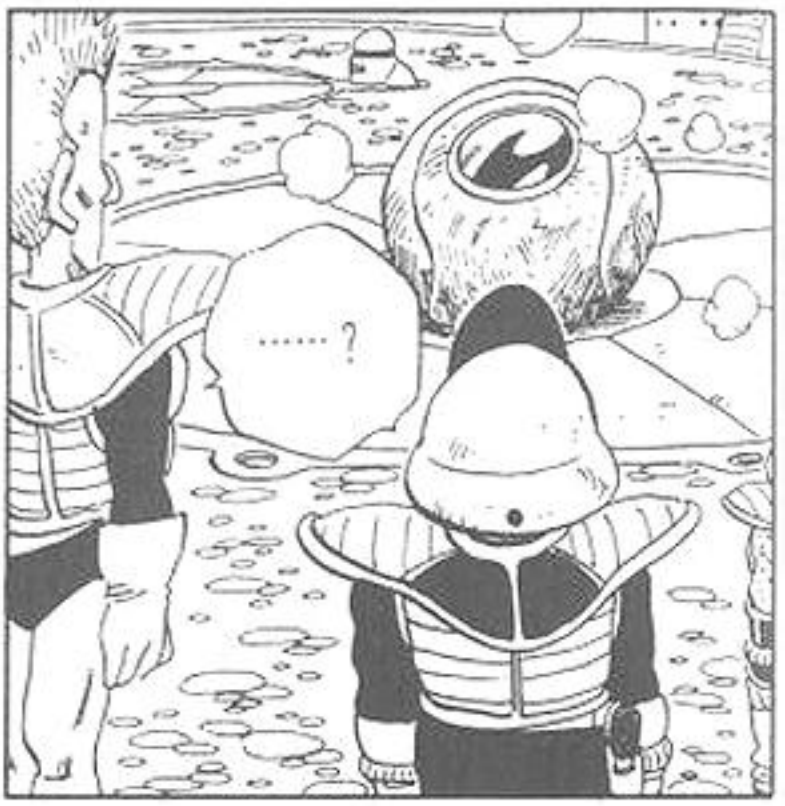

이상하네!
귀환 연락을
못받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이봐! 여기는
관제원이다!
베지터 님이
도착하신다!
급히 마중하라!


퍼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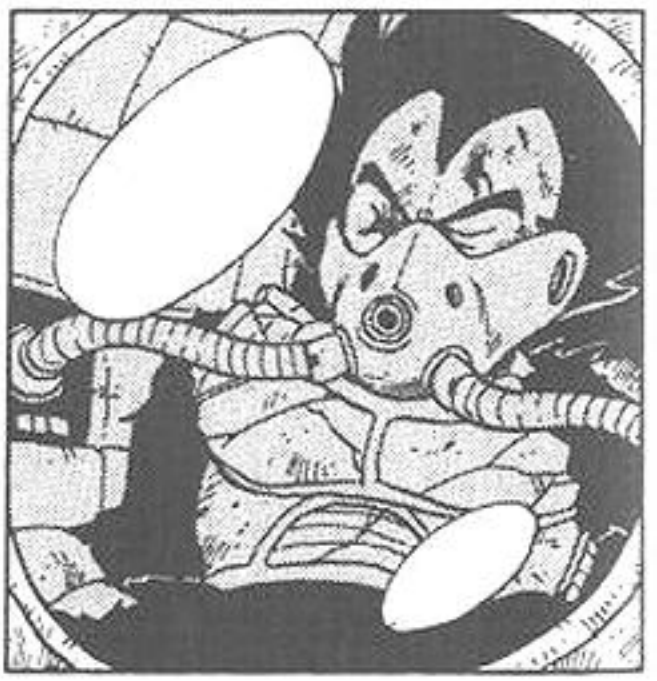

기이이-이
왔다!!
역시 한 대
뿐이야.
내퍼 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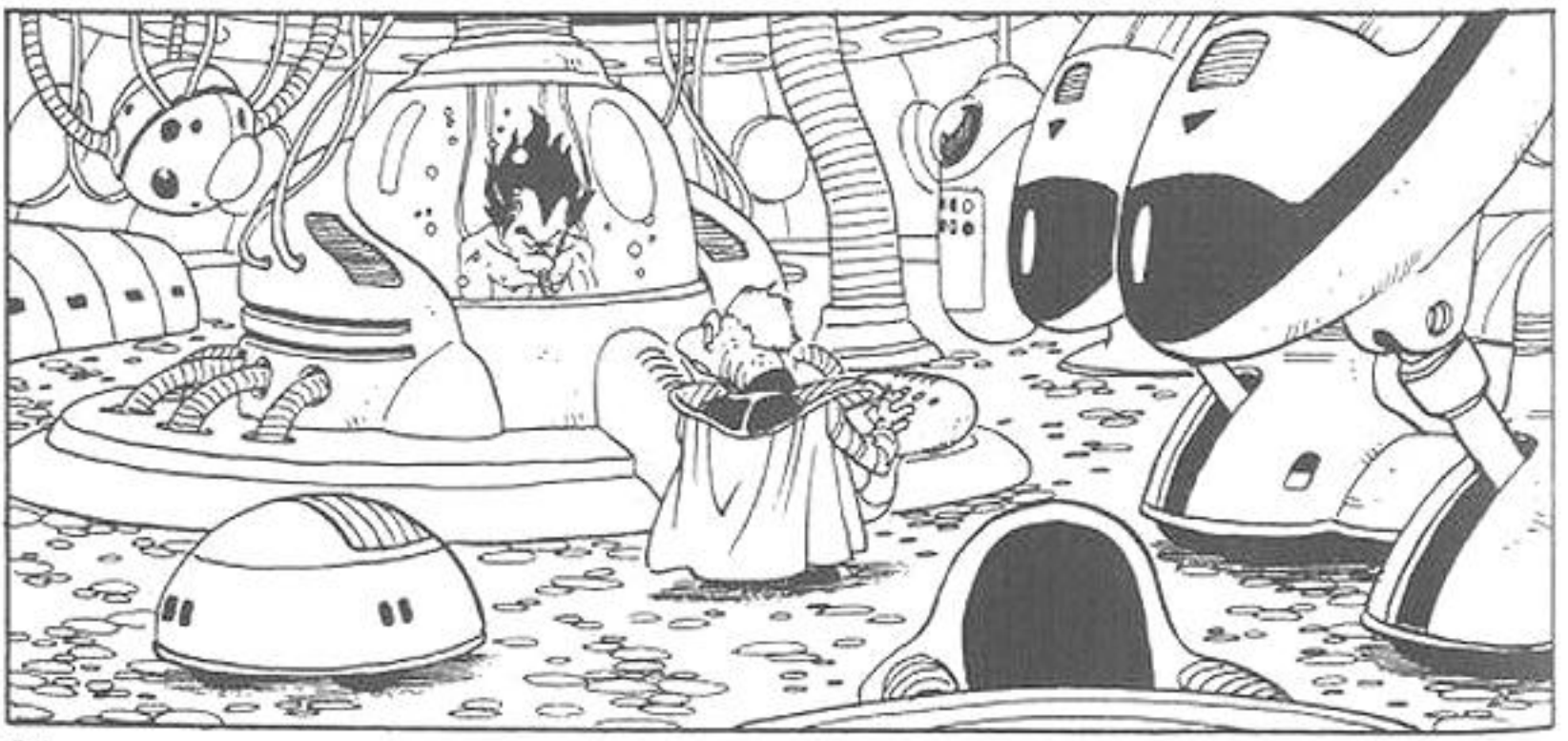

처컥


어… 어떻게 된 거지…!?
이… 이런! 생명 반응이 엄청 작아!


……?


크, 큰일났다! 빨리 치료실로 옮겨!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고 계시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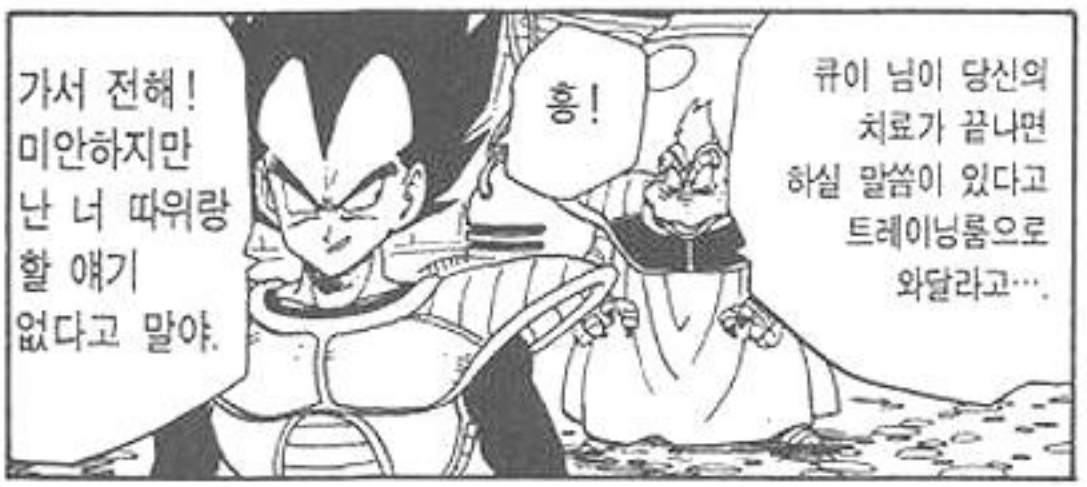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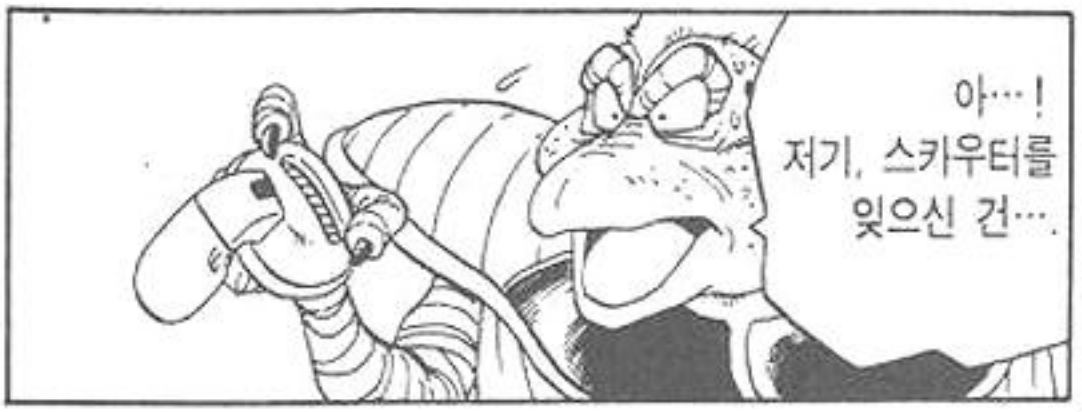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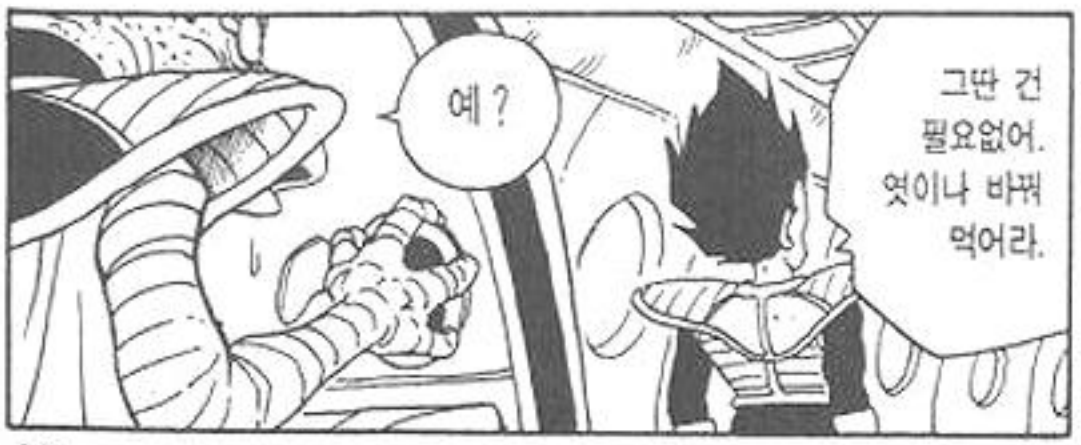

뽀골 뽀골…
됐다!
콜록 콜록…
푸아아아앗
치료 완료! 눈을 떠도 됩니다.
위이…
죄송하지만, 꼬리는 재생할 수 없었습니다….
상관없어. 다시 날 거니까….


프리더 님은 계신가?
아뇨, 밖에 나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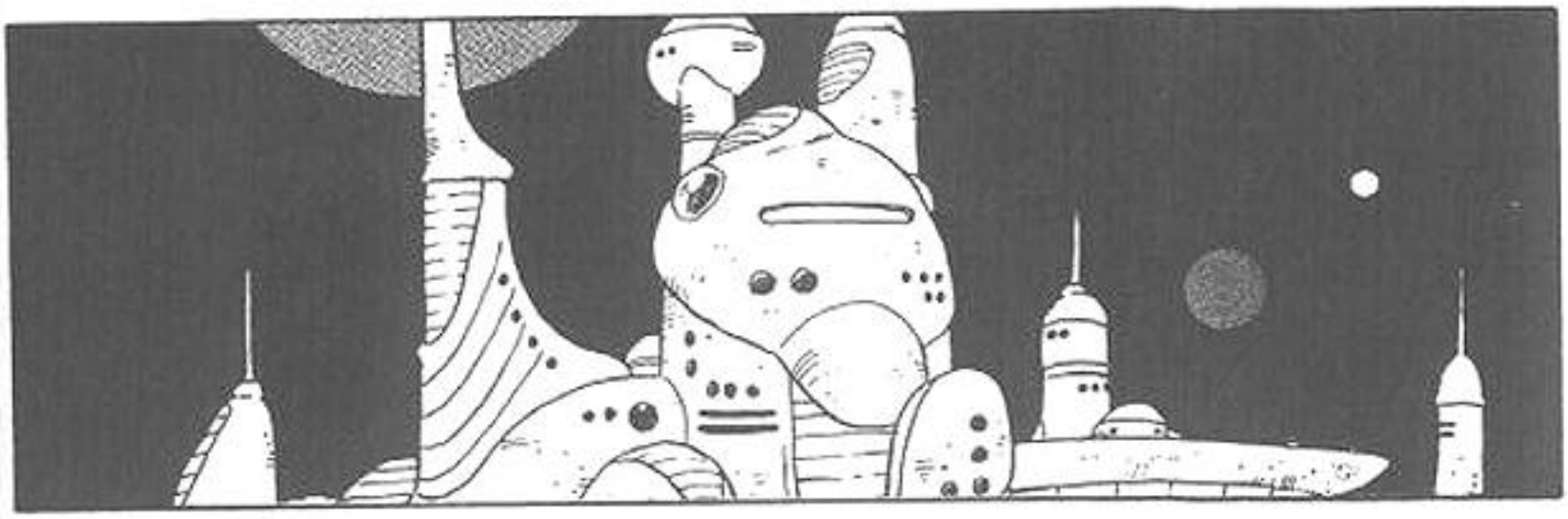

베지터 님 정도의 실력자가 그렇게 당하시다니….
이 특수 고무 프로텍터가 걸레가 됐어요….


가서 전해! 미안하지만 난 너 따위랑 할 얘기 없다고 말야.
흥!
큐이 님이 당신의 치료가 끝나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트레이닝룸으로 와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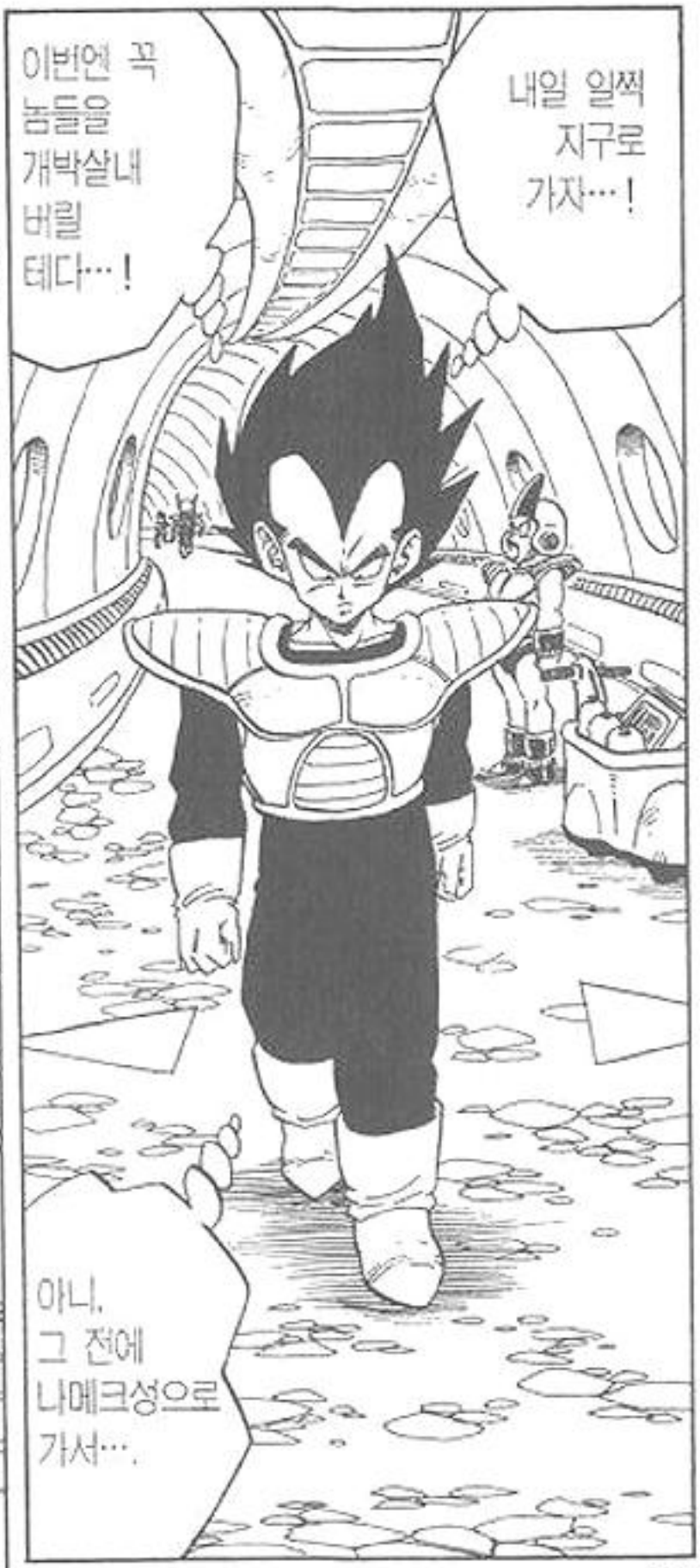

아…! 저기, 스카우터를 잊으신 건….


예?
그딴 건 필요없어. 엇이나 바꿔 먹어라.


첫…!
이젠 이 별도 질렸단 건가….






이번엔 꼭 놈들을 개박살내 버릴 테다…!
내일 일찍 지구로 가자…!
아니, 그 전에 나메크성으로 가서…


엄청 맛이 간 것 같구만, 헤헤헤…
여어~, 베지터!
라데츠랑 내퍼도 죽었다며? 헤헤헤…. 무적의 사이어인님을 고생시킨 건 어떤 분이신가?

프리더 님은 너희들이 멋대로 행동해서 무척 화가 나셨다.

흥! 여기 없으니 불평도 못하시겠군.

아, 잠깐!

깍 악

꺼져, 큐이!

네놈의 잡소리 들을 만큼 한가하지 않으니까.

자, 그 지저분한 손 치워!

그러나 프리더 님은 관대한 분이시다.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네가 아주 멋진 걸 발견 했으니까…

뭐!?

그럼 프리더 님이 간 곳은…!?

뭐라고!?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손에 넣을 수 있을 지도 모르니까.

너무 기뻐 하셨어.

나메크 성이지!


제길~! 스카우터로 대화를 다 들었구나…! 깜박 방심했어…!
어, 어떻게든 선수를 치지 않으면 영원히 그놈 밑에서 못벗어나…!
너도 그 드래곤 볼이란 걸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한 것 같던데, 포기하라구! 으하하!
프리더 님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메크인을 전멸 시킬 계획이야.
크…!
나쁜 자식…!!
타탁
이봐! 베지터!
베지터!!
파슈

그건
내 거라구
—!!

그건
안 돼…!

만세!
해냈다—!
저 별이다,
저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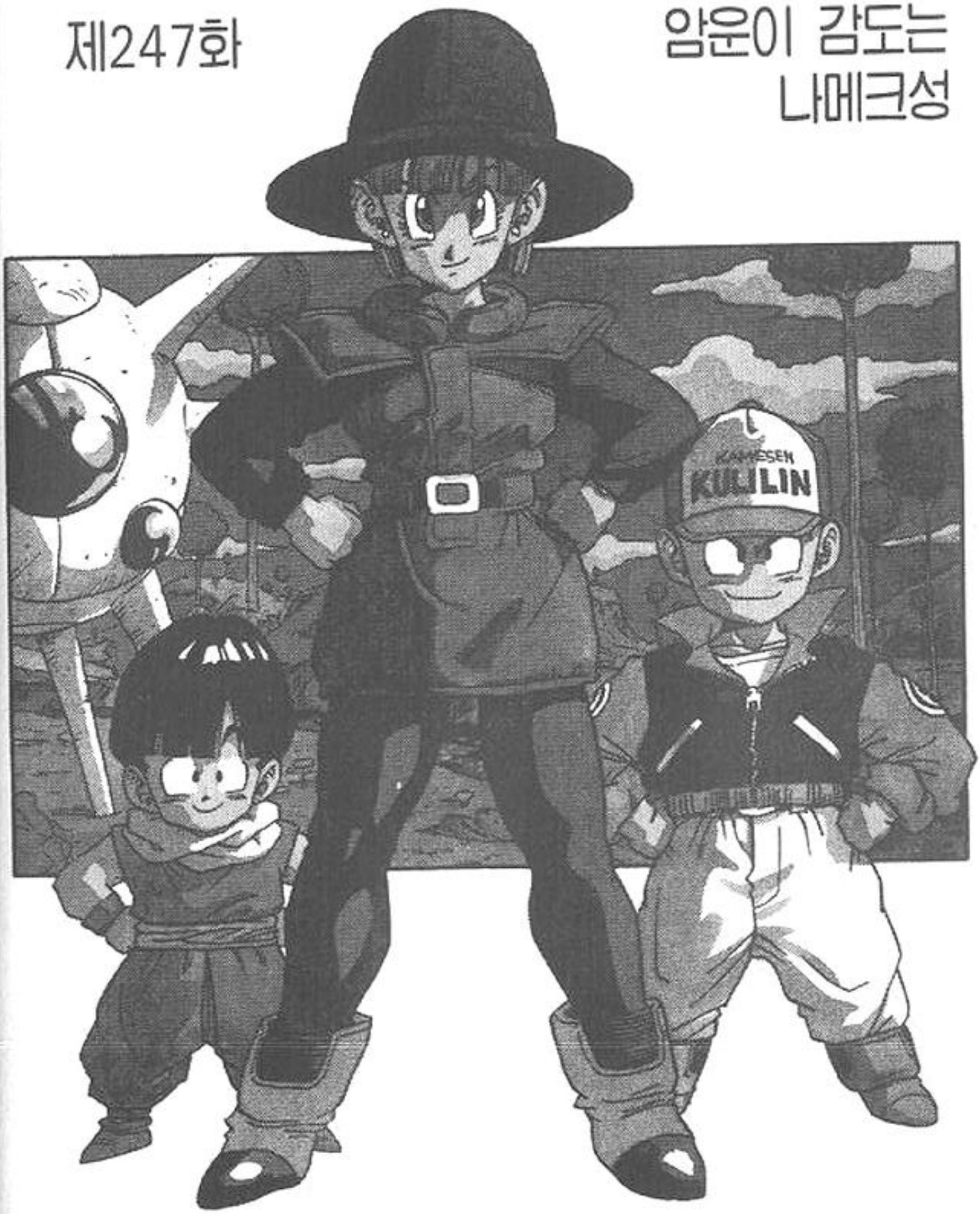
그리고 지구를
떠난지 34일째….
부르마 일행은
겨우 목적지인
나메크성에
도착했다….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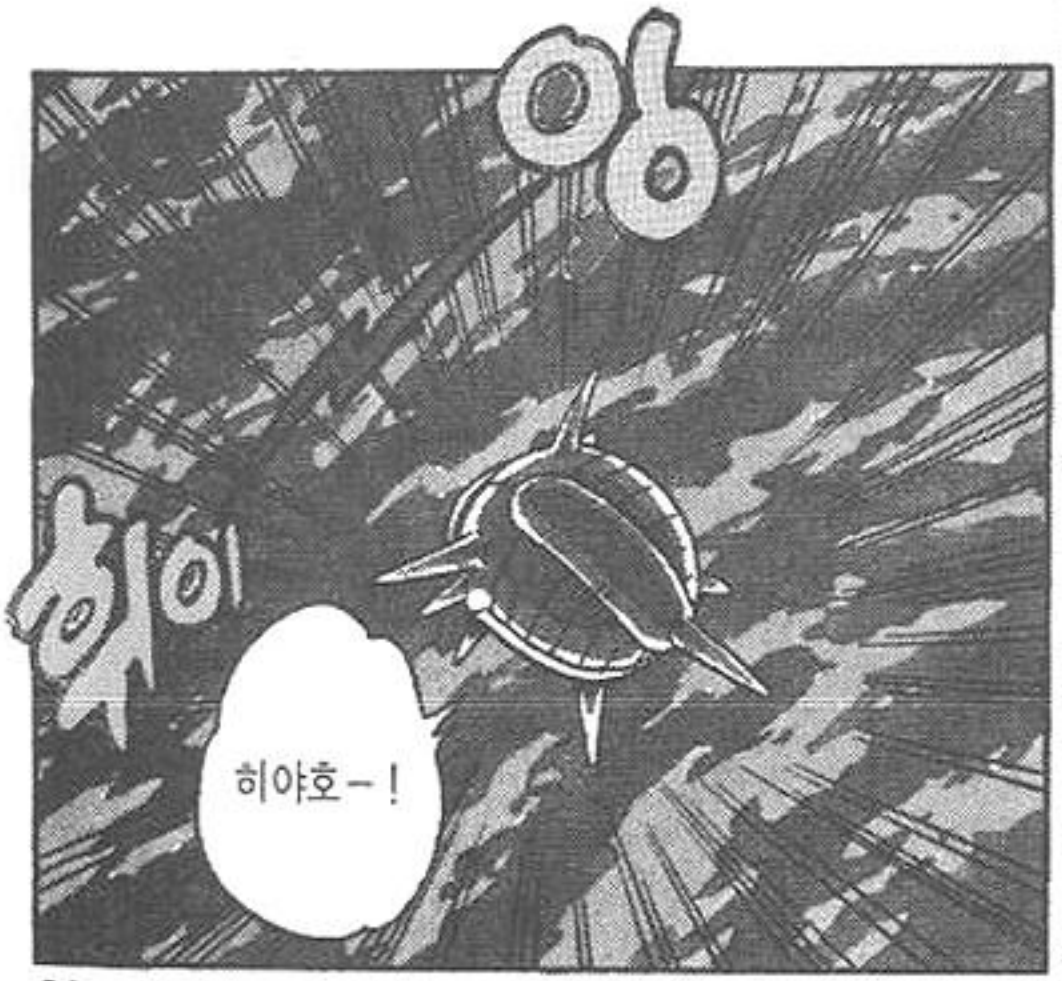
제247화

암운이 감도는 나메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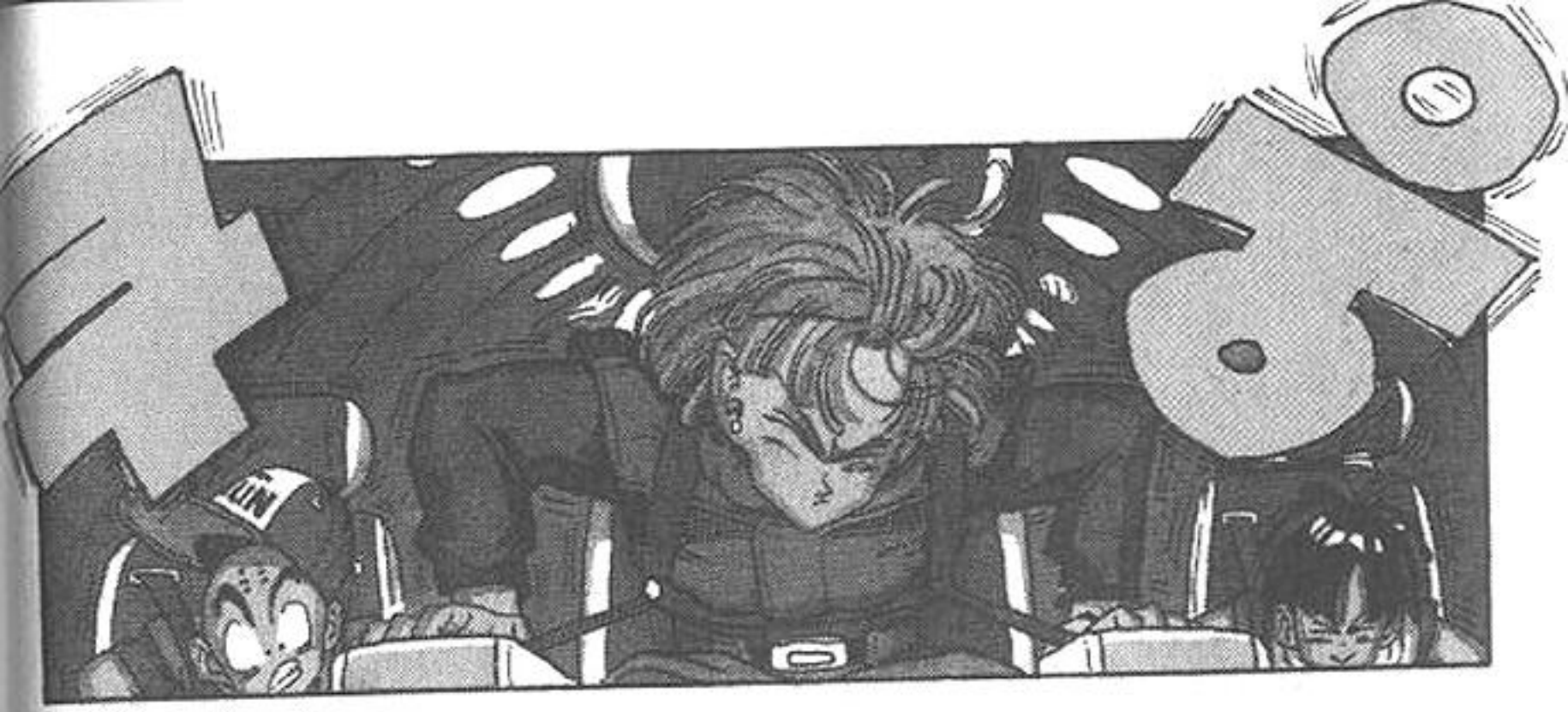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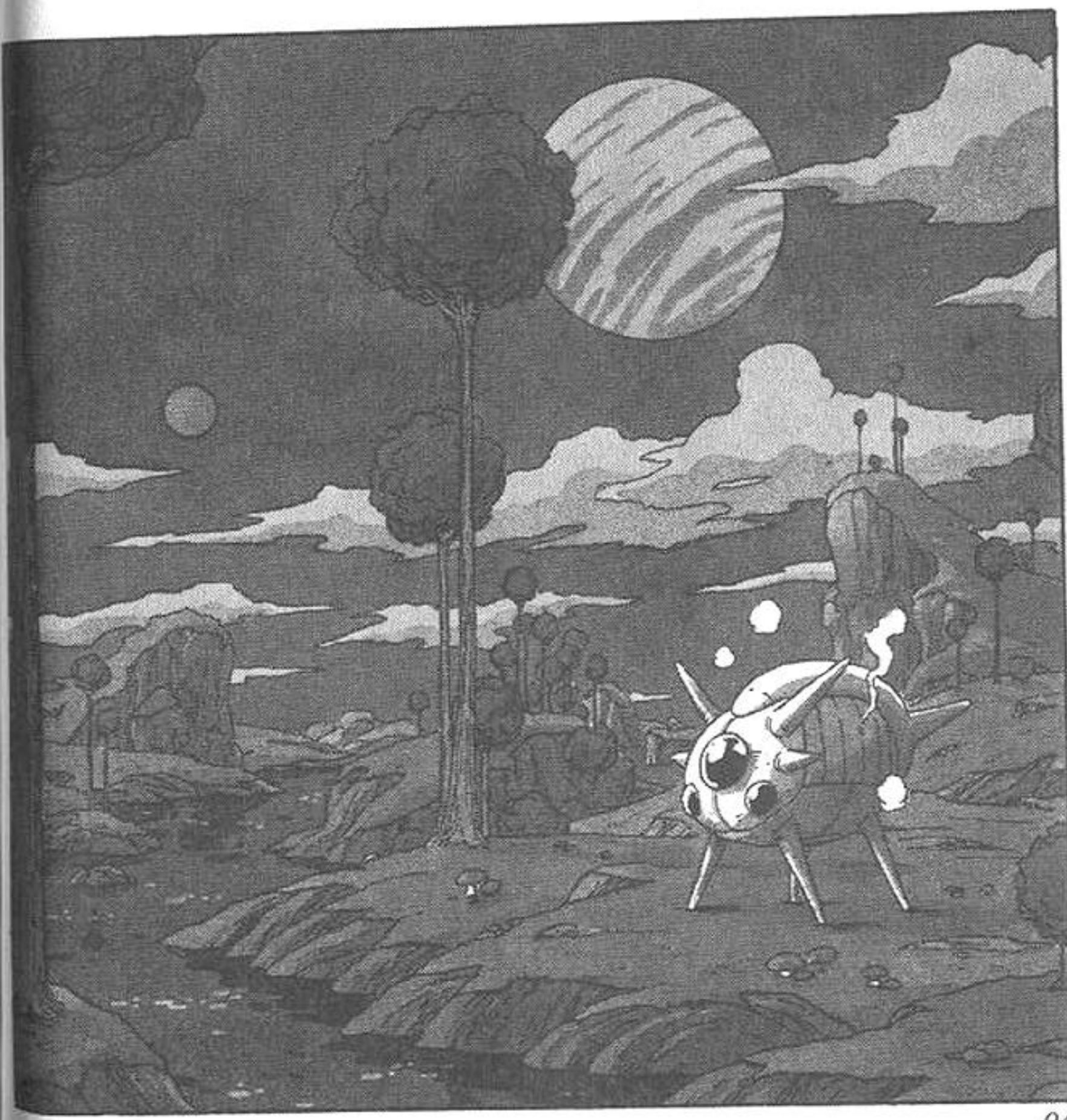

벨트를 매!
착륙할 때
충격이
심하니까!
아,
예!


적당한
지형에
착륙 시작!


히야호-!


멋지다-!
저게
나메크성
이구나-!
와-!
진짜
예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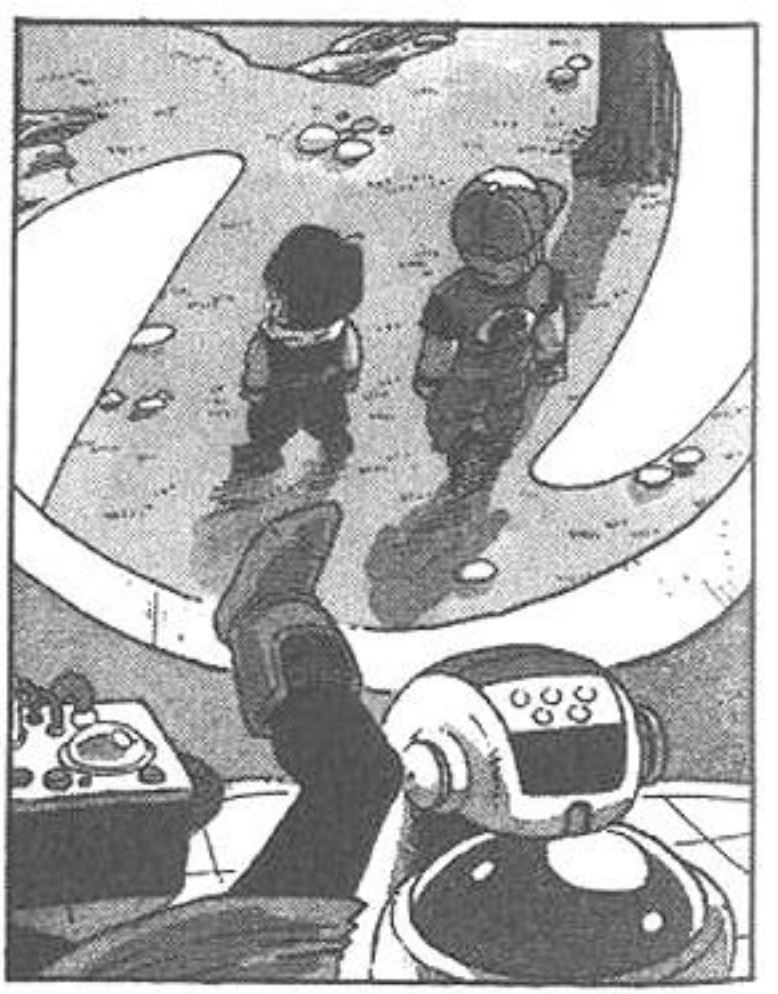



멋져-!
만세!
나메크성
도착!
우와아~!


일단
대기마스크도
준비는 해왔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불편하니까….
비비
빅 빅
어느 정도
산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공기의
성분을
조사할게.
잠깐~!
정확한 센서를
부착해
놨으니까.


아…, 사이어인과
맨 처음 싸운 곳
말이지? 본능적으로
고향과 닮은 곳이
안정되고 좋겠지.
여기는…, 내가
피콜로 아저씨에게
수련을 받은 곳과
조금 비슷해….




너희들! 왜 니들 멋대로 밖에 나오니!? 생각 좀 해라, 생각!!
우씨, 정말…! 드래곤 볼이나 빨리 찾아야지!
찰칵 찰칵
야… 야…. 부르마 뭣 땜에 열 받았냐?
그…, 글쎄….
우리가 맨 먼저 내려와서 기분 나쁜가봐….
!?
삣

이얏호!
만세~!

역시
반응이
있어…!!
드래곤
볼이야!

이
거
봐
!!

정말
!!

저, 정말
이네…!

……

KAMEHAME
KULILIN

기?

저쪽에
강한
기가….

크리링
아저씨….

이… 이게
뭘까…?

게다가
모두 무쟈게
강한 기
뿐이야….

그…
그래….

그것도
많이
느껴져….

…좀 사악한 느낌의 기인걸….

그… 그래도 좀….

신님이나 피콜로가 그 정도로 강하면 고향인 나메크성인들이 강한 기를 갖고 있는 건 당연하잖아?

걱정도 팔자셔-! 그야 나메크성인이겠지.

맞다-! 나메크성인들이었어!

그래, 그렇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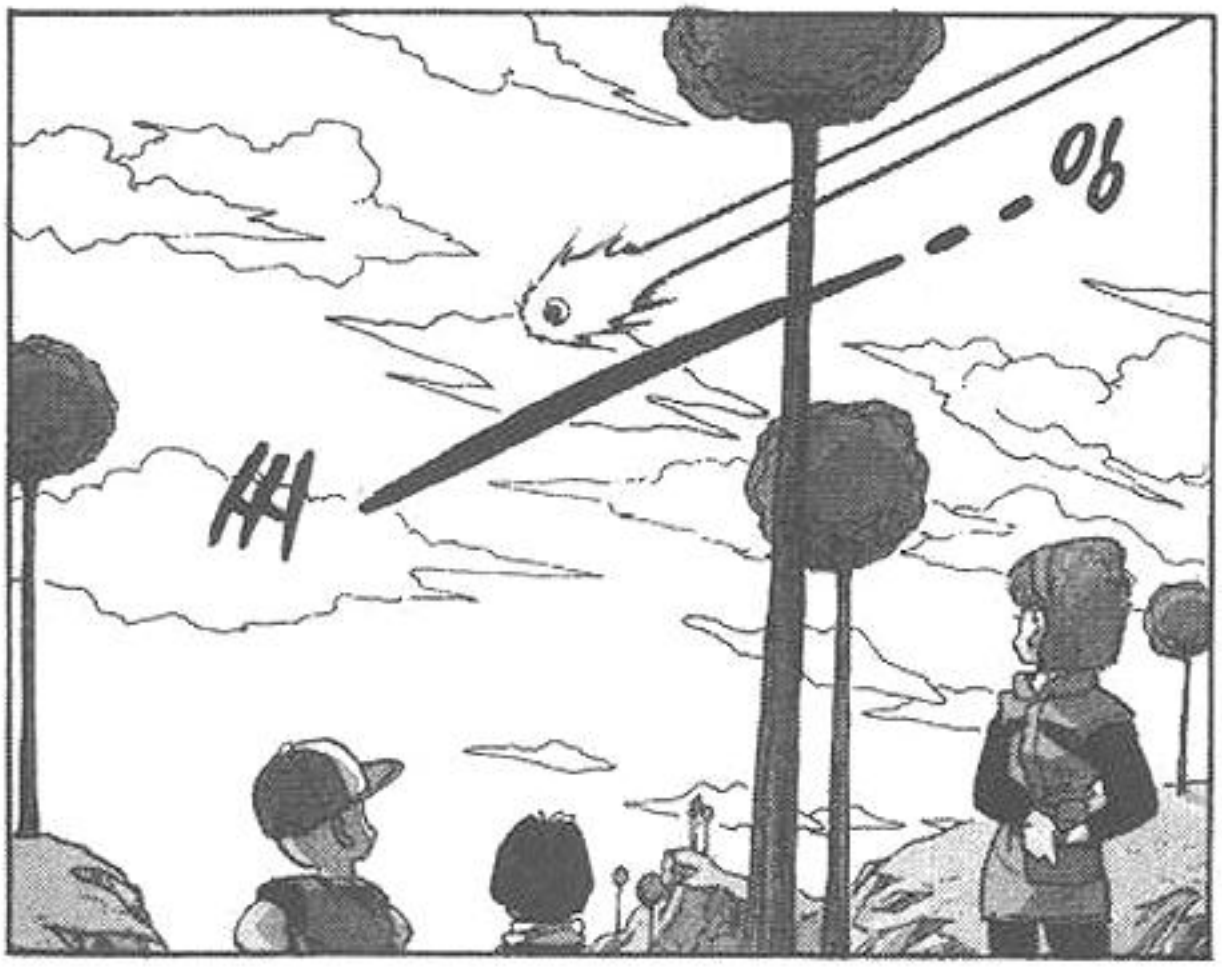
괜찮다니까! 계왕님도 말했잖아. 나메크성인은 원래 온순하니 뭐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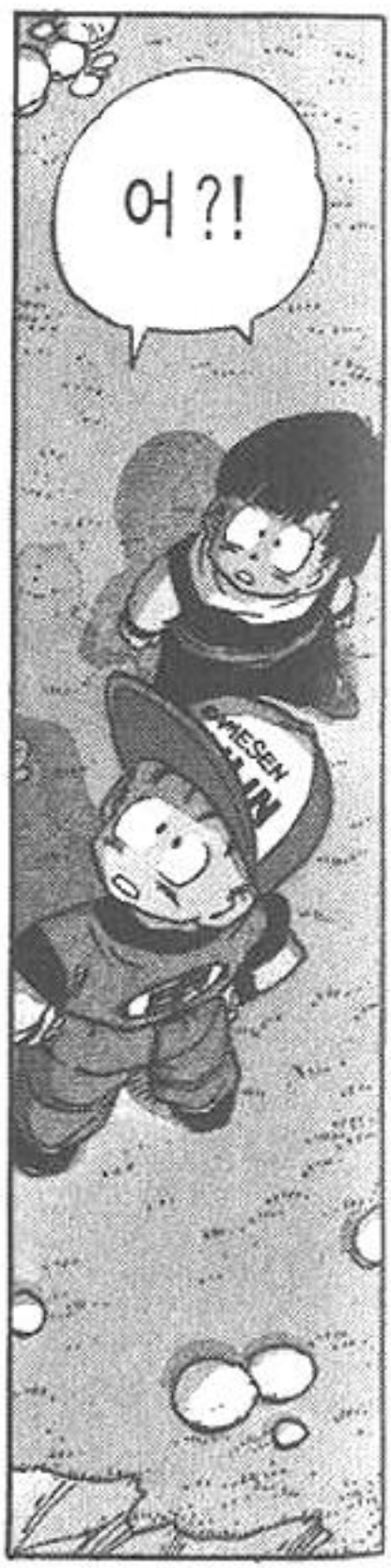
하하하! 괜히 쫄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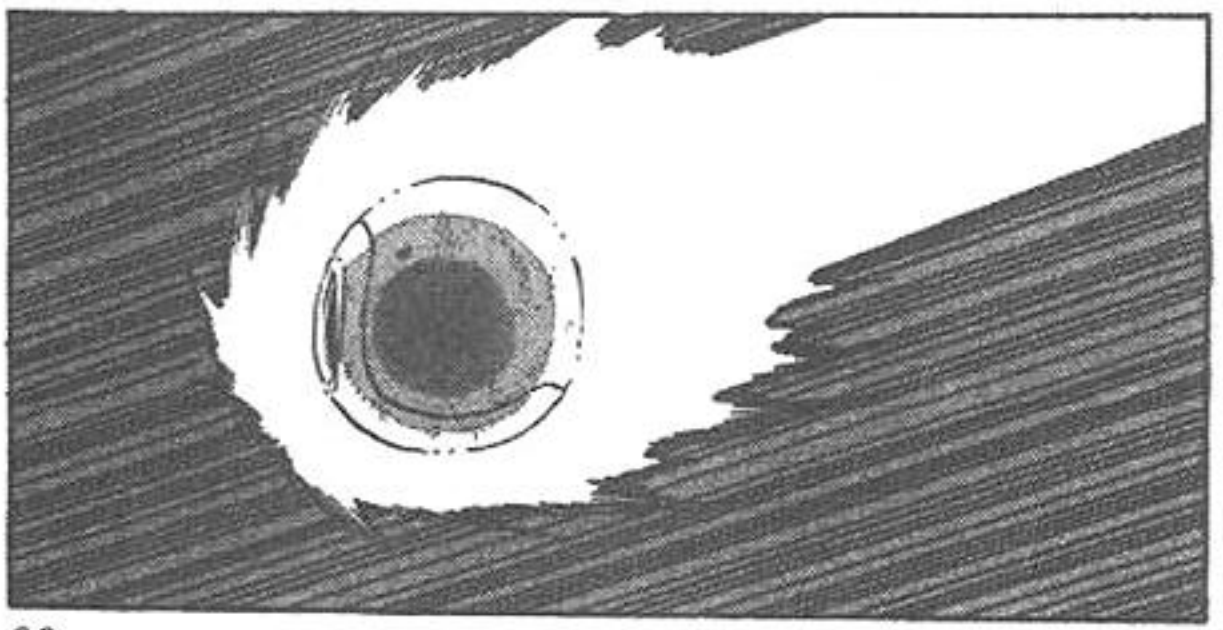
자, 그 나메크성인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그쪽 방향이라면 이봐! 레이더의 반응에서 볼이 4개 모여있는 곳이잖아?


하하…
--06


--06


어?!



저…
저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앙

HI

사이어인의
우주선이다
—!!

쿠—…웅

역시나
~!!

엄마야~!
세상에나~!
대체 왜~!?

이…
이럴 수가…!

……!!

제… 제길…!
이… 이걸
어쩌지…!?

베…
베지터다…!
그… 그놈이
틀림없어….

예,
예!

오반!
기를 지워!
들키겠다!

이제 틀렸어….
지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구!
그치? 빨리
돌아가자!

이… 이제
어쩌나…!?

부르마,
지구에 이 사실을
연락하고
너 혼자만
돌아가줘….

저런 놈에게
드래곤 볼을
빼앗기면
모든 게
끝장이야….

걱정은 말고….
우린 드래곤
레이더가
있으니까….

우린 남아서
드래곤 볼을
모아볼
테니까….

헤헤
롱롱

사이어인이…,
벌써 다
나왔나…?

비…,
빌어먹을~!
그렇다면
저놈도
드래곤 볼을…!

파앗

지구로 돌아가면
오공을 태우고
또 올 테니까
왕복 2개월
정도만 기다려!

아, 알았어!
우선 거북 영감한테
이 사실만이라도
연락할게…!

예,
예!

그러자…,
오반….

으… 응…,
2개월….

드래곤 볼은…,
절대
못넘긴다…!

프리더
녀석…!


또
스카우터를
쓰게 될
줄이야….
쳇….
빠


내가 반역한 건
이미 들통
났겠지….
프리더는 날
분명 죽일 거야….
프리더 외에는
어떻게든 상대할 수
있지만, 프리더는
이길 수 없어….
하늘이 두쪽나도
드래곤 볼을
잘 빼앗아서
영원한 생명을….


따봉과
도도리아도
데려왔군…!
이딱
인가?


삐
삐
삐…


그,
그래서…!?
으응…!
으응….
뭐,
뭐라고!?


KAME
HOUSE

부탁해, 그럼!

어?

그래…! 그러니 오공들에게 전해줘!

잘 들어! 찌찌한테만은 비밀이야! 알겠지!?

어라? 왜…!?

저 저런…!

익!?

자…, 잠깐…. 저건?

……


콰——…앙
그…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왜… 왜 또 저게 오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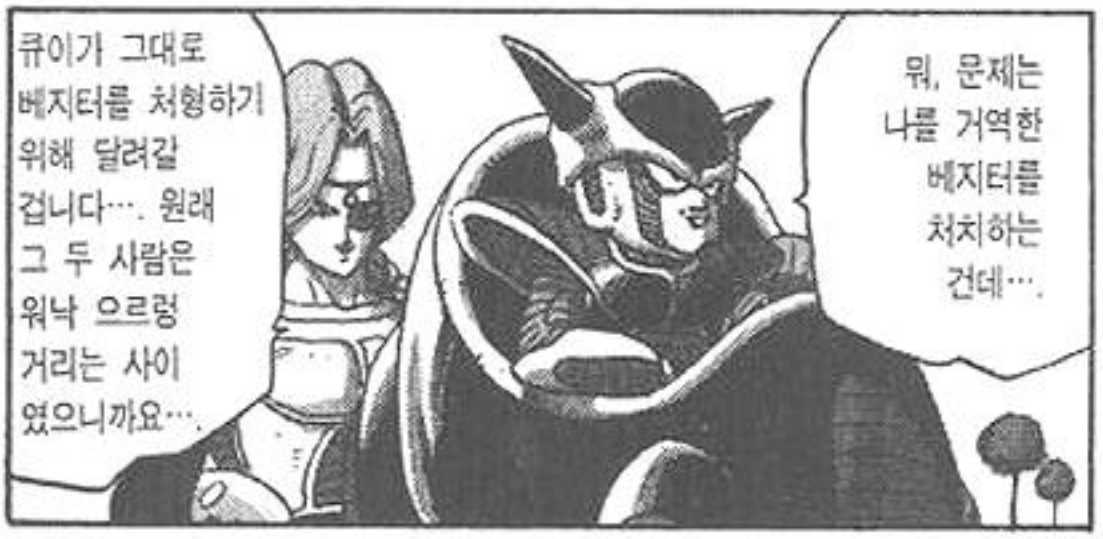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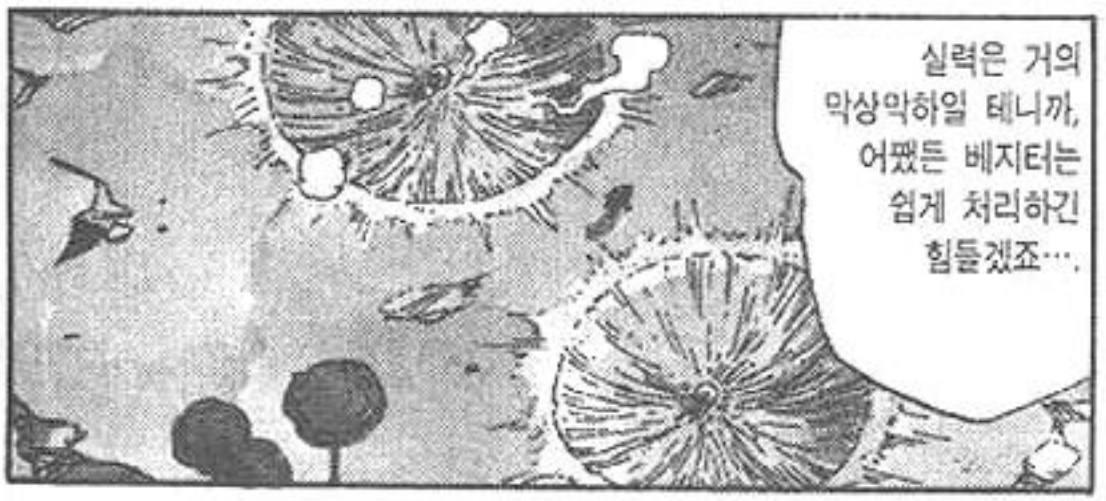

여기
있습니다,
프리더 님!


이제 3개
남게 됐군요!
오우!
좋아, 좋아!











다음은, 제248화 수수께끼의 이방인

큰일났네!
이, 이건
너무 위험해!

사… 사이어인
이라면 더이상
없을 텐데…,
저… 저건 대체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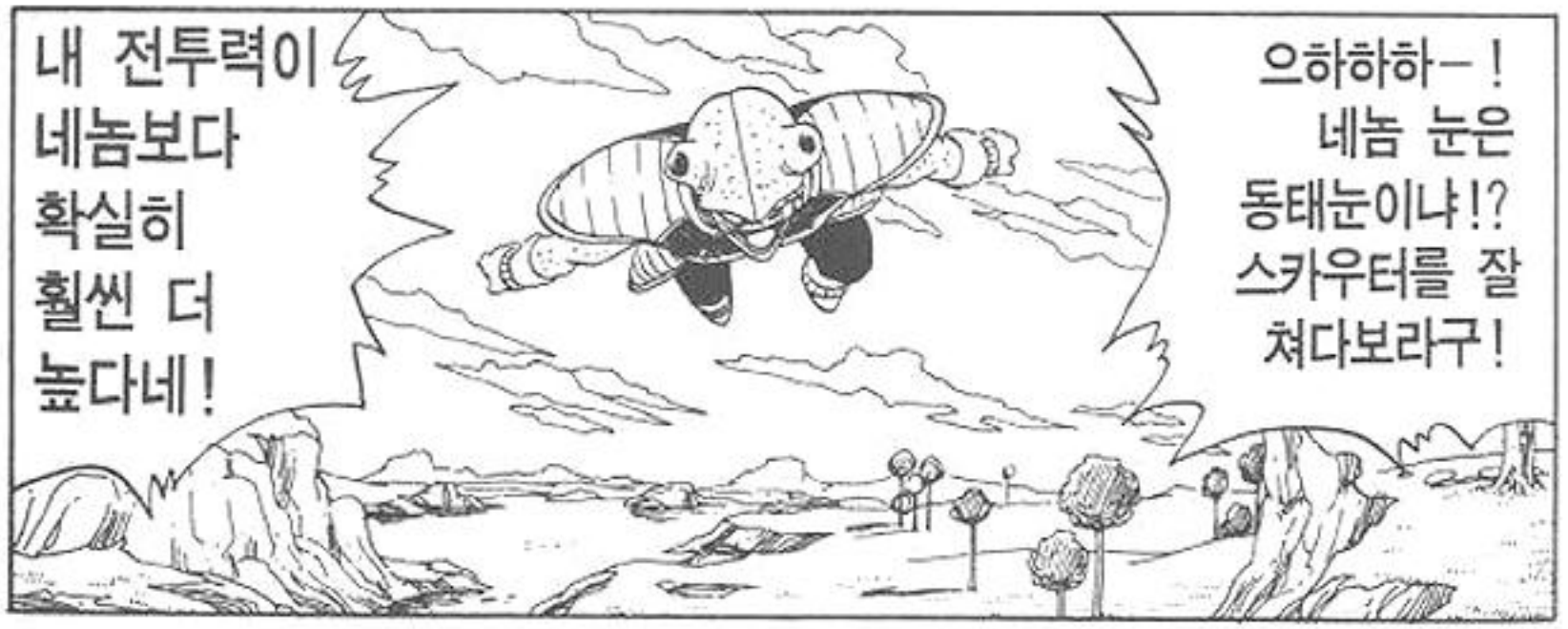
키키킥…,
찾았다,
베지터….

삐삐삐삐삑!!!

들리나,
베지터?
이제 네놈을
당당히
죽일 수
있다구!!

우하하하하!
프리더 님의
명령이다!


니가 감히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냐?!
놀지 마라, 큐이.
기다려줄 테니 빨리 와라!


내 전투력이 네놈보다 확실히 훨씬 더 높다네!
으하하하-! 네놈 눈은 동태눈이냐!? 스카우터를 잘 쳐다보라구!


금방 오공 데리고 올 테니까!
그, 그럼 난 지구로 돌아갈게! 힘내!
히죽!

우, 우리도 우선 지구로 돌아갈까?

어, 어떡하지, 오반…?

뭐?

부, 부르마! 잠깐 기다려…!

그… 그래도…, 그럼 드래곤 볼은 저놈의 손에….

으…, 응…. 뭐, 이번엔 놈에게 양보하고 우린 다음에 찾지….

그, 그치만 적은 한 명 더 있는 것 같고….

아, 아무리 드래곤 레이더가 있다 해도…. 난 괜찮지만 만약에 오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난다구…!

!?

끄응~.

…….

지난 번의 피콜로 때처럼 용신을 죽이지 말아야 할 텐데….

뭐!?

크리링 아저씨, 누가 와!


반응이
사라진 곳은
이 근처일
텐데….
나메크성인이
아닐까?


아니야…,
베지터가
아닌걸….
좀더 약한 기다….
사,
사이어인!?


저건
뭐지!?
어!?


분명
나메크성인일
거야….
꼴깍!


나,
나메크성인이
아니야!
앗!?

어쨌든 이 별에 있는 놈들은 몽땅 없애버리라는 명령이니….

헤헤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메크 성인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뭘까?

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다만…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하지만 사이어인은 아니야….

저… 저 모습을 좀 봐…. 사이어인의 복장과 비슷한걸….

아… 아무리 좋게 봐도 친구가 될 만한 관상은 아닌걸…!

그… 그래…!


야, 기를
죽이면서
파워를
모아둬….
예,
예….


부웅


!?
좋아!
!?


크크크!
저거 봤어?
저놈들, 전투력이
거의 없는 쓰레기야.
그냥 관광객인가…?
삐삐삐!
헤헤헤….
도망가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우선
저 우주선을
박살내.

피어엉

까악!!

파팟

앗!!

우, 우주선이!!

파직 파직…

이놈들은 시시껄렁한 놈들이야!

오반…, 기를 개방해라…!

으하하하하-!

으으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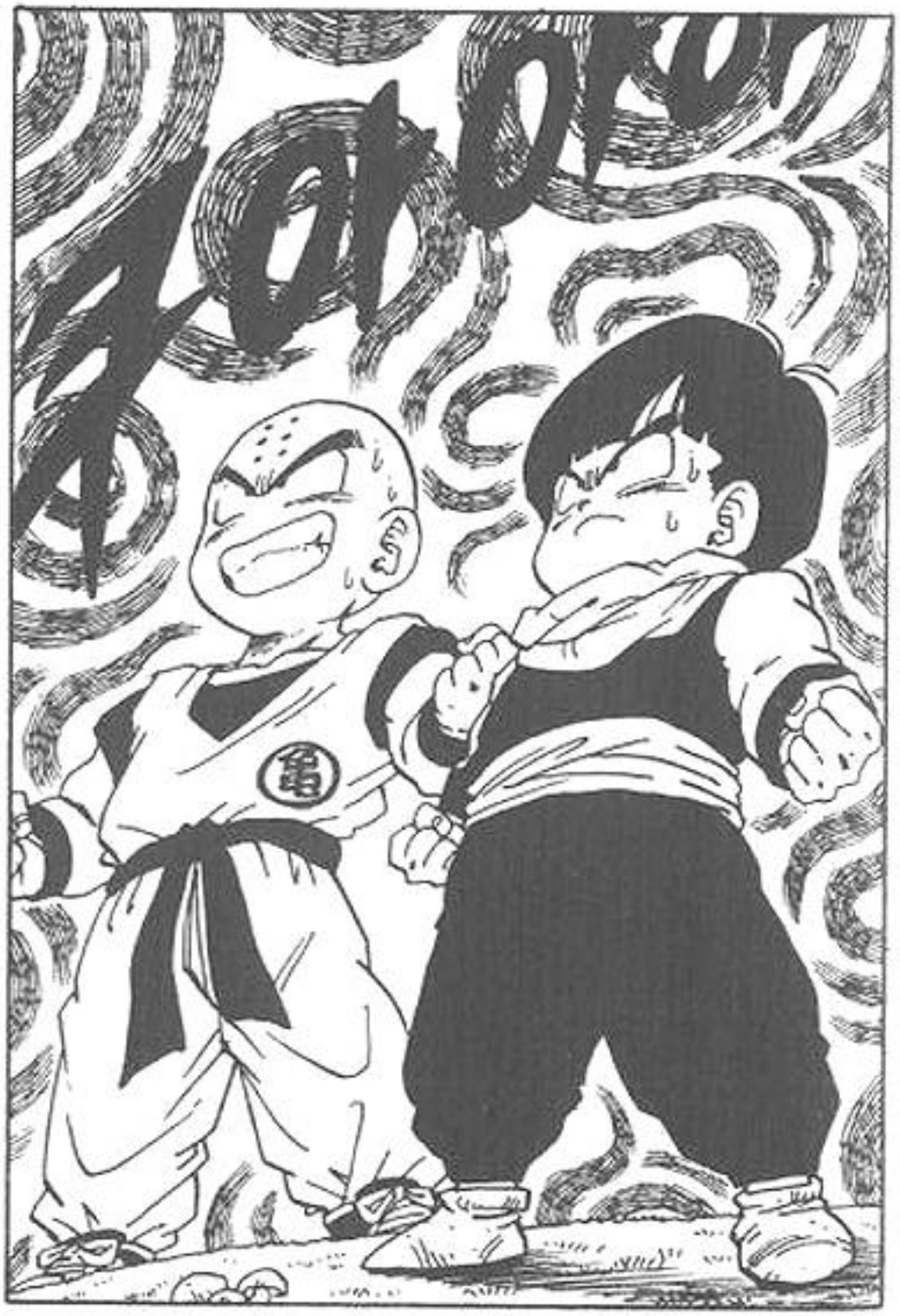
진짜 운도 없는 놈들이군! 하필 이럴 때 이 별에 오다니!


좋아!!


싸우자!!


으하하하하!
우리가 시시껄렁한
놈들이라고라?
이봐,
들었냐?


삐삐삐삐!!
엇!?




이, 이
전투력
수치는-!!
뭐…
뭐야…!?


앗!?


스슥


스슥




으악!!

첨벙

첨벙

탁

탁

바그르르

나이스는 무슨 얼어죽을 나이스야 -!!

나이스 콤비!

헤이!

휴우!

삐...


아무래도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전투력이 순간적으로 상승해서 정찰병 둘을 해치운 다음 또다시 반응이 사라졌습니다….
예, 프리더 님. 좀전에 정찰보낸 놈들인데요….
호오!


왜 그러죠, 따봉 씨?


전투력은 둘 다 1500 정도였습니다.


그냥 놀게 놔둬도 상관은 없지만…, 건방진 태도가 꼴보기 싫군요.
1500 이라….
다음에 또 나타나면 없애버리도록 해요.


여, 베지터와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거 묘하군요. 베지터도 아닌 것 같고….

여… 여긴 위험하다구…. 더 강한 놈이 나타날지도 몰라….

부… 부르마…. 일단 이곳에서 피하자….

우… 우선 어딘가 숨어야 해….

마…, 맞아. 아까 느낀 엄청 많았던 기는 나메크성인이 아니라 베지터 일당 같았으니까….

이, 이제 다시는 지구에 돌아갈 수도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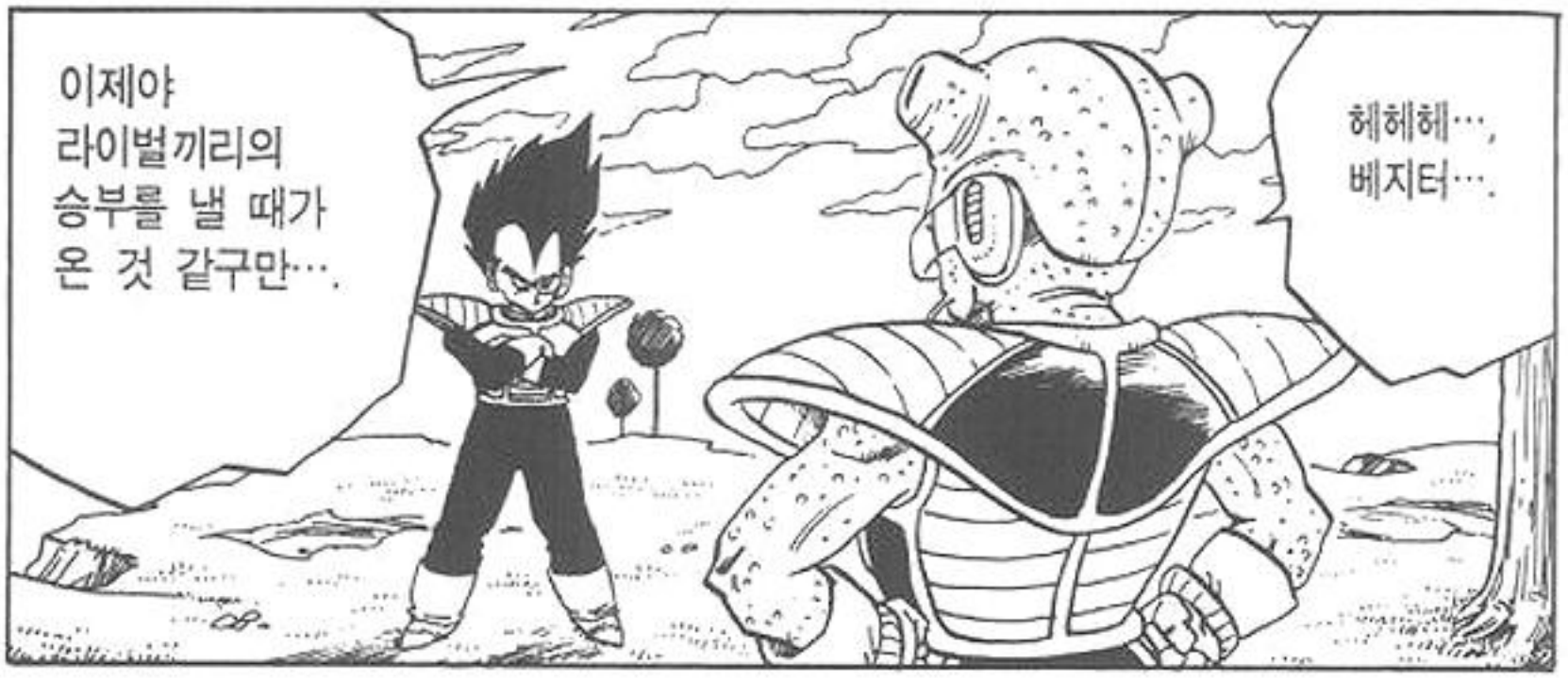
이, 이젠 틀렸어…. 모든 게 끝장이라구….

흘적 흘적…

나… 나메크성인이 꼭 우주선을 고쳐줄 거야….

무… 무슨 방법이 있겠지….

니들은 속 편해서 좋겠다….











다음은, 제249화 베지터의 슈퍼파워

저…, 전투력 컨트롤이라고…!?

삐삐삐…!!

이… 이럴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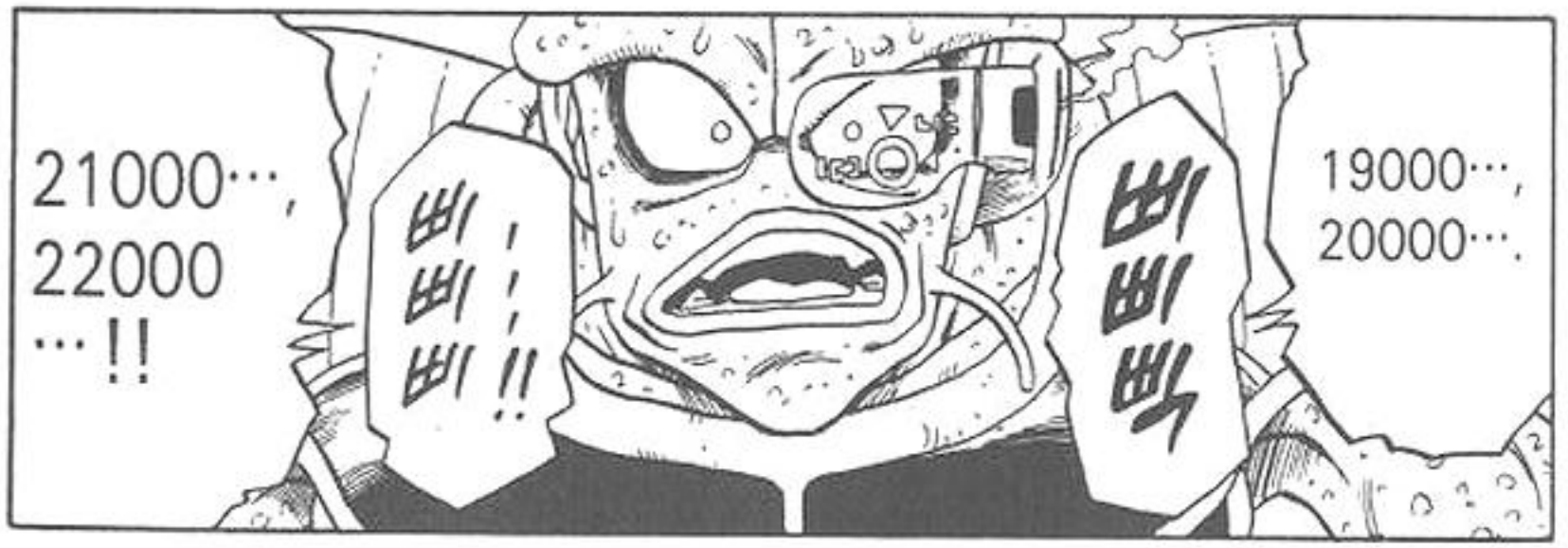
워…, 원래 너와 나는 전투력이 비슷했었는데…!

스카우터로 내 전투력 수치를 잘 구경해보셔!

멍청한 놈! 난 끊임없이 실전을 통해 싸워왔다! 지구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싸웠다구!

프리더 밑에서 팔자 늘어지는 개로 지내던 네놈이랑 평생 비슷할 줄 알았냐!?


크아아아
아아… !!


21000…,
22000
… !!
삐 !
삐 !
삐 !!
삐
삐
삐
19000…,
20000….


으…
으으으….


펑

……

왜… 왜 그래, 따봉!?

펑

!!

내 걸로 정확한 수치를 조사해 주지.

그거 진짜 고장났군. 네 스카우터는 구형이라서 그래.

베지터에게 세트한 스카우터의 수치가 22000을 넘어선 순간….

아… 아마 고장이 분명 하지만….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이…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내 신형도 고장인가…!? 24000까지 올라가고 있어…!

수치는 …?

뭐…, 22000이라고…!?

서…, 설마…!

24000…!? 우… 우리보다 전투력이 높다는 겁니까…!?

그… 그놈의 전투력은 겨우 18000이 최고였는데….

그래도 24000이니 당신들 둘이 함께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수치죠? 후후후….

너무 놀랄 것 없어요. 베지터는 최전선에서 싸워왔으니까. 지구에서도 뭔가를 하나 배웠겠죠.

베지터는 드래곤 볼로 아마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손에 넣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한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놈은 원래부터 나를 존경한 것 같지도 않고….

……

명령에도 없는 지구를 공격하기도 하더니, 이젠 겁대가리 없이 내 지위까지 노리다니….

……

진짜 무모한 놈이네요, 크흐흐흐….

감히 내게 겉으로까지 반역을 시작한다는 건….

자, 잠깐!
베지터!
내게 죽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어, 어때?
나, 나랑 손을 잡자!
내, 내가 도와줄게!

나, 나도
프리더 님….
아, 아니 프리더를
전부터 싫어했다구!

진짜 사람
열 받게
만드는
놈이네…!

입에 침이나
바르고
행운 쳐라….

괘, 괜찮지!?
그, 그 전투력으로 나와
손잡고 싸우면 따봉과
도도리아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야…!

앗!
프리더
님!!

뭣!?

믿어다오,
베지터….

불끈!

…….

거…
거짓말
아냐…!!


!?
얼빵한 놈!!
우갸갸갸—!!

슈욱

헤헤…
헤헤헤….

너 같이 비겁한 놈이 그런 싸구려 수법을 쓰다니, 진짜 질렸다….

놀고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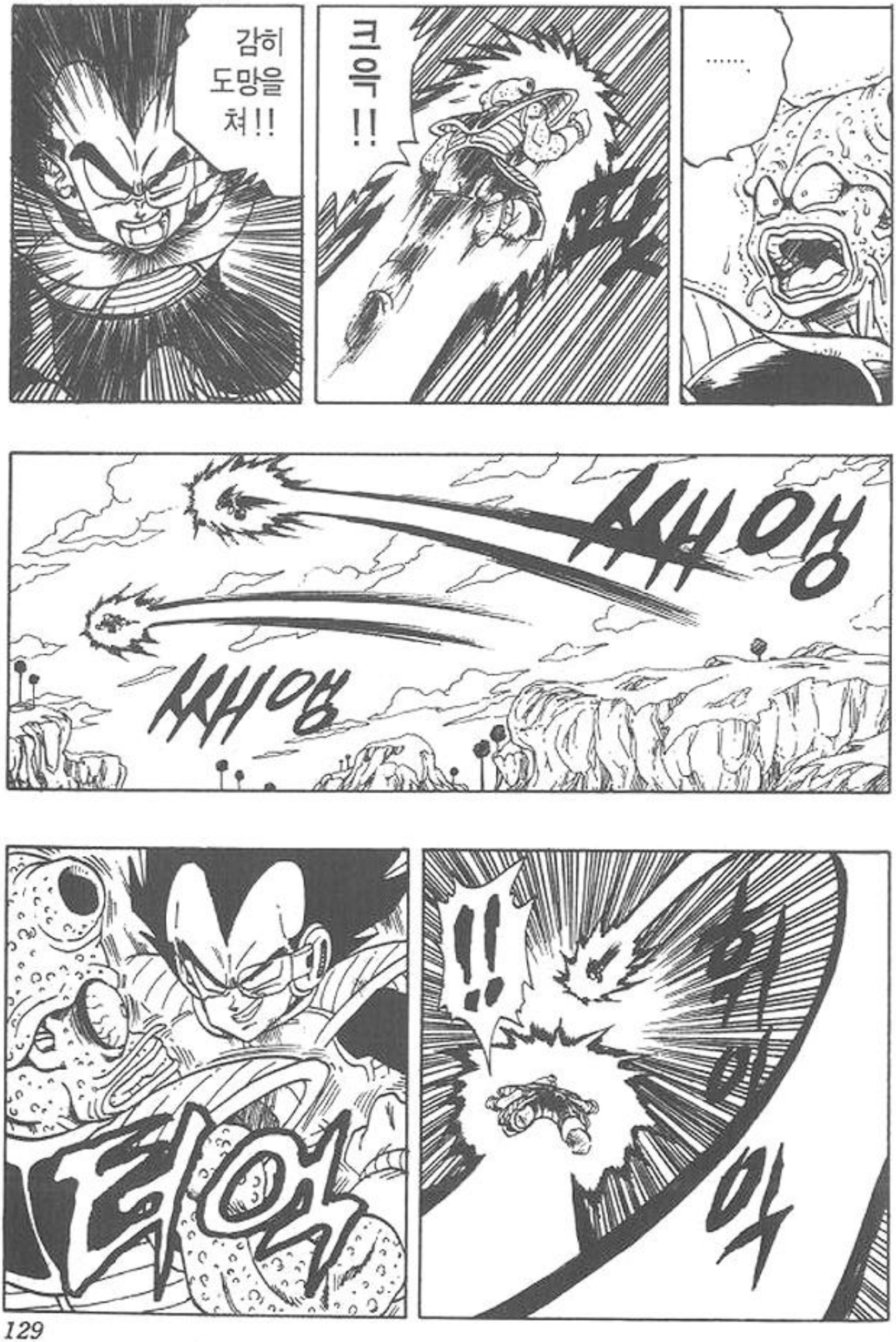
아니…, 어느 틈에…!

전투력이 상승했다는 건 스피드도 올라갔다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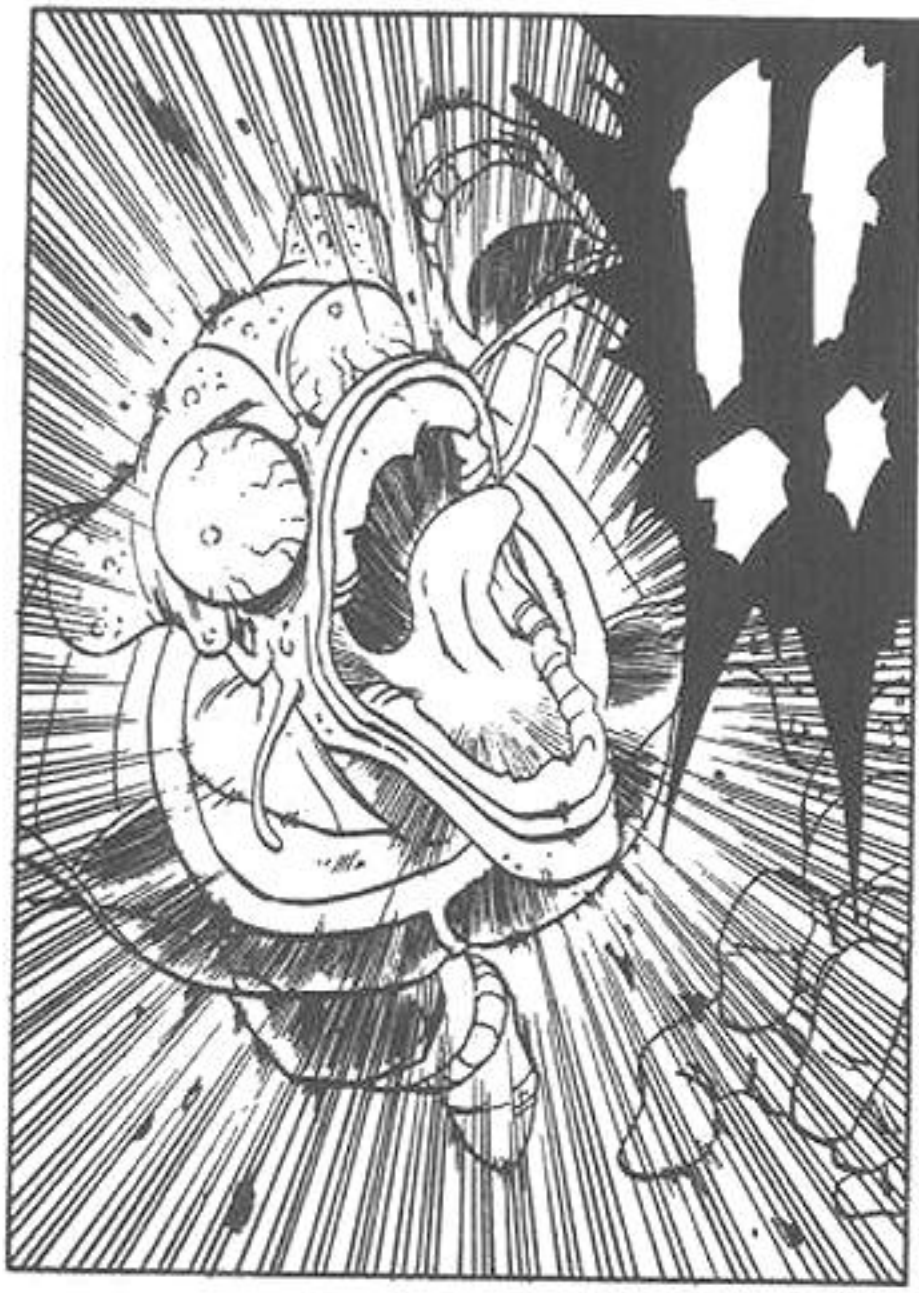
즉, 지금 걸로 넌 나를 완쪤히 뚜껑 열리게 한 거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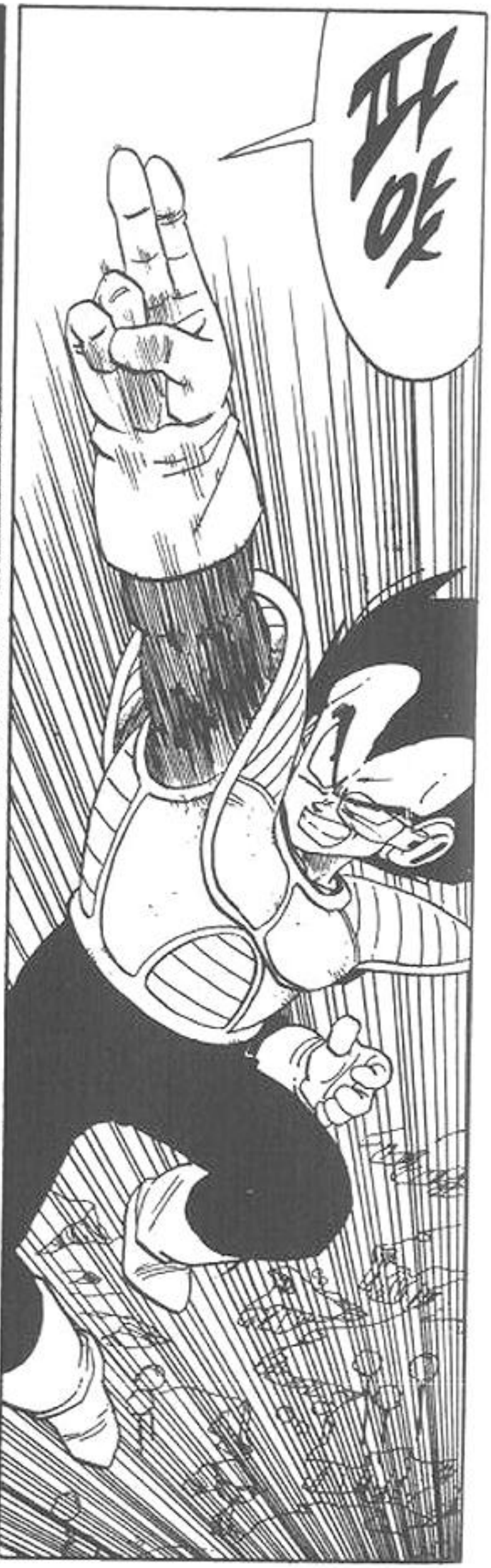
아무리 전투력이 높아도 방심했을 때는 이걸 먹으면 황천행이지!

하하하하! 진짜 꼴 좋다!


감히 도망을 쳐!!
크윽!!
.....
쌔앵
쌔앵
!!
휙
악
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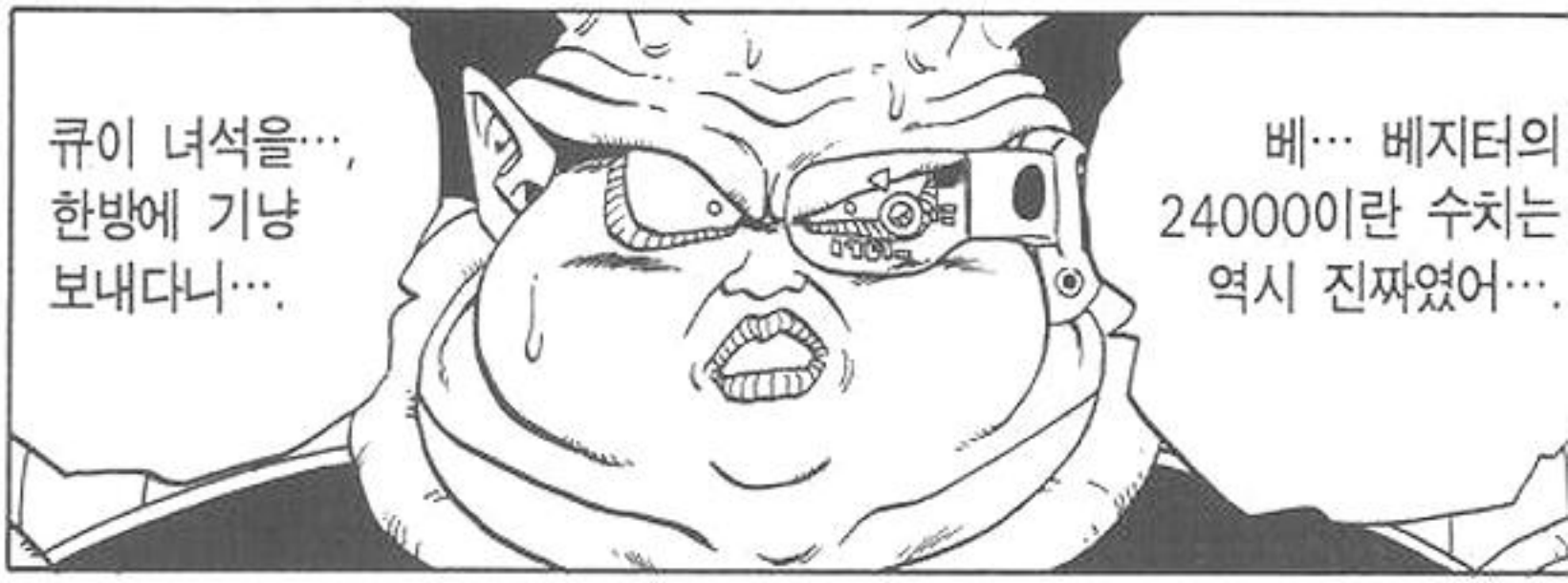

YOMA...




HOE


H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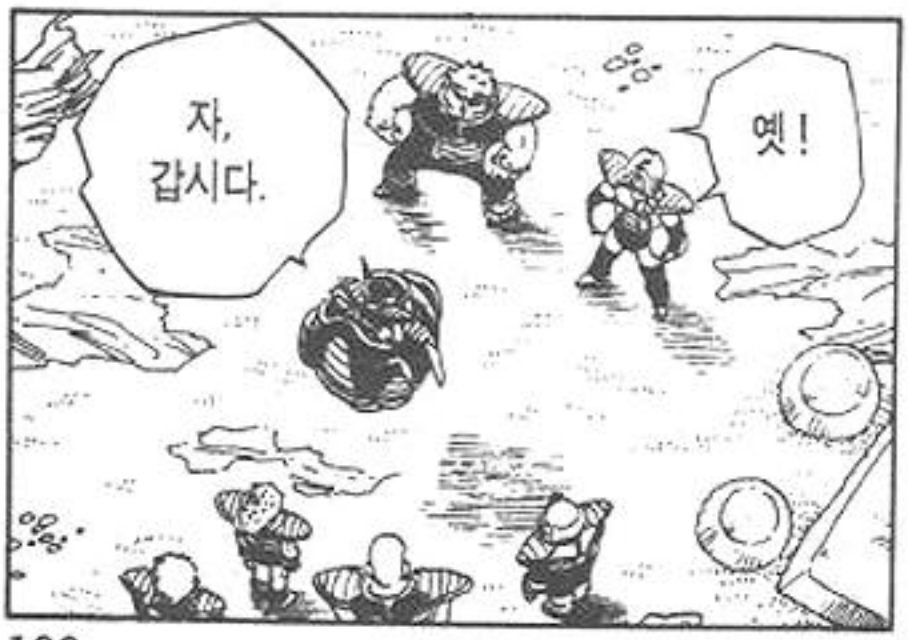
헹!
지저분한 불꽃놀이군.
타탁
프리더놈들은 스카우터로 내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섣불리 접근했다간 따봉과 도도리아는 몰라도….
프리더에겐 절대 이길 수 없어….
스카우터를 통해 들린 프리더놈들의 통신에 의하면 드래곤 볼이란 건 7개를 모아야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좋아…. 나는 하나만 찾아놓자. 놈들이 나머지 6개를 모았을 때 빈틈을 노려 빼앗는 거야….
잘 돼서 7개를 다 모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그럼 프리더를 이기는 것도 꿈은 아냐…!
그놈만 사라지면 내가 넘버원이다!
그러면 전 우주는 사이어인인 베지터 님이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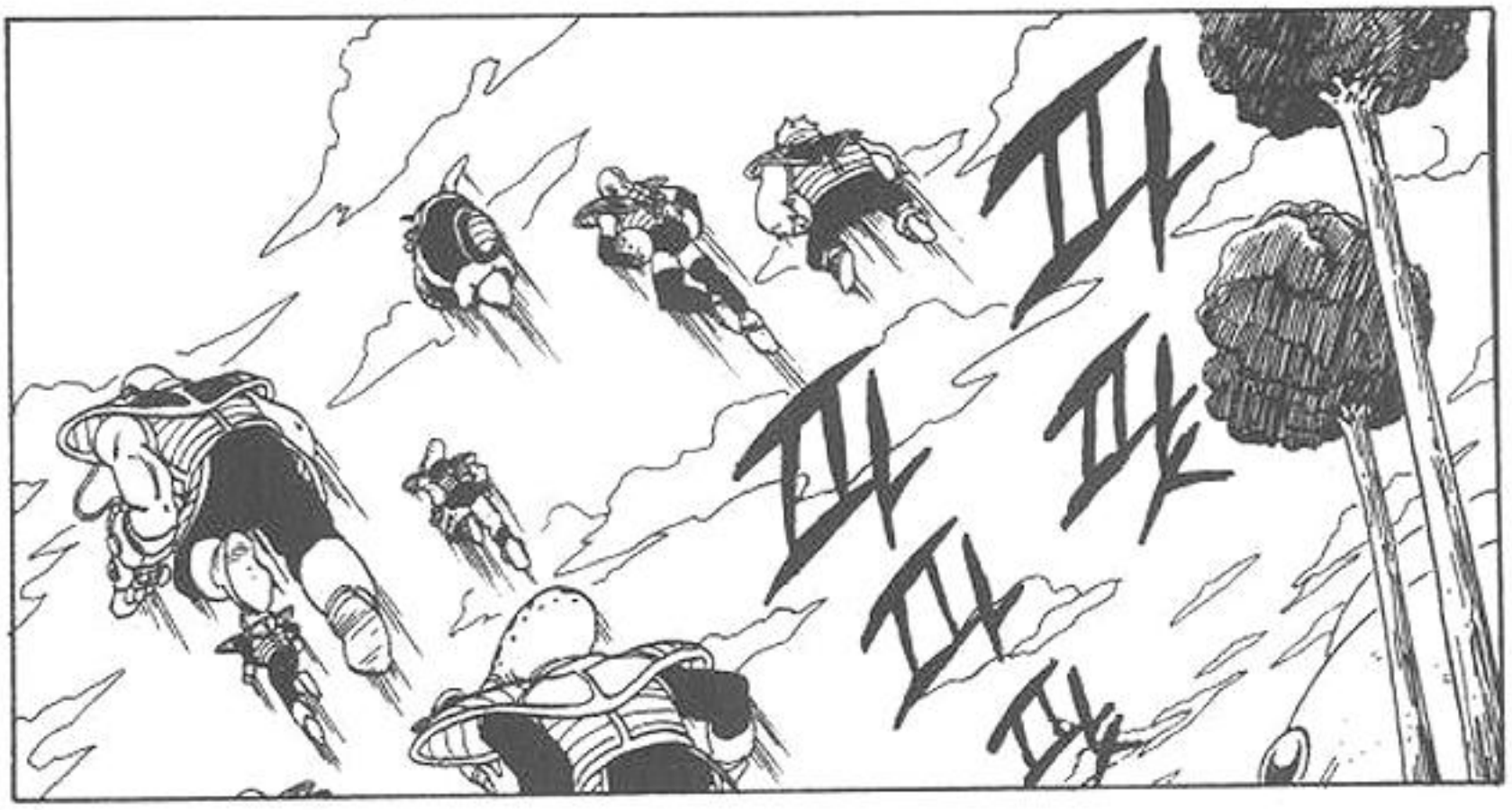

큐이 녀석을…,
한방에 기냥
보내다니….
베… 베지터의
24000이란 수치는
역시 진짜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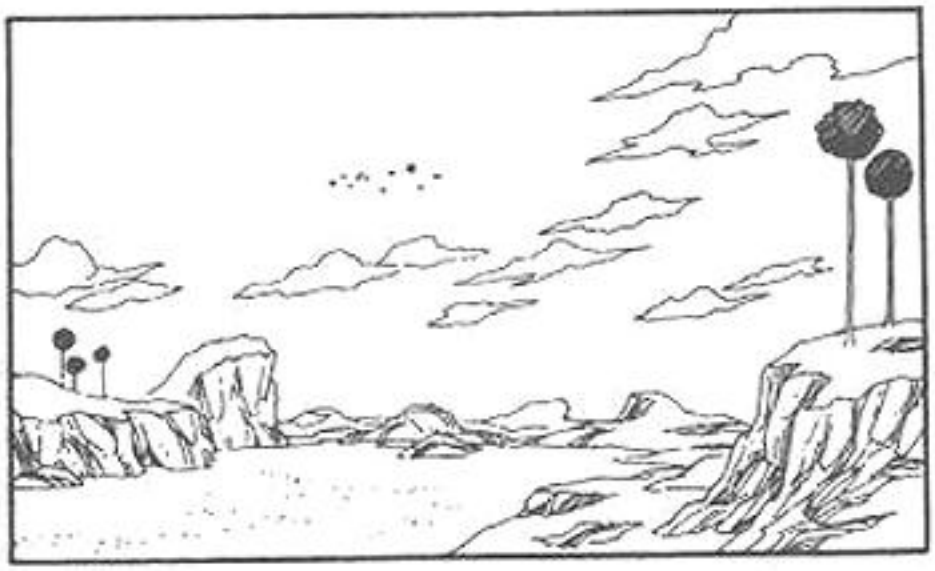

저쪽 방향에
나메크성인
10명 정도의
반응이….
알았습니다.
그놈들이 다섯 번째
볼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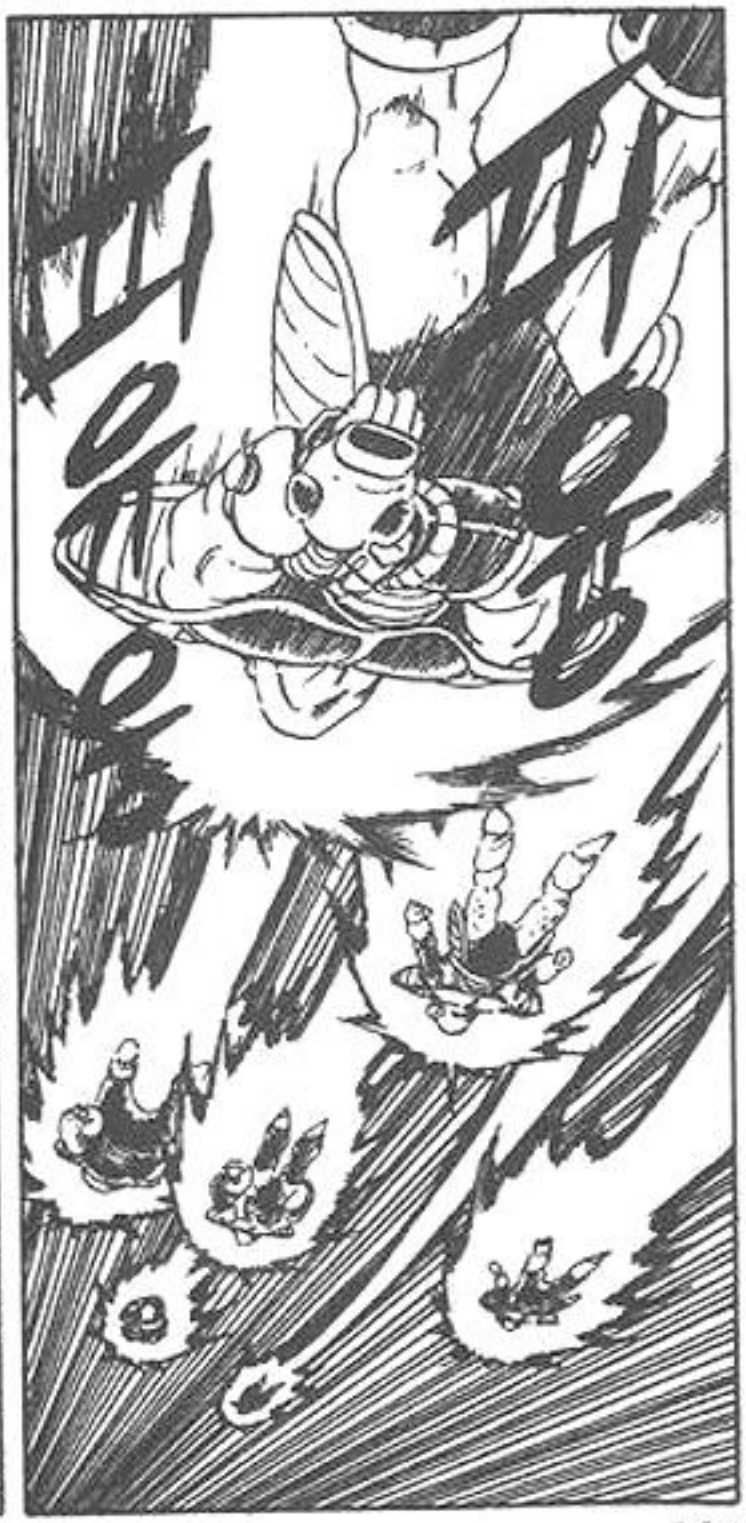

신경쓸 거
없어요.
자, 5번째
드래곤 볼이나
찾읍시다.


베지터 말고도
묘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방심은
하지 마세요.


자,
갑시다.
옛!








너, 너희들 하늘을 날 수 있잖아? 날 데리고 날아줘…!
허허 억억
부르마! 좀 빨리 가자! 이런 데서 들키면 끝장이야….















다음은, 제250화 손오공 부활!!

부르마도 빨리 숨어! 분명히 아까 해치운 놈들이랑 한패다!!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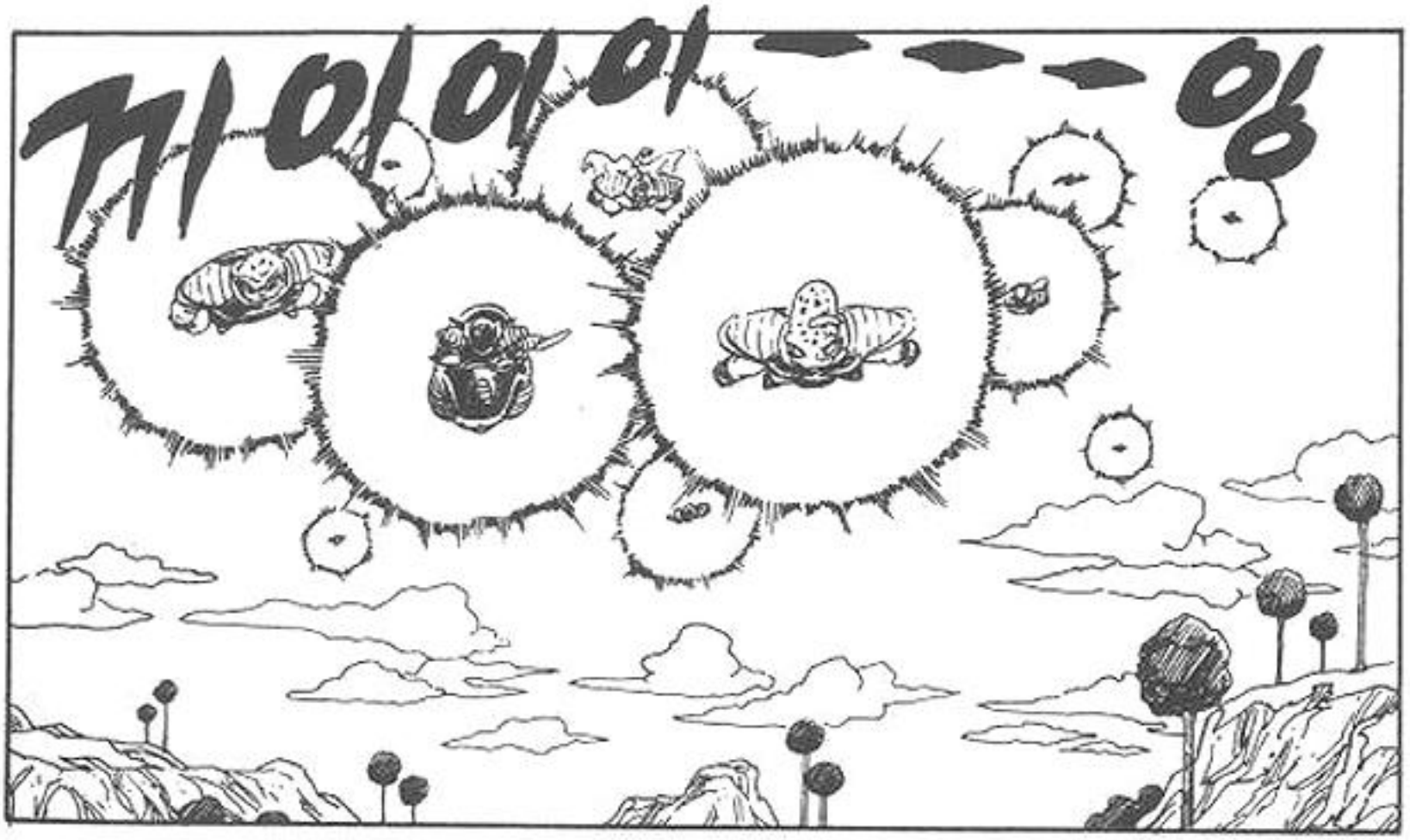
우리를 발견했나…?

쉿-! 조용히! 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늬들은 그런 걸 잘도 아는구나…!

KAMESEN KULILIN


온다!!


끼이이이ㅡㅡㅡ잉


휘이이이잉
휘이이이잉




기이이 - - - - 앙


너무 빨라서 뭐가 원지 모르겠네….
그… 그런데 지금 저건 대체 뭐지?


조… 용
가…, 갔다….
다행이네. 우리들이 표적은 아닌 것 같아…!


드… 드래곤 볼 4개가 모여 있었어…. 그… 그걸 갖고 있는 게 저놈들인지 아닌지….


부… 부르마…. 드… 드래곤 레이더로 확인 좀 해줘….
뭐…, 웰 확인 하라구…?
대체 왜 그래…?


KULILIN
두근 두근


허억
허억
허억

지, 지금 저놈들이 4개의 드래곤 볼을 갖고 있었어!

그, 그래! 틀림없어!

삐잇

삐잇

찰찰 칵칵

으… 으응….

오… 오반, 봤니…? 앞에서 두 번째로 날아가던 못생긴 놈….

봐…, 봤어….

……?

여…, 역시 그렇구나….

KAMESEN KULILIN

무… 무식할 정도로 엄청난 힘이 느껴졌어….

그… 그놈 말고도 강한 놈이 또 있었지만…, 그놈은 차원이 달랐다구….

그… 베… 베지터보다 훨씬 더 엄청날 지도 몰라…. 그… 난쟁이…. 보는 순간에 몸이 얼어붙었는걸….

저… 저런 놈들한테 어떻게 드래곤 볼을 빼앗지…?

제… 제길…!

베… 베지터보다 더 강하다고…? 세상에나…. 대… 대체 어떤 자일까…?

모…, 몰라…. 하… 하지만 베지터와 한패일 거야…. 비슷한 옷을 모두 입고 있었으니까….

그… 그곳 위치는…?

어… 어떻게 된 거지…!? 놈들도 레이더를….

지금 그놈들, 여기 있는 드래곤 볼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고 있어…!

이거 …

저… 저기!

찰칵 찰칵…

KAMESEN KULILIN

내가…, 거기 가서 정찰하고 올게…!

나도 갈래!

아… 아까 크리링 아저씨가 나메크성인이 분명한 거란 기가 느껴진 곳이네….

그래!

이… 이쪽 방향으로 약 14km야….

그럼
무천도사 님이나
사람들한테
이곳 일을
연락해줘.

그…
그러고 보니
그러네….

……

아, 알았어.
캡슐로
이 동굴 안에
집을 만들어놓고
기다릴게….

여기가
훨씬 더
안전할
텐데….

자, 잠깐만!
나, 나만 여기
두고 갈 거야!?

그래,
알았어.
조심해!

오반!
가능한 한
기를 억제하면서
빨리 가자!

할 수
있지?

예!

슈슈

슈슈슈슈

슈파파팟
파팟

한편,
지구에서
계속 입원 중인
오공은….

욱!

큭!

욱!

큭!

얏!

아!

서,
선생님…!

진짜 못말려….
대체 몇 번 말해야
알아 듣겠나!
계속 이러면
평생 퇴원할 수
없다구!

어흠!

또 그렇게
무리한
짓인가,
손 군!


간호하던 부인은?
따분하다며 쇼핑하러….


미… 미안해요.
우주인이랑 싸웠다느니 뭐니 하는 잠꼬대는 못읻겠지만, 자네는 아무튼 엄청난 중상을 입은 몸이야.


저기…, 근데 찌찌는 없니?
아, 좀전에 나갔는데.


앗! 선생님, 이거 실례합니다.
좀 어떠냐, 오공…?


까악!!
무사히 나메크성에 도착했나?
오공아, 사실은 두 시간 전 쯤에 부르마 애들한테 연락이 왔어.
더듬…


땡큐.
마침 잘됐다….
아, 이건 선물로 카스테라다. 먹어.

그러나 ….

오공아, 부르마 애들은 분명 무사히 나메크성에 도착했어….

아하, 지금 제가 뭔 짓 했소?

요즘 나이 때문인지 때때로 나도 잘 모르는 행동을….

……

그, 그놈이!?

베지터!?

베지터라고 하는 그 사이어인…, 놀랍게도 그놈도 거기 온 것 같아…!

나메크성에 간 것은 부르마 일행 뿐만이 아니었어….

나메크성에는 베지터 말고도 10여명이나 되는 놈의 동료들이 있는 것 같아. 우주선은 놈들이 파괴해서 지구로 돌아올 수도 없대….

그뿐만이 아니야…. 방금 거북한테 무선 연락이 왔는데…. 부르마 일행의 새 연락을 받은 것 같아…. 그 연락은….

서…, 설마….

게… 게다가 적어도 그 중 한 명은 베지터를 초월하는 훨씬 강한 기를 가졌다더라….

뭐… 뭐라고…!?


뭐야? 간만에 왔는데 똥씹은 얼굴들 하고.


안뇽!
아직 안 죽었냐?


선두가 겨우 다 익었어. 양은 적지만.
카린 님이 열린 선두 7개를 네게 갔다 주랬어!


자!
쩌어
다, 당신! 이럼 안 되지! 환자에게 이상한 거 먹이면!


진짜!? 만세! 진짜 굿 타이밍이다!
빠, 빨리 먹게 해줘!


씨아


꿀꺽


오물오물


탁
잉!?
팟
이때를 기다렸다!!
이거, 계왕님이 저승에서 보내줬어! 내 도복!

나…
나메크성에…?
어, 어떻게
가려고!?

미안!
남은 선두는
내가
가져간다!

나,
나메크성에
갔다올게!

좋았어!

헤헤~!
부르마 아버지가
병문안 왔을 때
부탁해 뒀거든!

만약을 위해
우주선을
만들어
두라고!

그…
그럼….

그랬구나!
신님 거랑
같은 걸로?

아니, 그건
지구에는 없는
재료를 써서
부르마 아버지도
무리래.

내가 잘 생각해
봤더니
사이어인의
우주선이 아직
두 개 남아
있다는 뻘이
오더라구!

내 형이
타고 온
것과….

내가
나 자신이
어렸을 때
타고 온 것!

나메크성까지
6일이면
갈 수 있다구!

그걸
타면….

마…,
맞아!

부르마
아버지에게
찾아 달라고
했지.

형 우주선은
같이 폭발해 버렸지만,
내 것은 옛날 거라서
오히려 무사했어!
그걸 고쳐서 개조해
달라고 했지!

히익!

그럼
도우러
갈게!

휘익

근두운-!!

부르마
집으로
가줘!

샤앙

그,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왜 저놈은 신나서 방방 뜨지…!?

엑—!?

이러저러 해서 어쩌구 저쩌구…

사… 사실은…

도우러 간다니…, 대체 뭘?

……

친구들을 구하고 싶다는 건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강한 자와 싸울 수 있다는 기쁨 같은 거겠지….

글쎄…, 역시 사이어인의 피 때문일까….

이길 가능성이 완전 빵인데….

쟤… 쟤는 역시 맛이 간 놈이야…. 도저히 친해선 안 되겠다…. 완죤히 정신병자야…!

베지터보다 강한 무시무시한 놈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

다음은, 제251화 손오공의 우주선

카린 님이 새로
재배한 선두도
7알이 열려,
덕분에 오공의
부상도 완전히
나을 수 있었다.

나메크성으로 간 크리링과
부르마, 오반들의 위기를 안 오공은,
이런 일을 예상하고 미리 미리
개조를 부탁해둔
사이어인의 우주선을
타기 위해 부르마의 집으로
향했다.

CAPSULE CO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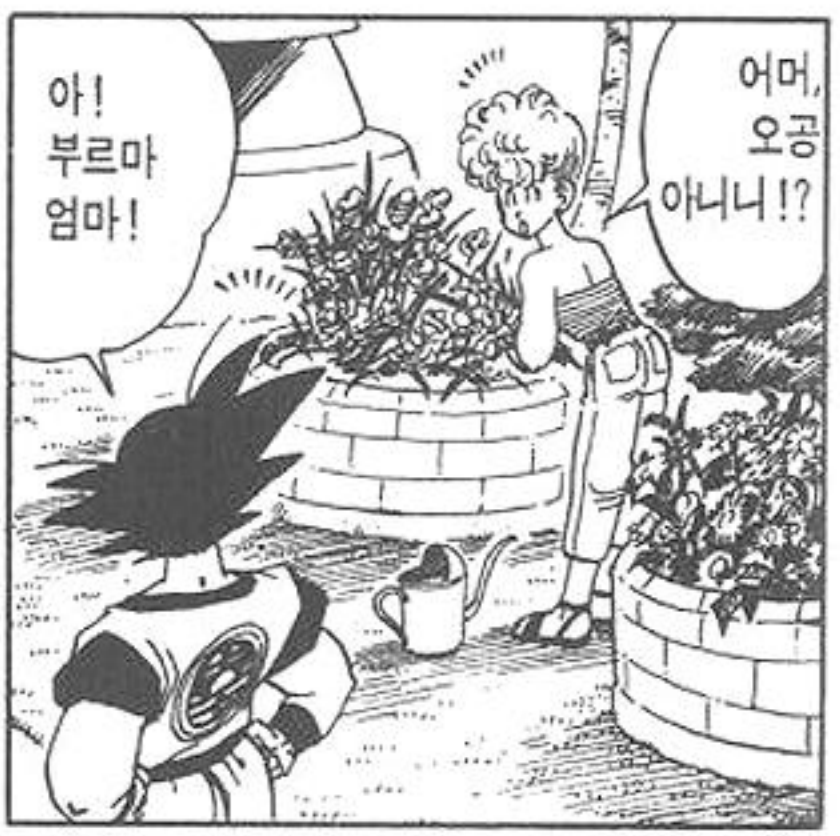
탁

다
됐을까나?

휘 잉


집안에서?
어디서 만들고 있지…?


어머, 어머, 어머! 벌써 다 나았어?
응, 보시는 대로!


어머, 오공 아니니!?
아! 부르마 엄마!


엑!?
아, 아직도!?


부르마 아버지에게 부탁해둔 우주선 개조작업 다 됐을까?
글쎄다. 아직 뭔가 하고 있던데…, 어쨌든 따라와봐.

근데, 그 꼬맹이 오공이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다니~!

……

사이어인이란 사람을 헤치운 다음 우리 식사라도 하자!

아차차! 전에 봐둔 멋진 제과점이 있어. 내가 한턱 쏠게! 모두 오공들 덕분이야! 지구가 없어졌다면 먹을 수 없었을 테니까! 정말 다행이야~!

하하….

여보-! 오공이 왔어요!

어!?

야~!

이건가!?

아…, 어서 와!

벌써 나았니!? 선두란 게 진짜 직빵으로 효과가 있긴 있구나~!

저기-, 이게 개조한 거 맞지!?

완성이 안 됐어!?

CAPSULE CORP.


아,
부탁해.
음료수라도
가져올게.
가는 김에
푸알도
불러올까?


뭐 잠깐
들어와서
구경해봐.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완성인데….


모든 게
주문대로야.
그 형편없이
작던 우주선이
이렇게
되다니~!
우와~!
엄청
넓다!


근데 정말
사이어인의
과학력은
너무 놀라운
수준이야.
나 고생
많았다. 거의
전체를 다 뜯어
고쳤으니까.
이 정도면
열심히
수련할 수
있겠네.

이게 인공중력의 스위치야.

그리고 이게 네 주문대로 최대 100G까지 중력을 만들 수 있지만….

인공 중력장치라는 건?

아, 다 됐어. 이게 그거야.

네가 아무리 강해도 이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100G라면 60kg 체중이 무려 6000kg이 되어버린다구! 6톤이야!

보통 사람은 맛이 가.

괜찮아. 그 정도도 안 하면 사이어인한테 이길 수 없거든.

목욕탕, 화장실, 부엌, 그리고 침실은 저 사다리를 내려가서….

아, 아니! 그럼 아직 또 뭐가 완성 안 된 거지!?

그런데, 이거 아직 날 수 없어…?

날 수 있지! 데이터는 이미 다 인풋 시켰으니까. 스위치를 그냥 누르기만 하면 6일 후에는 나메크성에 도착한다.

스테레오 스피커의 위치를 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무래도 좋은 음질로 듣는 게 낫지?

그, 그것뿐야!? 그럼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그것뿐이냐구!?

그것뿐? 자네!

최고의 음악을 듣기 위해선 반사까지 생각해야 돼. 스피커 위치는 최대로 까다로운 문제야.

그건 상관 없어!

나 지금 당장 출발할래!

뭘 그리 서둘러? 스테레오를 포기할 만큼 중요한 거야?

부르마한테 통신이 왔어! 세 사람이 간 나메크성에 지난 번의 사이어인과 그 일당들이 있대! 게다가 우주선도 망가지고!

뭐시라…!

그거 정말 큰일났네.

어서 나한테 이걸 조종하는 법 좀 가르쳐줘!

알았어! 근데 정말 스테레오는 없어도 되겠니?

CAPSULE CORP.

어디….

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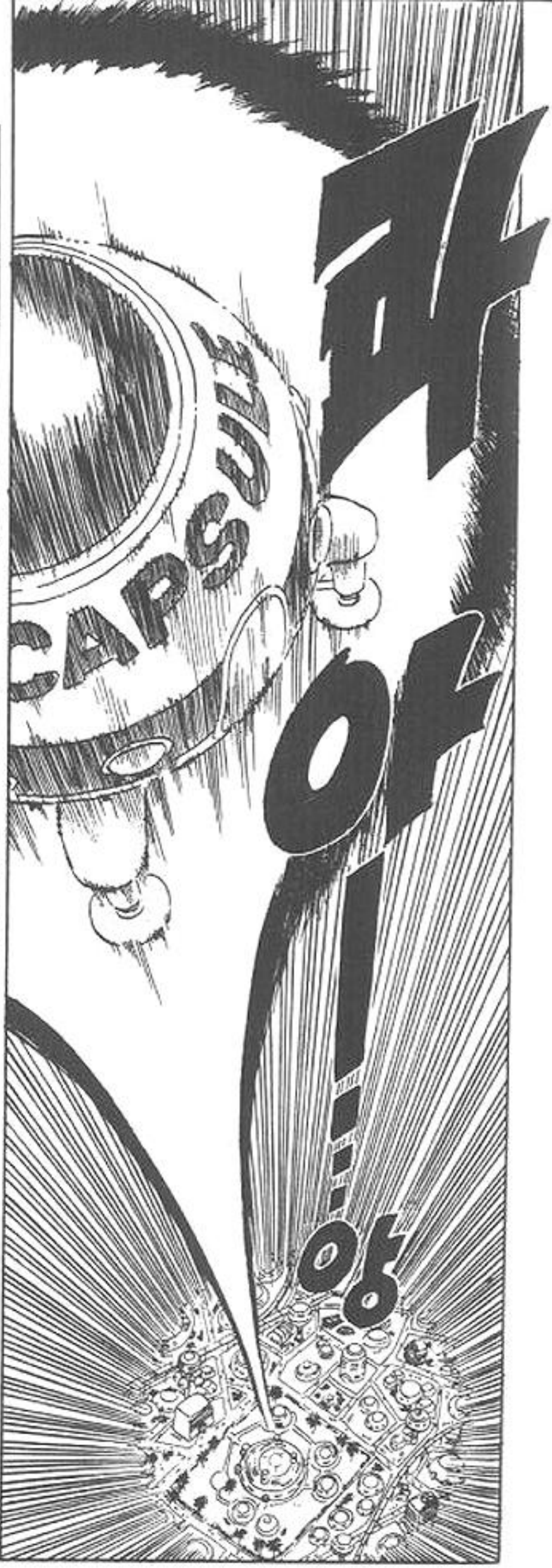
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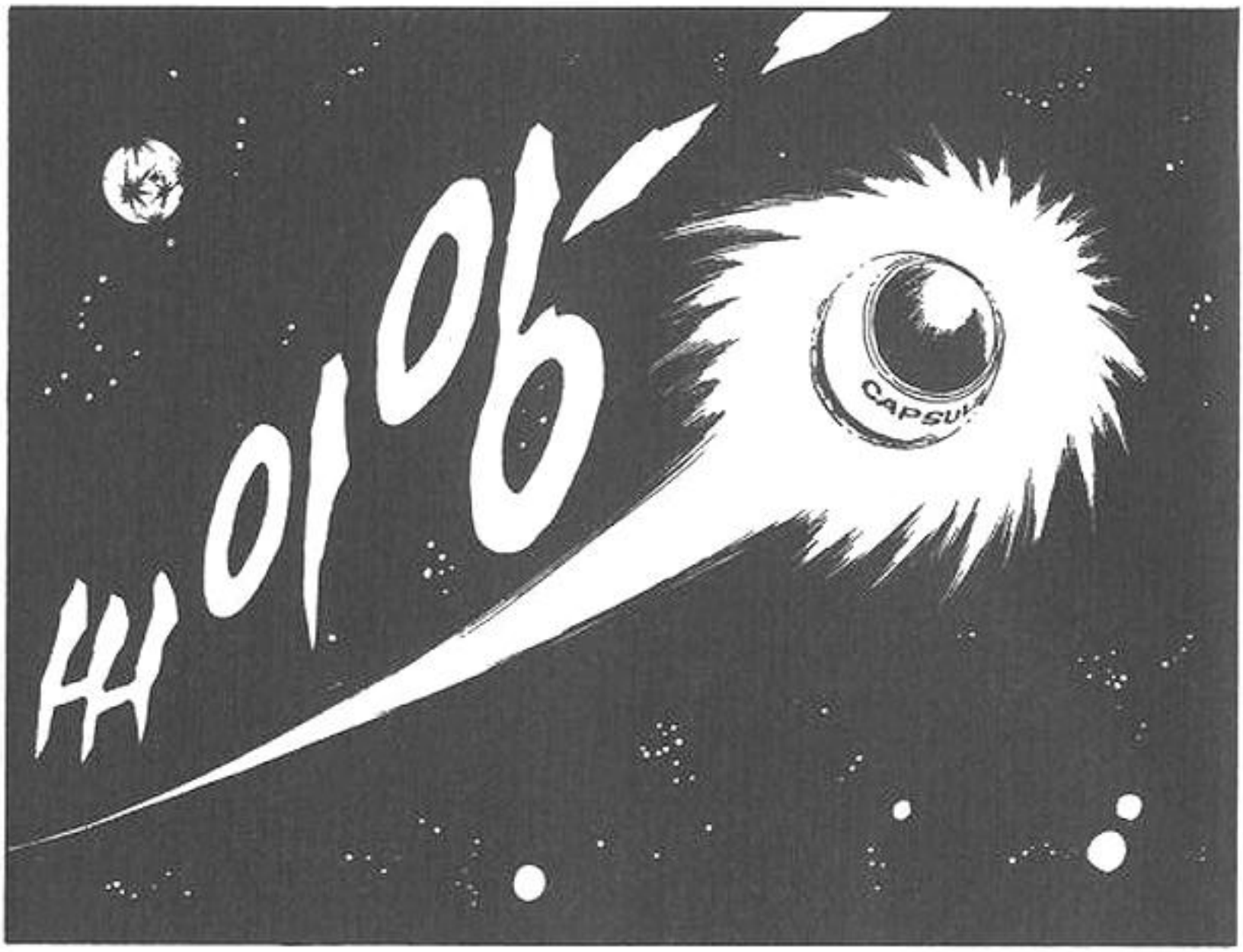
아!!


급하게 만든 거에 비해선 성능 죽인다!
와아!


음, 바쁘다고 서둘러 가버렸어.
혹시 지금 그 소리….
어, 어라!? 오공은!? 우주선은 어딨죠!?


무슨 일이 생겼나…?
진짜 예의도 없는 놈…. 인사 정도는 하고 가야지.
어라?


CAPSULE
OFF
06


CAPSUL


후우…! 이거 정말 빠르다~!
그런데…, 우주란 거 너무 캄캄해. 지금 밤이라서 그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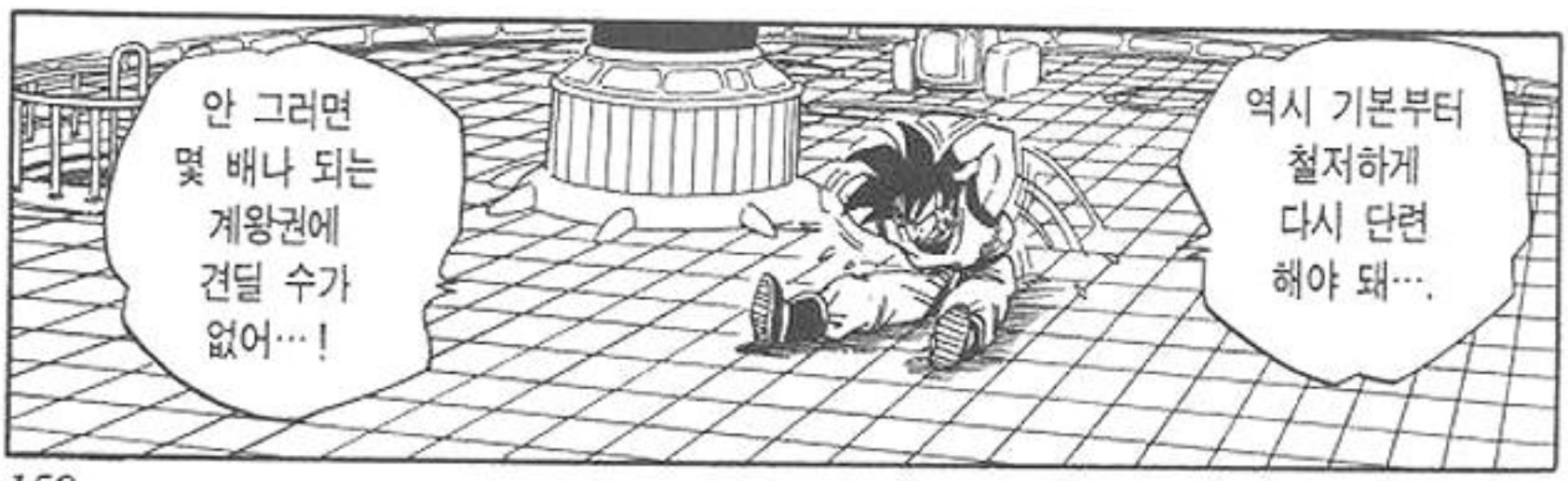

뭐, 상관 없어. 빨리 수련이나 해야지!
붕붕
겨우 6일만에 도착하는 건 고맙지만, 그때까지 그 베지터 놈을 능가하는 힘을 키워야만 하는 건 좀 벅찬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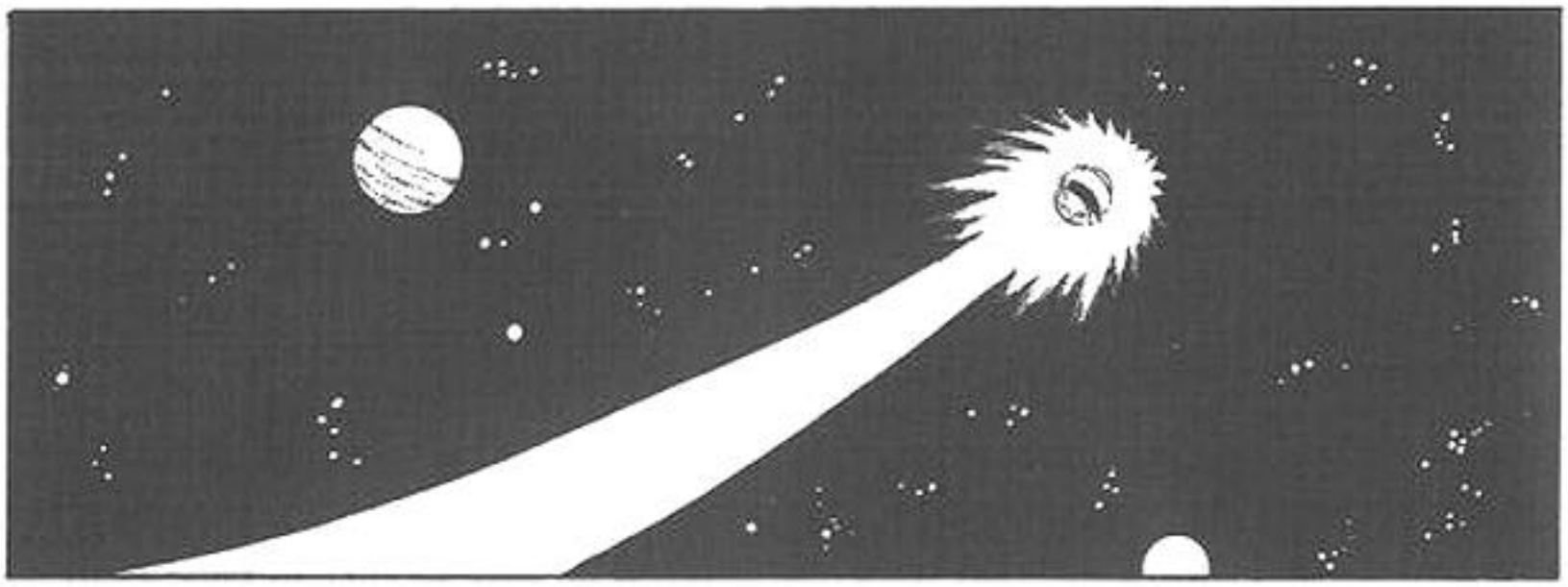

우악!!
쿠쿠


우선 20배 정도부터 익숙해지도록 시작해볼까…?
자…, 계왕님이 있던 곳은 중력이 10배라고 했었지….
삐삑 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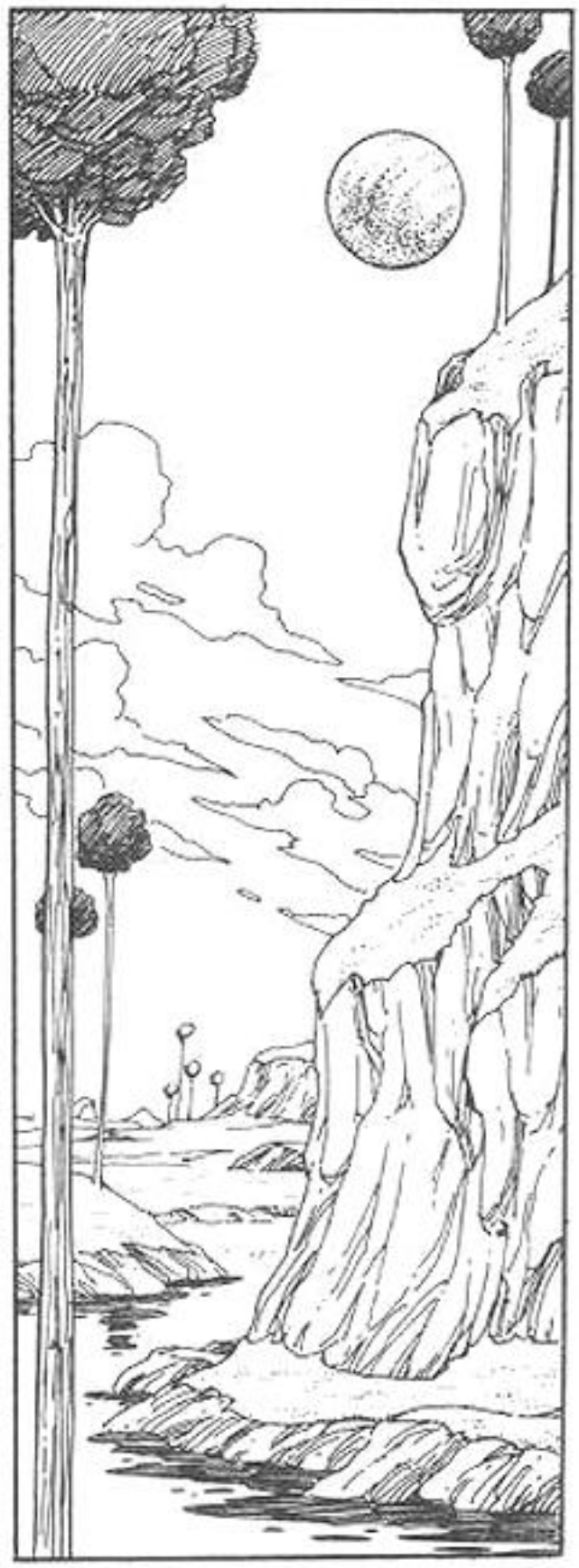

헛둘!
헛둘!


과, 과연 죽여준다…!
끄~응!
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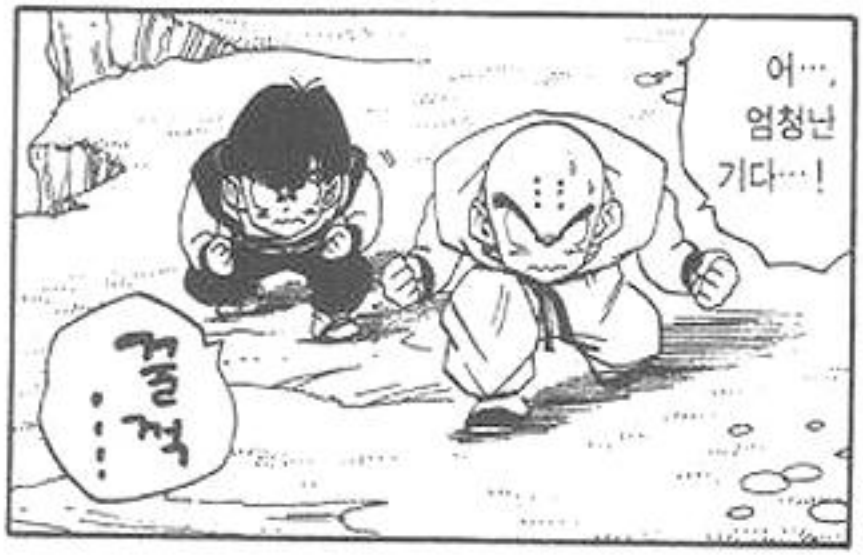

안 그러면 몇 배나 되는 계왕권에 견딜 수가 없어…!
역시 기본부터 철저하게 다시 단련해야 돼….




촤아악
촤촤촤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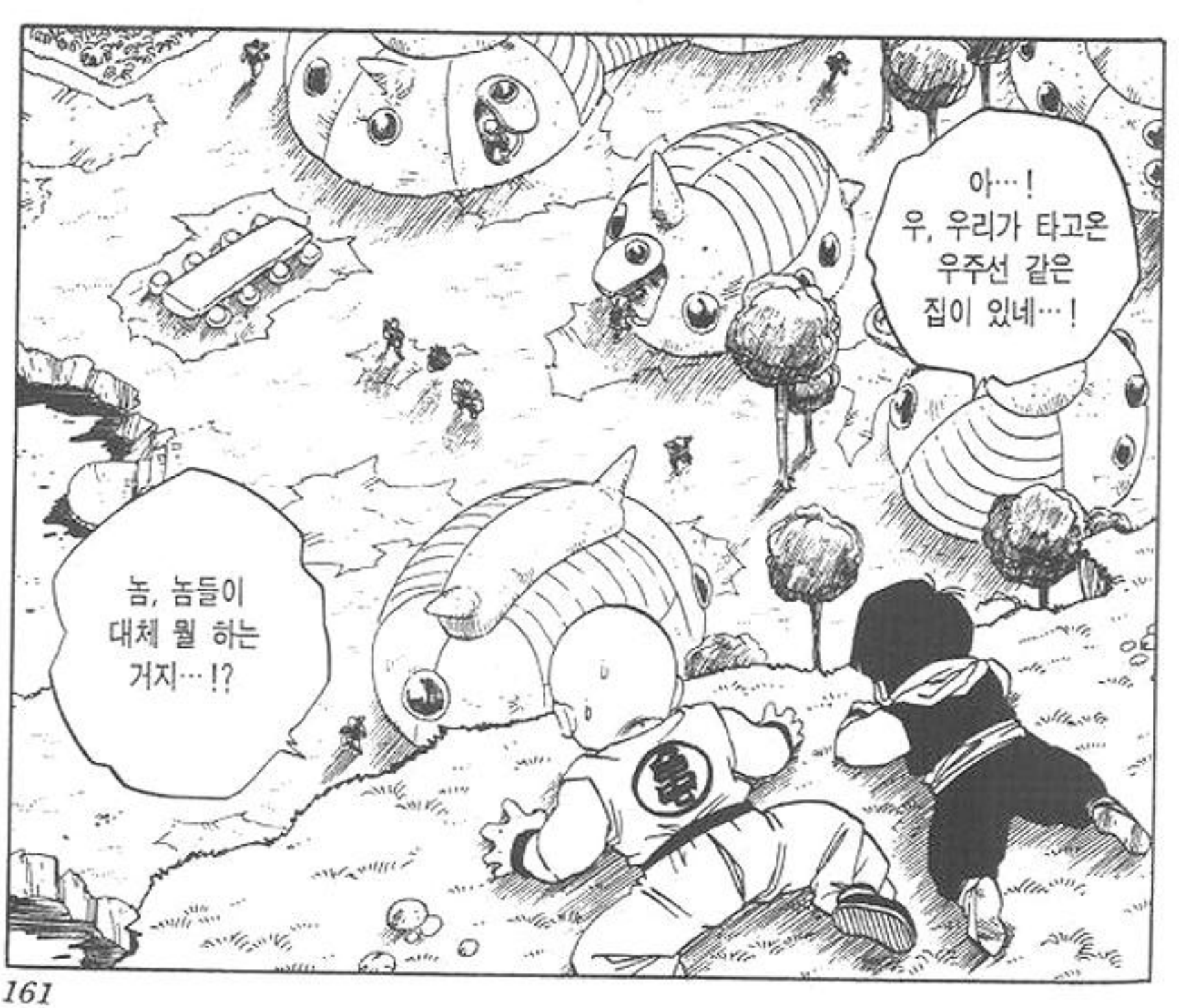



예!
가깝다!
다 왔어!
기를 완전히
지워라! 걸어서
접근하자!


어…, 엄청난 기다…!
놀적…!


빠꼼…


저 벼랑 건너편이야…!


아…! 우, 우리가 타고온 우주선 같은 집이 있네…!
놈, 놈들이 대체 뭘 하는 거지…!?

다…
다른 놈들은
제쳐두고
저 세 놈….

트…, 특히
저 동그란 걸 타고
있는 놈….
진짜 무자게
강한 기다….

!!

엉?

사삭

앗…!
저, 저 양쪽에 있는
두 녀석 손에 들고
있는 걸 봐…!
드, 드래곤 볼이다!

과…,
굉장히 큰
드래곤
볼이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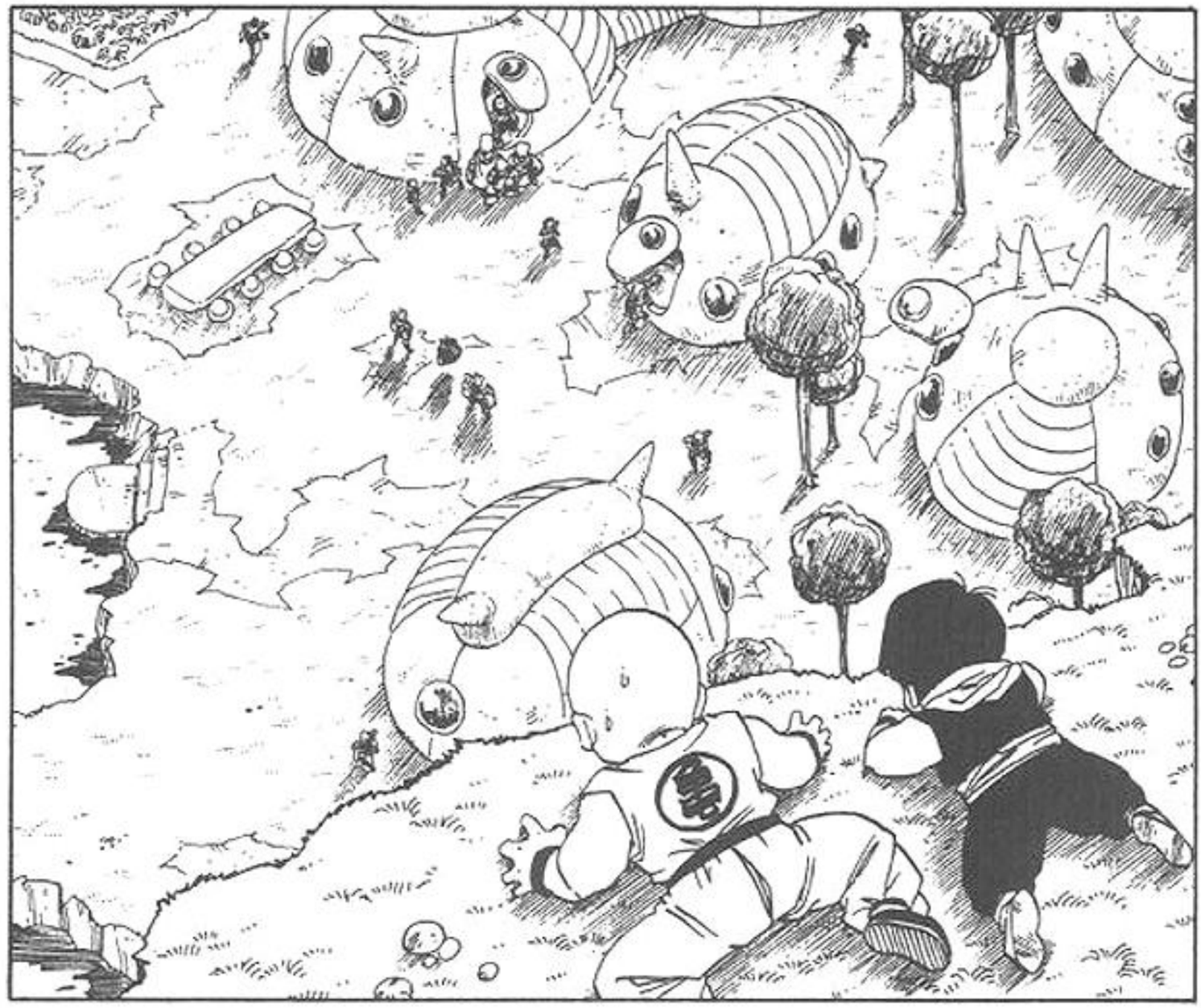








다음은, 제252화 공포에 떠는 나메크성인




꾸물거리지 말고!
이놈들, 좀더 앞으로 나가!

분명 살아남은 사이어인은 베지터 혼자 뿐일 테니까….

아니, 틀려…. 전투복은 똑같지만, 사이어인이 아니야….

오공과 너를 빼면….

크… 크리링 아저씨…, 저놈들 모두 사이어인이야?

저… 저놈들, 나메크성인을 어쩔 셈이지…?

그리고 보니 오공의 형이란 놈이 이런 얘길 했어. 「환경이 좋은 별에 사는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다른 별 사람들에게 판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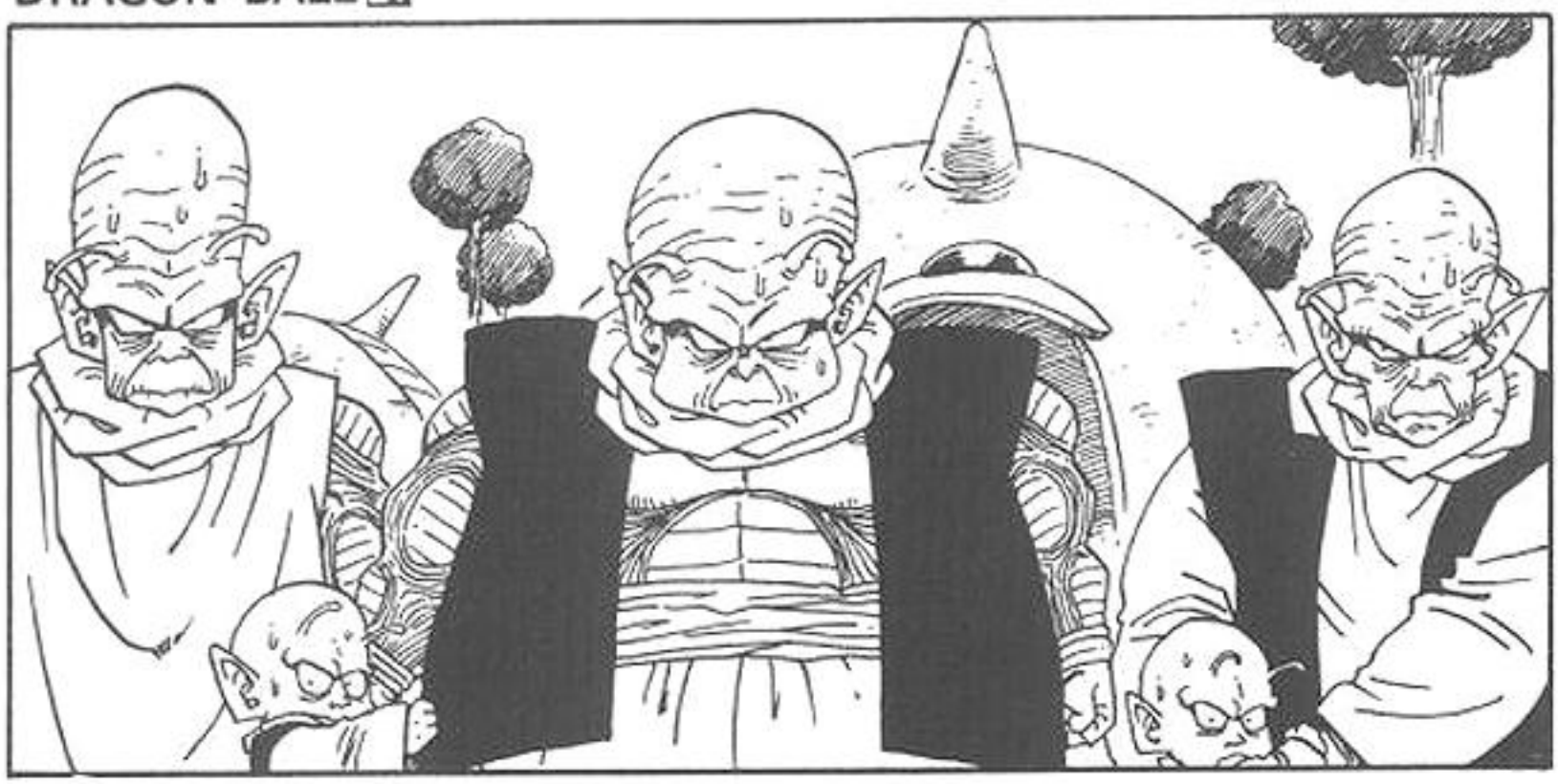
혹시 저놈들도 그 한패일지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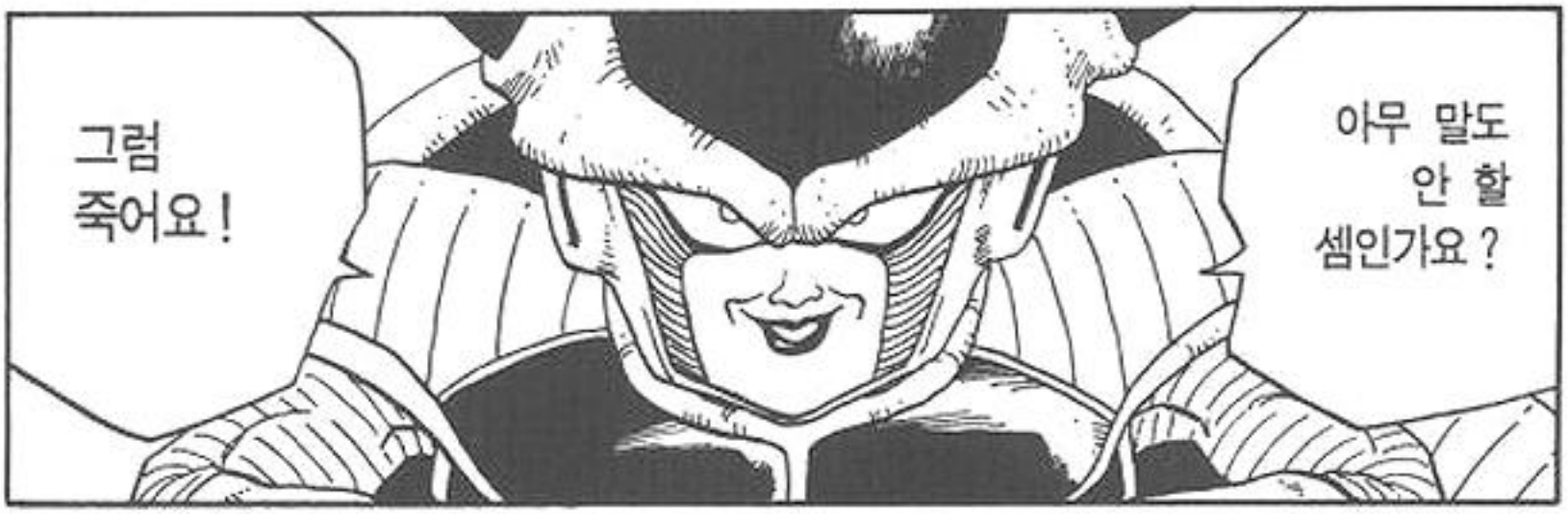
그…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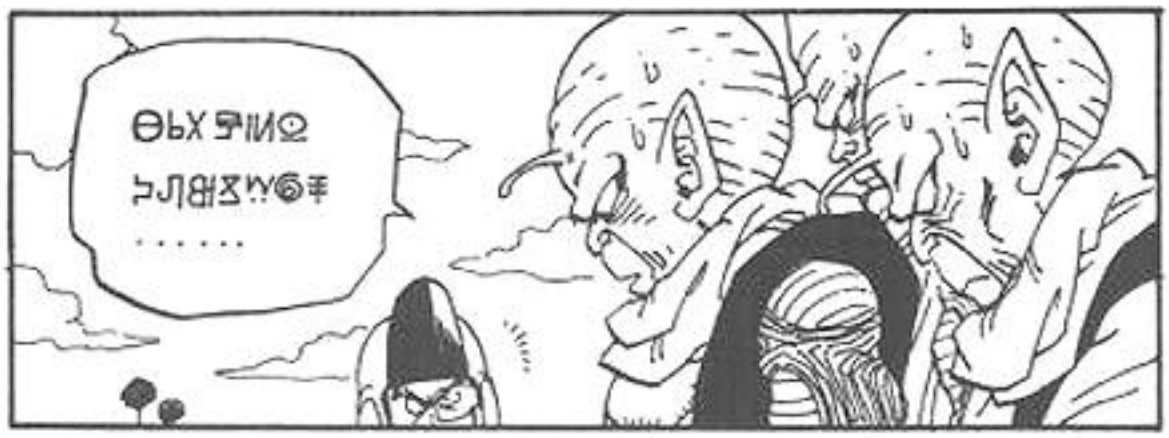
그런데 베지터 녀석은 없는 것 같아…. 다른 곳에서 드래곤 볼을 찾고 있나…!?


!!
!!
.....
크으….


보시는 대로
나는 당신들의
드래곤 볼이란 걸
모으고 있는
프리더란 사람이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간 거죠?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10명은 있을 거라던데…?




그럼
죽어요!
아무 말도
안 할
셈인가요?


……


……
!


후후….
나메크어 말고
우리들도 아는 말로
지껄이세요.
말할 줄 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은
밭일하러 나갔다….
남아있는 건 우리
노인과 애들뿐이야….

……

……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모… 모른다.
그런 건
없어…!

드래곤 볼은
어디 있나요?
여기에도 하나
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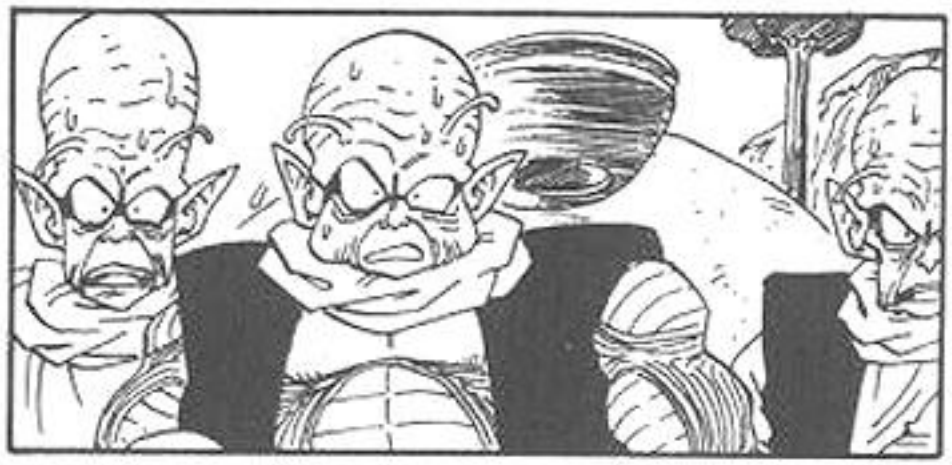
그럼
계속해서
대답하세요.


후후후….


그래, 그래. 그 사람
너무 고집이 셌지.
전혀 협조를 안 해줘서
본보기로 한 명을
저승으로 보냈더니….


예, 분명….
드래곤 볼은
인정받은
용사에게만
건네준다라고….
도도리아 씨!
분명히 두 번째로
죽인 나메크성인이
재미있는 말을
했었죠?


뭐…
뭐야…!?




드래곤 볼을 만든 건 이 별의
최고 장로로, 각각의 7개는
이 별에 사는 7명의 장로에 의해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고….
그 장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지혜를 겨루거나, 힘을 겨루거나,
소원의 이유를
이야기하거나….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장로에게 용사로
인정받아야만
겨우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같군요.

그렇지만 저는
얘기대로 하려 했는데,
근데 절대 내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
결국 보내버렸어요.
첫 번째 볼을
구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으…!

무슨
잡소리냐…!

나머지 3개는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모두들 너무
순순히 주더군요.

과연….

그렇게
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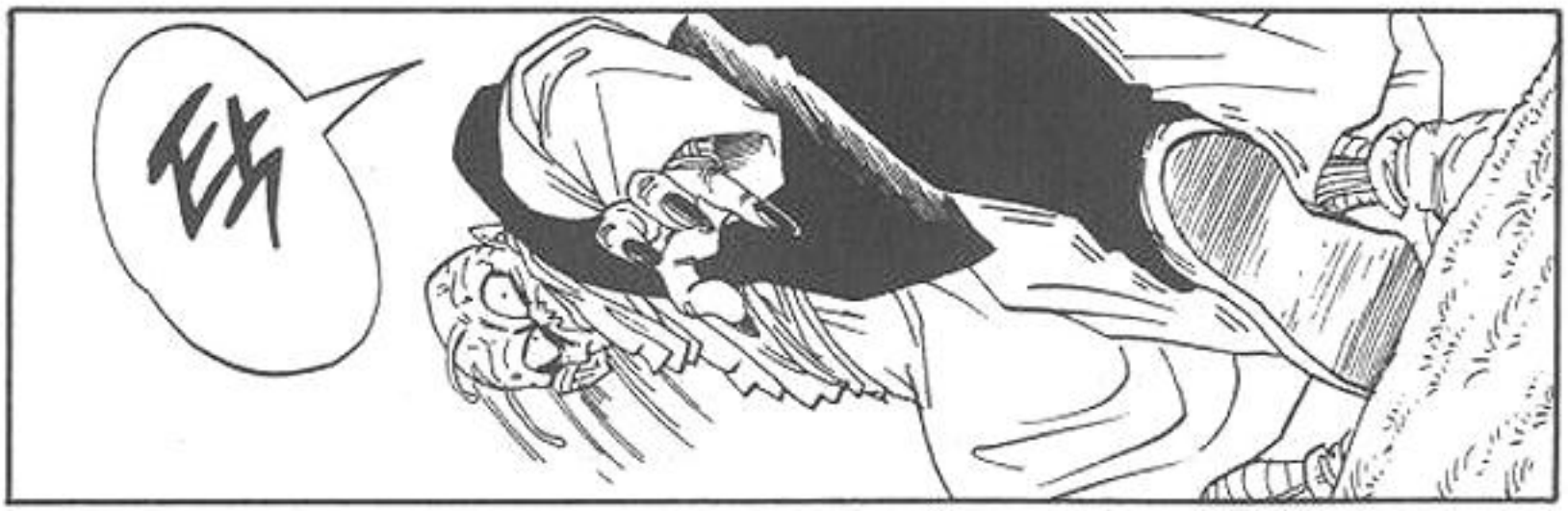

다른 장로들이 너 같은 놈한테 순순히 졌을 리가 없어….
그… 그래…!
수, 순순히 라고…! 너무 뻥이 심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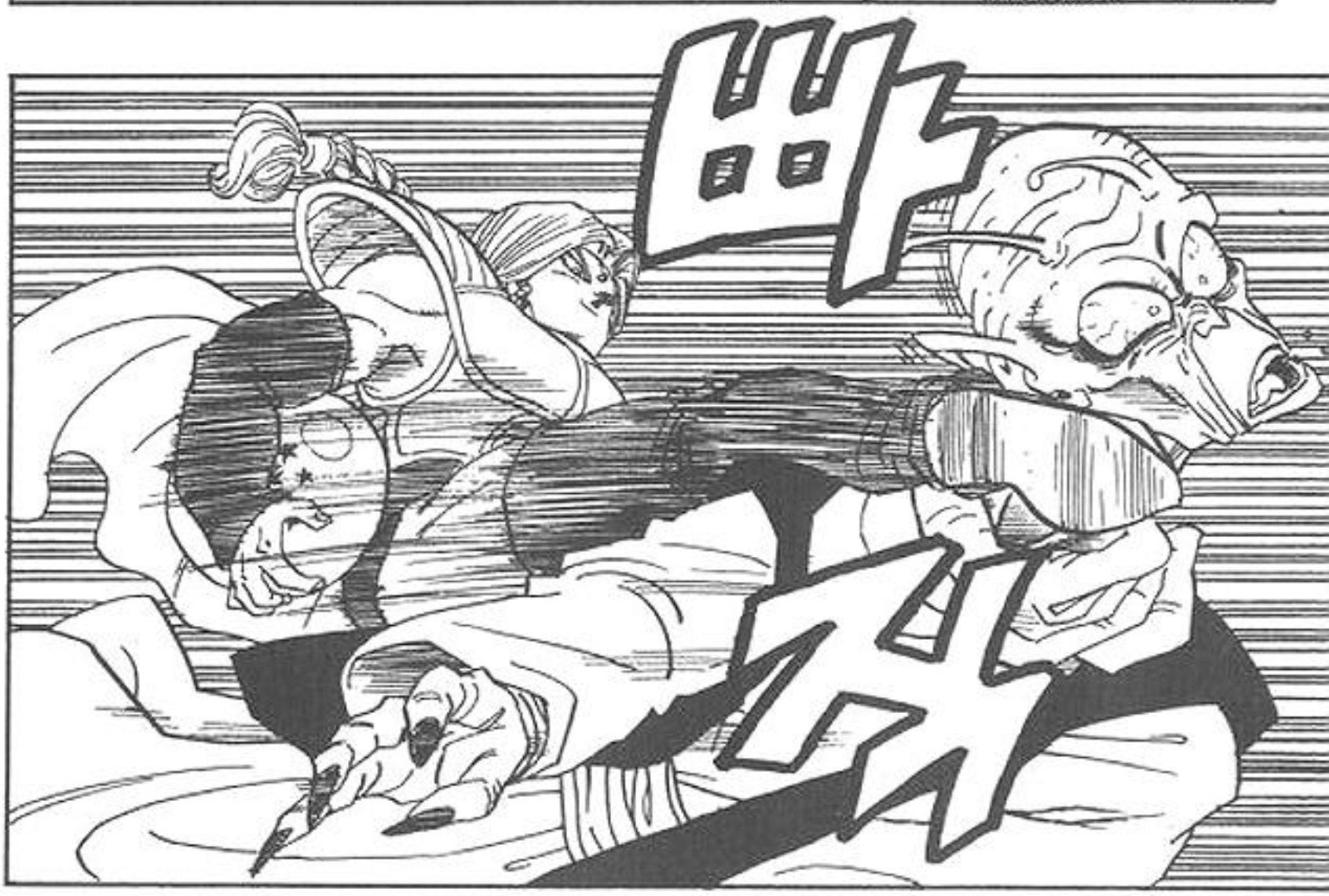

예!
따봉 씨! 보여드려요.


아니, 아니. 이렇게 했더니 고분고분 해졌어요.






헉


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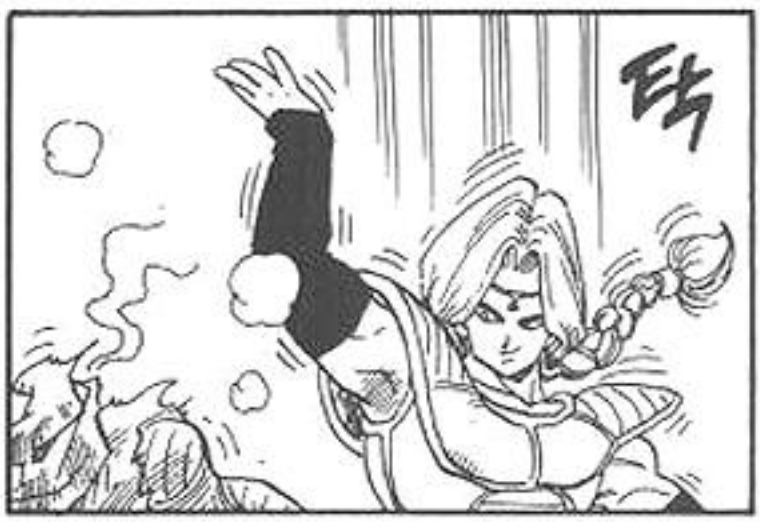

아니!?
털썩

비, 비켜!!

이, 이놈~!

으악!!


컥…!


탁


사
삭


콰
아
앙

조금은
고분고분
해지겠나요?

어때요?

너…
너무해.

지…
지독한
놈들.

드… 드래곤
볼을 모으는
목적은….

……

그냥 뭐,
조그만 소원이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좀 받고
싶어서요.

나…
나도 잘
몰라….

베지터랑은
같은 편이
아닌가…?

그… 그럼
베지터는….
그…
그 녀석도
영원한
생명을…

뭐…
뭐라고
…!?

죽어도
드래곤 볼은
줄 수 없다….

너희 같은
놈들에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건가요…?

호호호…. 우리에게 주느니….

이, 이놈들! 애들까지…!

뭐, 뭐야!?

과연…. 역시 이 별 여러분들은 고집이 센 것 같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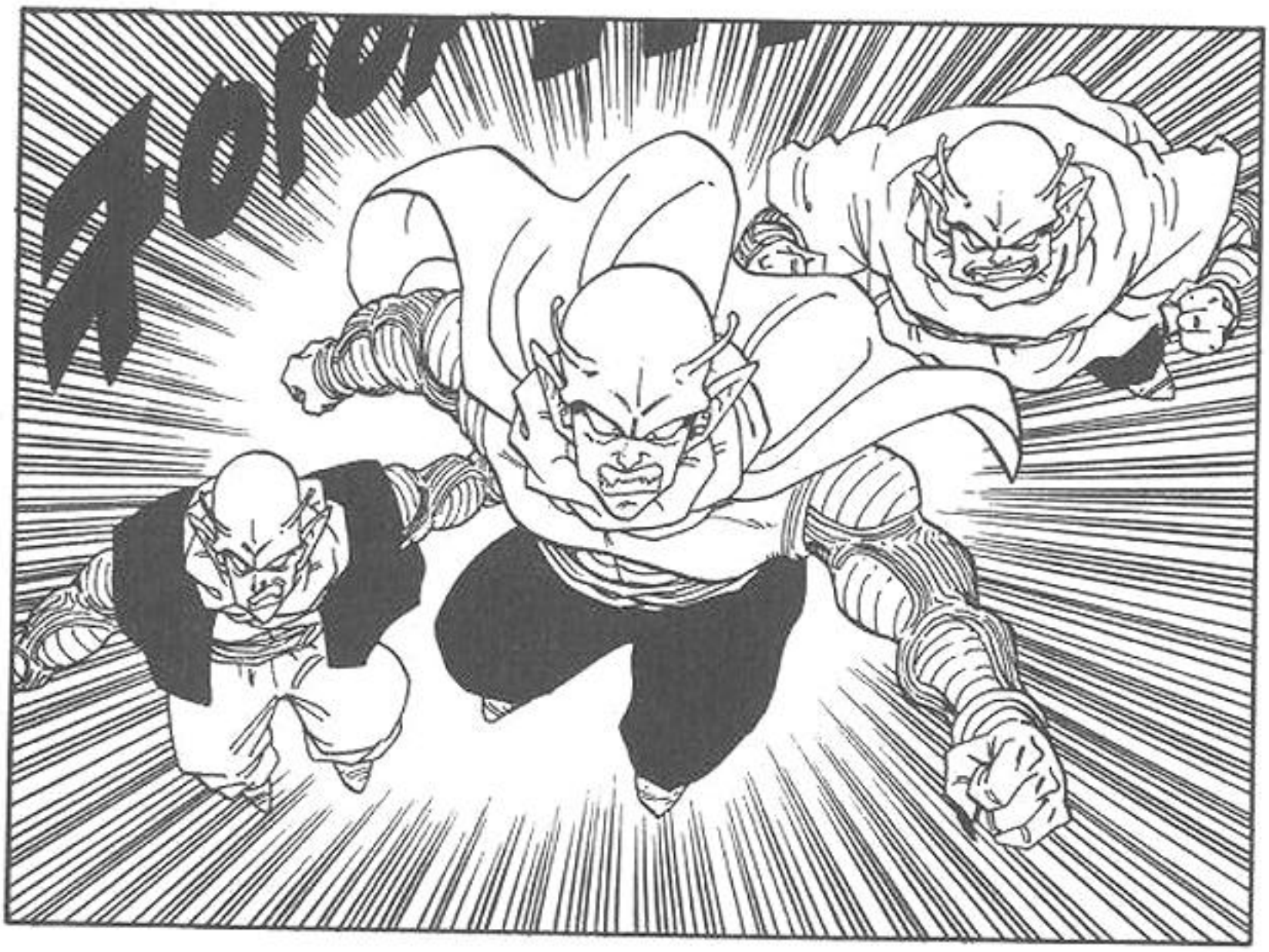
하지만 그 애들의 죽음을 보고도 계속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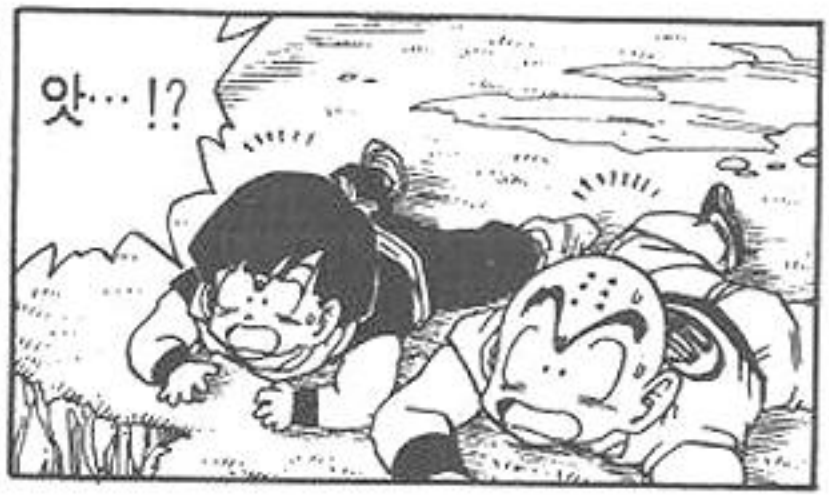
으…!


프리더 님!
저건!
강한
전투력이
…!?


삐
삐
삐
!!




아아!


앗…!?

scanned by raprnb

표지 페이지 대특집XX



무대는 마침내 우주로!! 드래곤 볼을 둘러싸고,
희망과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나메크성!! 최강, 최악의 적을
앞에 두고, 오반 일행의 운명은… !! 새로운 모험의 시작에
벌써 대흥분!! 자, 소년 점프에 실린 그대로의
표지 페이지 대특집이다!!

드래곤 볼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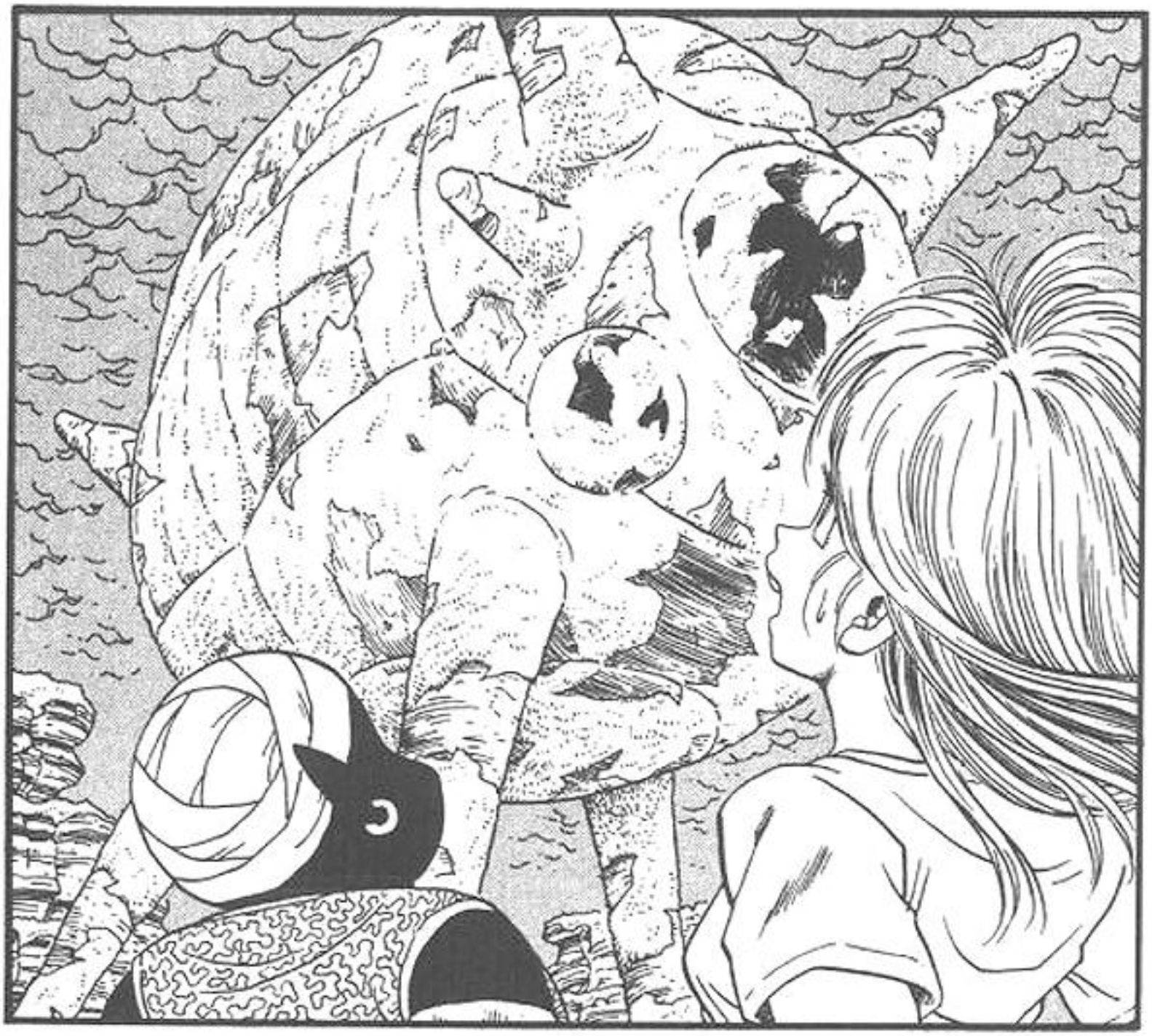
제243화
나메크성을 향하여!



DRAGON BALL

드래곤볼

제244화 우주선 발견!!



BIRD 鳥山明 STUDIO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245화
나메크성을 향해 발진!!



鳥山明
BIRD STUDIO

드래곤볼

DRAGON BALL

제246화 베지터 부활!!



BIRD STUDIO







제248화
수수께끼의
이방인





DRAGON BALL









鳥山明
BIRD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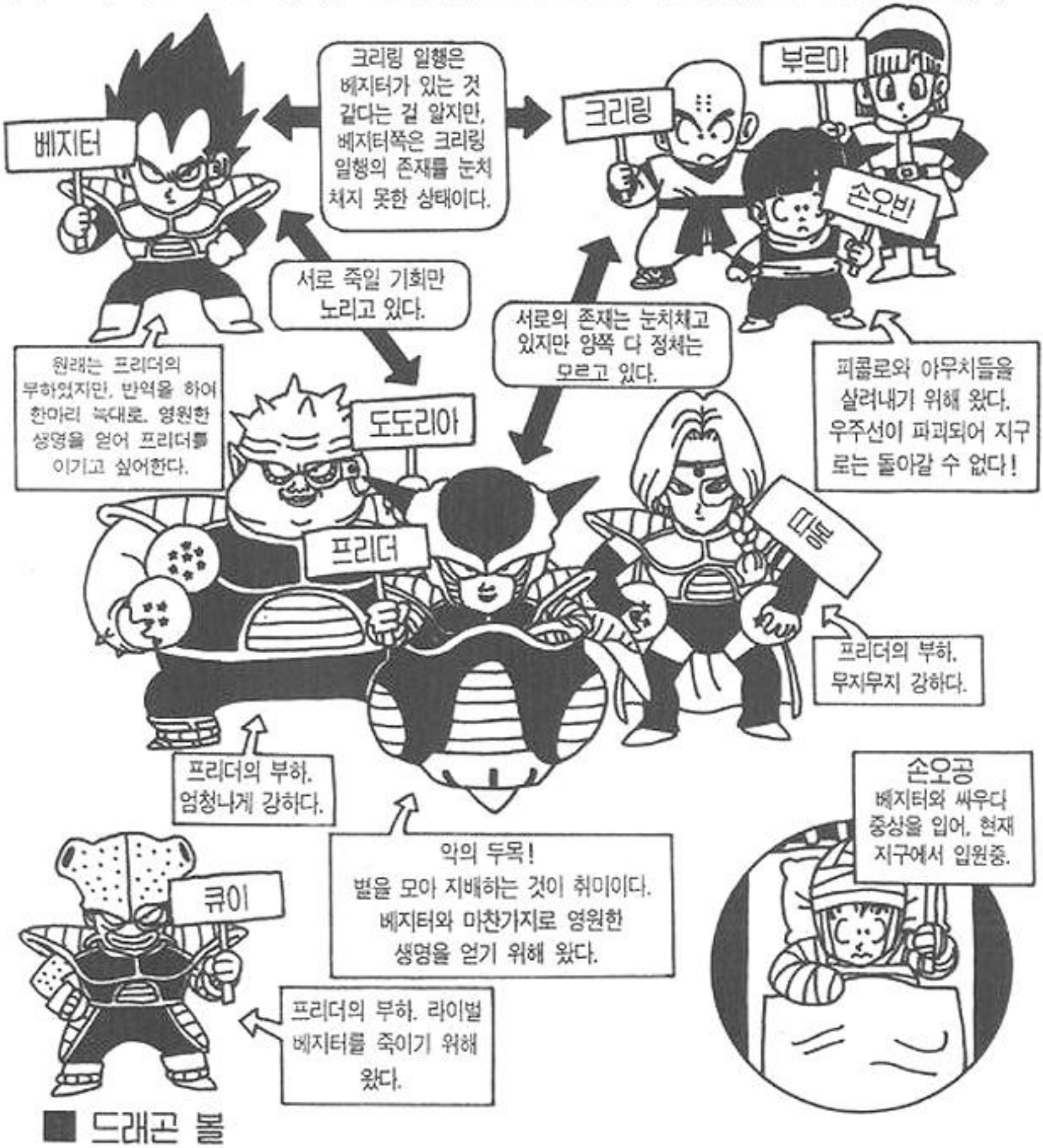
드래곤 볼

DRAGON BALL

제249화
베지터의 슈퍼파워

鳥山明
BIRD STUDIO

☆ 나메크성에서 드래곤 볼을 노리는 얼굴들☆



■ 드래곤 볼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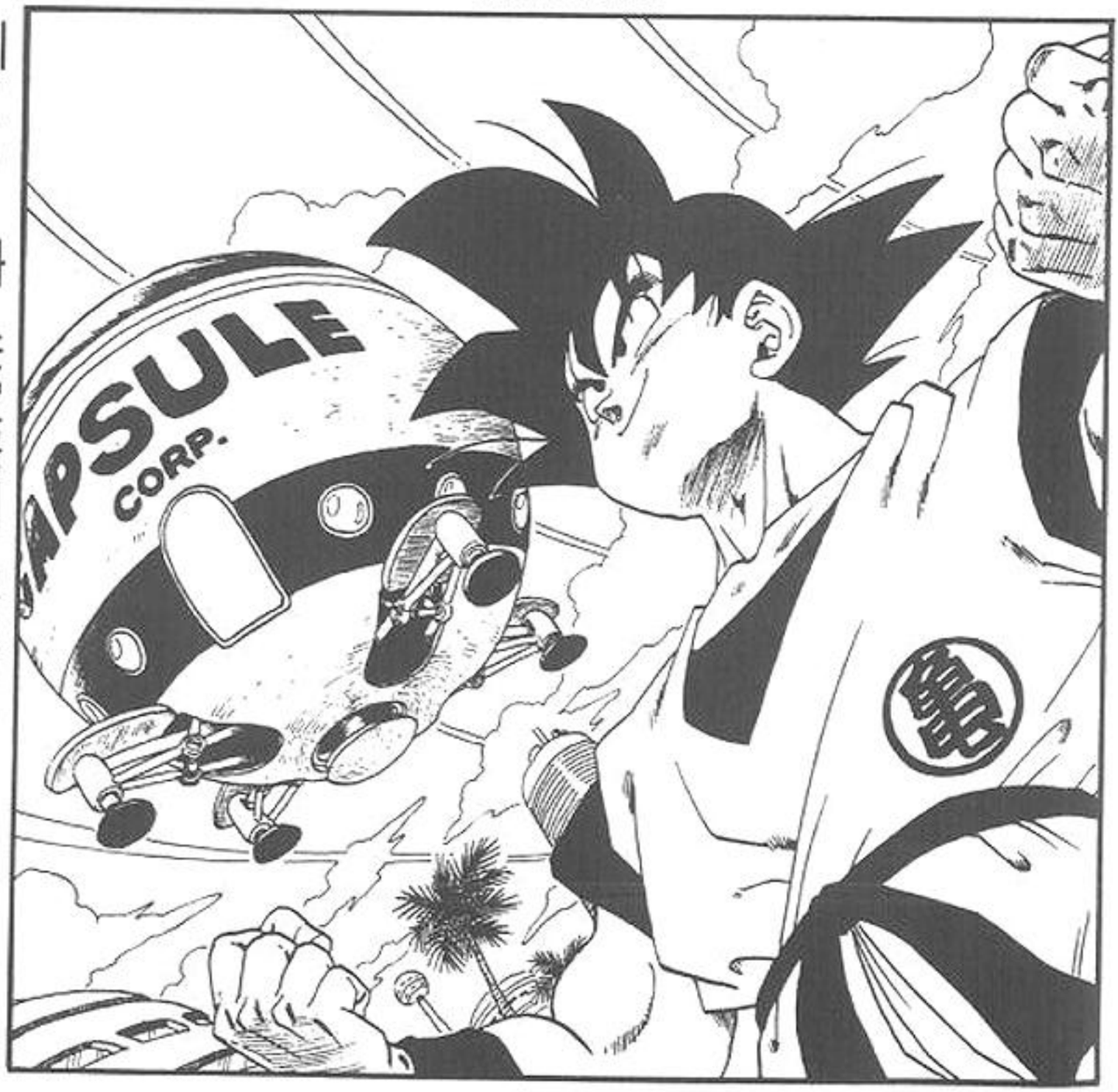
드래곤 볼

제250화
손오공 부활!!



DRAGON BALL

鳥山明
BIRD STUDIO



제251화 손오공의 아주버님

드래곤 볼

DRAGON BALL

scanned by raprnb

제252화 공포에 떠는 나메크성인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아이큐 점프 코믹스



2001년 2월 20일 제1판 인쇄
2001년 2월 26일 제1판 발행

저자 ● AKIRA TORIYAMA
번역 ● 아이큐 점프 편집부
발행인 ● 백승철
발행처 ● (주)서울문화사
등록일 ● 1988년 2월 16일
등록번호 ● 2-484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
전화 ● (02)7999-179~184(편집) / (02)7999-201~207(판매)
FAX ● (02)798-9991(편집) / (02)749-4079(판매)

[DRAGON BALL]
© 1984 by BIRD STUDIO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Japan in 1984 by Shueisha Inc., Tokyo.
Korean translation rights in Republic of Korea arranged by Shueisha Inc.
through Shin Won Agency Co. and MSC Japan Inc.

Korean edition, for distribution and sale in Republic of Korea only.
한국 내에서만 배본과 판매가 가능한 한국어판

●인지는 작가와의 협의하에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scanned by raprnb